금주의 법구-〈법구경〉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의 잘못을 찾긴 쉽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긴 어렵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1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8월 3일)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4자 후보 구도 확정

혜총 · 원행 · 정우 · 일면 스님 순으로 기호 배정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선거에 총 4명의 스님들이 입후보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월 4일부터 6일까지 접수한 제36대 총무원장선거 후보자 등록결과 기호 1번 혜총 스님(前대각회 이사장), 기호 2번 원행 스님(前중앙종회의장), 기호 3번 정우 스님(前통도사 주지), 기호 4번 일면 스님(원로의원) 순으로 정해졌다. 등록 첫날인 4일에는 공식 접수시간인 오전 9시 이전부터 혜총 · 원행 · 정우 스님의 대리인들이 후보자 등록을 위해 선관위 사무처를 방문했다.

후보자 등록 대리인으로는 혜총 스님 측에서 선거본부 직원이, 원행 스님 측에서 중앙종회의원 화평 스님이, 정우 스님 측에서 중앙종회의원 성화 스님이 참석했다. 이에 선관위는 규정에 따라 오전 9시 이전 접수자들에 한해 추첨을 실시, 혜총 스님이 기호 1번을 배정받았다.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일면 스님이 대리인인 동산 스님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면서 4자 구도가 만들어졌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서 이제 조계종은 9월 28일까지 총무원장 선거로 쉼 없이 일정을 소화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9월 11일 후보자 자격심사가 끝난 다음날인 12일부터 가능하다. 현재 입후보한 네 명의 스님 모두 전 · 현직 요직을 맡은 중진이라는 점에서 자격심사서 탈락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후보 사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네 스님 모두 완주할지는 미지수다.

총무원장선거에서 직접적인 표를 행사할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교구종회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각 교구본사에서 치러진다. 교구종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제20교구본사 선암사를 제외한 24개 교구별로 본사주지를 포함해 총 10인의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여기에 현재 중앙종회의원 78명이 더해져 최대 318명이 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혜총 스님(기호1번)


원행 스님(기호2번)


정우 스님(기호3번)


일면 스님(기호4번)

4~6일 후보자 등록 마무리
각 후보 스님 서류 접수 마쳐
선거인단 선출 13~17일까지
선거 막바지 사퇴 가능성도

후보들은 어떤 인물?

한편 기호 1번 혜총 스님은 1956년 통도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3년 범어사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포교원장과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총재,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불교 포교사의 산증인으로 평가된다. 특히 인덕(人德)을 바탕으로 한 대중과의 소통능력이 장점이다.

기호 2번 원행 스님은 1973년 법주사서 월주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5년 범어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1~13대 중앙종회의원, 16대 중앙종회의장, 중앙승가대 총장, 복지법인 승가원 이사장,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서 행정학 석 · 박사를 취득할 만큼 행정에 밝고, 대사회 관련 직책을 많이 맡아 수행한 것이 특징이다.

기호 3번 정우 스님은 1968년 통도사서 홍법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1년 통도사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9~12대 중앙종회의원, 총무부장, 통도사 주지, 3대 군종특별교구장, 불교방송 이사 등을 역임했다. 약 20개의 사찰을 일궈낸 도심포교 달인이자 군법당 신축 및 보수, 독서카페 기증 등 군포교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을 남겼다.

기호 4번 일면 스님은 1964년과 1967년 해인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제9~13대 중앙종회의원, 교육원장, 호계원장,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등 종단 내외 주요 소임을 거쳤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이자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으로서 생명나눔운동과 인재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 같은 공로로 2013년엔 만해대상을 수상했다.



계절도 무상(無常)하여…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폭염도 결국 부처님의 설법 안에 있었다. '無常', 이제 그 뜨거웠던 날들의 뒷모습이 보인다. 절 마당의 나무도 나무 아래 우리도 잘 견디어왔다. 그 끝은 법문으로 남고 이내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려 한다. 다시 설법이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울산대, 국내 최초 '원효학 연구소' 설립

9월 1일 개소 · 활동 시작… 초대 소장 박태원 교수

원효전서 번역사업 토대로
'원효학' 수립에 매진 계획
사전 편찬 · 계보학 등 확대
보편인문학으로 원효학 목표

원효 스님을 하나의 학문 체계로서 연구하기 위한 '원효학' 전문 연구소가 울산대에 설립됐다. 한국 대학에서 원효 전문 연구소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대는 "국내 유일의 원효 전문 연구 기관인 '원효학토대연구소'가 설립돼 9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9월 5일 밝혔다. 초대 소장으로는 원효 전문가인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가 맡았다.

일반적으로 연구가 종합돼 하나의 학적 체계를 구성할 수 있으면 '학(學, Science)'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한국 전통사상가 중에는 퇴계나 다산이 이 같은 학적 체계를 구성해 '퇴계학'과 '다산학'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한국불교와 정신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원효 스님은 '원효학'이라고 부를 만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마저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울산대의 '원효학토대연구소' 설립은 원효 연구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연구소 설립의 바탕에는 초대 소장 박태원 교수의 노력이 있어왔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 5년동안 한국연구재단의 토대연구사업을 통해 '원효전서 번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효 저술 전체가 제대로 번역되고 있지 않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원효학' 수립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원효전서 번역'은 원효 스님의 저서와 문헌을 '해석학적 번역'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번역하는 연구 사업이다. 기존의 현토형 번역이 아닌 연구자들의 해석적 이해를 통한 연구물들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원효학토대연구소의 1차 목표도 이 같은 '원효전서 번역사업'을 원만 회향하는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원효학토대연구소는 △원효전서 영역 △한 · 중 · 일 · 인도 · 티베트 망라한 원효사상 관련자료 집대성 · 전산화 △원효사상 개념사전 편찬 △원효철학과 한국불교철학의 개념계보학 구성 △원효학을 매개로 한 동아시아학 탐구 등의 후속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초대 소장 박태원 교수는 "원효전서 번역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후속 연구를 통해 '원효학'을 보편인문학으로서 한국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울산대 원효학토대연구소'가 원효학 연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전국 사찰불교대학 가을학기 개강 A5 | 정진의 길, 시코쿠-도쿠시마 5개 사찰 A8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건강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개원 13주년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이 개원 13주년을 맞았습니다.
1999년 10월 착공하여 2005년 9월 개원, 그리고 2018년 개원 13주년까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의술로 함께한 13년.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은 진단에서 치료까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80820-중-84409호
대표전화(진료예약) TEL 1577-7000 • 1032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 www.dumc.or.kr/is

마지막 종회 파행, 선관위원장 선출 논란

중앙종회, 지난 회기서 안건 철회된 세영 스님 재추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제16대 중앙종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인 제212회 임시회가 개원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 종법개정안보다 우선 안건으로 채택된 인사안에 대한 의사일정과 중앙선관위원장 선출 논란, 해종특위 구성 등을 놓고 여권과 야권 종책모임의 기싸움이 벌어졌다. 종단 대의기구인 중앙종회가 임기만료를 앞두고 부끄러운 모습을 남겼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 6일 개원한 제212회 임시회서 인사안을 우선적으로 다뤄 재심호계위원에 법광 · 정문 스님, 초심호계위원에 선조 스님, 법규위원에 진성 스님, 중앙선관위원장에 세영 스님, 종립학교관리위원에 인오 · 응묵 스님을 선출했다.

인사안 놓고 갑론을박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륜승가회가 재심호계위원과 중앙선관위원장 선출에 이의를 제기했다. 먼저 재심호계위원 선출과 관련해서는 의안접수 등의 마감일인 8월 30일이 지나 9월 4일 추천된 정문 스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법륜승가회 광전 스님은 "종회 사무처에서 공문을 통해 의안접수 마감일을 통지했고, 개인적으로 전화로 확인했을 때도 8월 30일이 마감이라고 들었다. 그런데 9월 4일 추천된 후보가 본회의에 올라온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종회 사무처와 법제분과위원장 만당 스님은 "중앙종회법과 종회 운영규칙에서 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어 의안을 추가로 접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종단 변호사도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그러자 법륜승가회 측은 이를 '자의적인 법 해석'이라고 주장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는 추천된 후보가 늘어나 표결로 이어질 경우 소수파인 법륜승가회 측이 추천한 인사가 선출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의사일정 · 안건상정 등 놓고
야권 법륜승가회 강력 반발
회의장 퇴장 및 기자회견도

파행 속에도 각종 종법 개정
9인의 해종특위 구성도 결의

2개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재심호계위원으로 추천된 후보는 법광 · 정문 · 현조 스님 3명. 실제 이 중 현조 스님을 법륜승가회 측에서 추천했지만 최종적으로 법광 · 정문 스님이 선출됐다. 이에 앞서 법륜승가회 소속 의원 14명은 의사일정과 중앙선관위원장 세영 스님 재추천, 해종특위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사진은 제16대 중앙종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인 제212회 임시회 모습.

법륜승가회 "임시회 거부" 입장

법륜승가회 퇴장과 함께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으며, 이어진 회의에서 세영 스님이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세영 스님은 앞서 211회 임시회서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추천됐으나 법륜승가회가 자격을 문제 삼으며 반대의견을 표출, 발의자가 추천을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다시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추천되면서 법륜승가회와 재차 마찰을 빚었다.

212회 임시회서도 법륜승가회는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른 시간에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인사안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법륜승가회는 회의장 퇴장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륜승가회는 212회 임시회를 거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각종 종법 미비사항 재정비

중앙종회는 오후부터 종법개정안을 처리하며 종법 미비사항을 재정비했다. 우선 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의원 임기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도록 했다.

前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중앙종회 불신임 결의 이후 수차례에 걸쳐 총무원 부실장을 교체하면서 혼란을 겪은 일을 예방하기 위한 총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가 결정되면 총무원장의 모든 직무가 정지되며, 권한대행을 중앙종회가 선출하게 된다.

승려법 개정안은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을 위해 작성하는 유언장을 제출하지 못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일부 스님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끝으로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해 호법분과위원회 간사인 제민 스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호법부와 함께 9인의 위원회를 꾸리도록 했다. 활동 기간은 16대 중앙종회 임기만료까지다.

염불시연대회가 돌아왔다… 학인 염불제일은?

조계종 교육원, 9월 19일 조계사서 염불대회

2014년 이어 4년 만에 개최
개인 · 단체, 전통 · 창작으로
15개 기관 · 277명 학인 참여
"무엇 상상하든 그 이상 볼 것"

조계종 학인 염불제일을 겨루는 염불시연대회가 다시 돌아왔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오는 9월 19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2018년 조계종 학인 염불시연대회'를 개최한다.

2014년 첫 대회 이후 4년만에 열리는 염불시연대회는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인 스님들 대상으로 염불수행에 대한 관심 증강과 의례 의식 이해를 위해 열린다.

'염불자수(念佛者誰) - 염불하는 이가 누구인고'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개인부 2개 분야(전통 · 창작염불), 단체부 2개 분야(전통 · 창작염불) 총 4개 분야로 진행한다.

개인부는 염불시연자 1인을 기준으로 2인 이하의 보조자가 염불시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시연시간은 5분이다. 단체부 참가기준은 염불시연자 3인 이상 20인 이하이며, 시연시간은 8분이다.

전통염불 참가자는 기존에 전래된 염불을 범음으로, 창작연불 참가자는 전통염불을 편곡하거나 새로운 염불을 창작해 시연할 예정이다.

올해 염불시연대회는 현재 종단 기본교육기관 15개 기관에서 총 277명의 학인 스님들이 예선 참가를 신청했다. 개인부 40명(전통염불 25명, 창작염불 15명), 단체부 21팀(총 237명)이 참가하며 본선에는 개인부 12명(전통6명+창작6명), 단체부 8팀(전통4팀+창작4팀)이 진출하게 된다.

염불시연대회의 심사는 예선의 경우 분야별 3인 1조로 구성된 심사위원진이 채점하며, 본선은 심사위원 6인으로 구성된다. 본선에는 스님과 재가자로 구성되는 80인을 초청 · 구성된 '청중공감단'의 공감지수를 심사점수에 50%를 반영한다.

예선전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본선은 오후 1시 30분부터 조계사 마당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조계종 교육부장 진광 스님은 "어려운 종단 사정과 연일 이어진 기록적 폭염에도 학인 스님들이 피땀 흘려 준비한 대회"라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학인 스님들의 열정을 통해 한국불교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조계종 교육원은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학인들의 전법역량을 강화시키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년전부터 염불시연대회(2014년), 외국어스피치대회(2015년), 토론대회(2016년), 설법대회(2017년)를 진행해오고 있다.

신성민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자연을 살생한 인과응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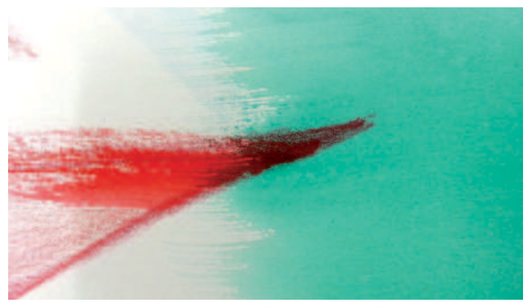
옛날에 어느 스님한테 한 젊은이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지옥과 극락은 정말 있습니까"

스님은 갑자기 젊은이의 목을 물항아리 속에 넣었습니다. 젊은이는 숨이 막혀 괴로워 했습니다.

이때 스님은 젊은이의 목을 놓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로웠지? 그 물 속에서 괴로워하던 때가 지옥이고, 숨을 다시 쉬게 됐을 때가 극락이라네."

올 여름 우리는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지옥'에서 한달이나 살았습니다. 태풍지옥과 폭우지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폭염지옥과 소욕지족 그림 · 조향숙

탐욕이 불러온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재앙 예고
'소욕지족' 온난화 해법

이러한 기상이변은 이웃나라 일본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몸살을 앓아온 지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인간에게 경고성 보복을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자연의 혜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마치 정복자처럼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훼손하고 있습니다. 기상변화는 이러한 이기적 인간에 대한 자연의 보복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자연살생의 인과응보입니다.

*올 여름 폭염은 본격적인 기후변화 진행을 예고하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온난화는 온대기후 지역이 점차 아열대 기역으로 변화하면서 가뭄, 폭염, 홍수, 태풍 같은 자연재해 발생률이 높아지는 기상이변의 주요원인입니다.

기후변화는 생태계 위기와 식량감소 위기를 초래해 인간의 삶을 위협할 것으로 과학자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재앙 예고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자기 문제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숨쉬고 먹고 활동하는 '생명의집' 지구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땅이 오염되고 바다와 대기에 문제가 생기면 인간을 비롯해 모든 생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때 지구는 더 이상 생명의 집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대재앙을 막기 위해 지구온난화 줄이기에 나서야 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2도 상승하면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 밀림이 붕괴하고 그 이상으로 오르면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연쇄반응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먼저 석탄 ·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에서 나오는 기온상승의 주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를 심고 숲을 가꿉시다. 개발이라는 이름아래 산림훼손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자동차 사용 억제, 재활용 분리수거, 냉 · 난방 온도 조절, 육식 줄이기 실천은 조금 '불편하게 살기'입니다. 욕망줄이기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합니다. 소욕지족(少欲知足)합시다. 작은 것에 만족할 때 넉넉해지고 행복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한 듯하지만 사실은 부유하다."〈유교경〉 소유와 과소비 그리고 편리함에 길들여진 오늘 우리에게 '소욕지족'은 지구 온난화를 줄이는 해답입니다. 지구를 아름다운 한송이 꽃(世界一花)으로 가꿉시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영어로 전법 · 교화하실 스님을 모집합니다!'
스님을 위한 영어 전문가 양성과정
국제불교영어학과 제5기 학인 모집
글로벌 시대에 전법교화의 주인공으로 영어 지도자 과정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 학과안내(5학기 과정)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내외 사찰 등에서 영어로 전법교화 활동을 하고자 원력을 세우신 스님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전문 교육기관임

● 졸업 후 활동 영역
• 외국인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청소년 영어법회, 사찰문화해설 등 교화활동
• 종단 국제교류 및 포교활동, 국제회의 및 행사 지원활동

● 지원자격
가.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2019년 3월 구족계 수지 예정자 포함)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스님
나. 사미, 사미니로써 '기본교육과정 이수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 4항 내지 8항에 의거하여 승인절차를 득하고 석사과정 진학을 예정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스님

● 교육과정 특징
동국대학교 영어교육 전문시스템(ACE 시스템)에 의한 체계적 교육을 시행하며, 전문영어교육으로 말하기, 읽기, 쓰기, 발표, 회의진행, 통번역과정의 교과목을 원어민 교수가 강의

● 특전
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종단지원
나. 기숙사 제공, 해외연수 실시(종단 전액지원)
– 전원 기숙사 제공
– 석사 3학기 중 3주간의 해외연수 실시
다. 2,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중 2년의 교육경력 인정
라. 사미, 사미니 스님이 졸업하는 경우 4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부여
마. 졸업 후 해외유학, 국내 통번역과정 대학 입학시 종단 장학승 우선선발

● 2019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가. 전형일정

원 서 접 수	전 형 일
2018년 10월 1일(월) ~ 31일(수)	2018년 11월 15일(목) 예정

나. 전형방법 : 학부성적, 영어구술고사, 면접고사
다. 전형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세부 전형일정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홈페이지(web.dongguk.ac.kr) 참조바람

●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02-2011-1809)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 학사운영실 (054-770-2393)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경주 황용사지서 신라 금동귀면 첫 발굴

불교문화재硏 9월 6일 발굴 현장 보고회서 발표

사례 찾기 힘든 금동귀면
석탑 옥개석 장식공예 추정
사명 '皇龍寺' 확인 瓦片도
"통일신라대 융성한 도량"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경주 황용사지 금당지에서 출토된 금동귀면. 처음으로 발굴됐으며,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귀중한 유물이다.


황용사(皇龍寺) 명문기와편. 문헌을 통해 전해졌던 황용사(黃龍寺)는 본래 사찰명이 아님이 확인됐다.

천년고도 경주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황용동 소재 황용사지에서 신라시대 금동귀면이 발견됐다. 이는 국내에서는 처음 발굴된 사례라 주목된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는 9월 6일 경주 황용동 소재 황용사지에서 1차 시·발굴조사 현장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굴조사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문화재청과 함께 진행 중인 '중요 폐사지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경주 황용사지는 올해 2번째 조사였다.

황용사지는 경주 보문단지에서 감포방면 동대봉산(옛 은점산) 절골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로, 경주 구황동에 있는 황룡사지와는 다른 사찰이다.

〈불국사고금역대기(佛國寺古今歷代記)〉에 의하면 황용사는 선덕여왕 2년(633년)에 창건됐으며, 당시 명칭은 황둔사(黃芚寺)라고 불렸다. 이후 소성왕대에 황용사(黃龍寺)로 바뀌어 중창, 중수 등의 과정을 겪으며 사세를 유지해 왔다.

조사 전부터 황용사지는 통일신라시대 쌍탑을 비롯해 고려시대 승탑, 초석, 석축들이 흩어져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정비·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시·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불교문화재연구소는 걸이가 있는 투조 금동귀면, 석불, 용두편, 하대석 편 등 사찰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유물들을 발굴했다.

특히 금당지 동탑 기단 하단부에서 발견된 투조 금동귀면은 현재까지 발견된 바 없는 유물로 주목을 받았다. 금동귀면의 크기는 15cm정도로 투조 기법으로 매우 입체감 있게 만들어졌다.

최인창 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은 "이번에 출토된 금동귀면은 아직까지 한 번도 발견된 적 없는 사례"라면서 "석탑 부재 옥개석 모서리에 못 구멍이 확인되고 금동귀면 귀 하부에도 못이 있어 옥개석 장식으로만 추정할 뿐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8세기 쌍탑가람과 금동귀면 장식, 12지신 양각 불대좌하대석 등도 함께 출토돼 황용사가 통일신라시대 매우 융성했던 사찰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발굴에서는 기존 문헌으로 알려진 '황용사(黃龍寺)'가 아닌 본래 사찰명이 '황용사(皇龍寺)'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문기와편이 출토돼 눈길을 끌었다.

회암사지 출토 용두편과 유사한 용두편이 발견돼 조선시대에도 사격이 높았음이 추정된다는 게 연구소 측의 주장이다.

이번 발굴조사에는 황용사의 가람 구조와 규모들도 확인됐다. 황용사는 계곡 주변에 크고 작은 석축 대지를 조성한 후 건물을 축조한 산지형 가람으로 통일신라~조선시대 건물지 5동, 탑지, 축대, 석렬 등 다양한 유구가 중복돼 출토됐다.

최 팀장은 "현재 쌍탑이 남아있는 구역의 경우 고려시대와 관련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고려시대에는 주변의 다른 곳으로 옮겨 갔다가 조선시대에 다시 중창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황용사의 사역이 현재 추정 사역보다 훨씬 넓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사찰 성격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를 추가로 얻는다면 통일신라 경주 지역 쌍탑 가람과 조선시대 경주 불교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살 내몰지 않는 사회' 만듭시다"

생명존중시민회의, 9월 4일 생명주간 선포식서

"국민 개개인은 물론 정부와 기업, 학교, 종교계, 언론, 시민사회 모두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아갈 때입니다. 생명존중시민회의는 '자살'이란 이 시대 아픔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생명주간으로 선포합니다."

하루 평균 36명, 연 평균 1만 3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3년째 자살률 1위국이다. 생명존중시민회의(공동대표 임삼진 박인주)는 9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서 '생명존중 1000인 선언 및 생명주간 선포식'을 열고 자살 예방을 강조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신일 前교육부총리 등 고문을 비롯,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장 가섭 스님·이범수 부원장 등 각 종교계 대표자 및 시민 170여 명이 참석해 범국민 생명살림운동 실천을 약속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경과보고, 생명주간 선포, 1000인 선언문 낭독, 종교계 생명주간 활동계획 발표, 생명존중 서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생명주간을 전후로 9월 6일 롯데그룹의 생명존중 선포식, 7일 생명사랑 밤길걷기, 10일 세계자살예방의 날 행사, 11일부터 12일까지 자살예방종합학술대회 등 '자살예방'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가섭 스님은 이 자리서 불교계 대표로 생명주간 '2018 생명살림 대법회'를 봉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스님은 "불교상담개발원의 자발예방사업 일환으로 전국 28곳 사찰서 6천 명 이상이 참여하는 생명살림 법회를 열고 불교적 생명존중·자살예방 대강좌 및 캠페인을 시행한다"며 "9월 1일 목우선원, 8일 포교사단 등 이미 시작한 곳도 있으며, 생명주간 첫 날인 9일부터 총 32회 법회를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김지원 기자



생명주간선포식에는 불교계 대표 가섭 스님(사진 앞열 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해 시민사회 대표 170여 명이 참석했다.

가을 산문이 열리니 어깨춤이 들썩

전국 주요사찰 개산 맞아 문화축제 잇달아

개산 1600년 맞은 직지사
10월 12~14일 문화제전

통도사 1달여 간 문화축제
보석 관음보살 장엄 '눈길'
봉은사 등 문화 접목 행사

전국 주요 사찰이 개산(開山), 즉 창건한 시기는 대부분 9~11월에 몰려있다. 이 시기가 되면 전국 사찰들은 개산대재를 봉행한다. 최근에 들어서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올해도 주요 사찰들은 개산을 맞아 다양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개산 1600주년을 맞는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주지 웅산)와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다.

직지사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경내 일원에서 개산 1600년을 맞아 '호국성사 사명당 문화제전'을 개최한다.

문화제전은 개산대재 법요식을 비롯해 △금자대장경 음악회 △호국성사 사명당 추모 세미나 △금자대장경 사경대회 △사명대사 '나라사랑' 학조대사 '한글사랑' 백일장 및 직지신인문학상 공모 △직지사 1600년에 대한 기록전 등 다채롭게 꾸며진다.

이와 함께 직지사는 사명 성사의 나라 사랑과 학조 대사의 나랏말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청소년백일장을 개최한다. 또 故 녹원대종사가 제정해 한국문학의 중흥을 견인한 녹원문학상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직지신인문학상도 공모한다.

통도사는 개산조 자장율사의 뜻을 기념하는 '1373주년 개산대재 영축문화축제'를 9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장장 한달여 간 개최한다. 매년 색다른 기획으로 불교문화를 선보이고 있는 통도사는 올해 특별 전시로 비즈 구슬로 화려하게 장식한 관세음보살을 제작했다. 아울러 불교 조각의 현대화를 이끌고 있는 이영섭 작가의 '부처님과 어린왕자' 전을 열어 천진불의 세계로 초대한다.

괘불 조성체험도 눈길을 끈다. 고려불화 수월관세음을 모티브로 제작한 대형 그림에 비즈로 화려하게 장엄하는 행사로 통도사는 6월 21일부터 체험을 시작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불이문 앞에서 전시된다.

아울러 통도사 성보박물관도 개산대재 기념 괘불탱화전을 열어 시민과 함께 한다. 괘불탱화전은 10월 9일 시작한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는 개산 1340주년을 기념하는 법요식을 10월 20일 오전 10시 대웅전 앞에서 봉행한다. 매년 범어사는 부산불교연합회가 주관하는 팔관회와 함께 개산대재를 기념했으나 올해는 따로 진행해 개산조 의상대사가 화엄십찰로 창건한 범어사 개산 의미를 강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어사는 1부 개산조에 차를 올리는 헌다와 육법공양으로 시작해 주지 스님 인사말과 방장 지유 스님의 법문으로 이어진다. 2부에서는 화엄의 뜻을 강조하며 함께 공양을 나누는 '호국발원 천인공양 비빔밥 나누기'를 진행한다. 비빔밥을 담은 대형 가마솥을 마련해 주지 스님과 산중 대중 스님들이 시민에게 공양을 나누고 화합의 뜻을 담는다.

서울 강남 포교 1번지 봉은사(주지 원명)은 개산 1224년을 맞아 개산대재와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개산대재 행사는 10월 9일부터 17일까지 열리며, 다례재로 시작을 알리며 전국 찻거리 경연대회, 행복나눔바자회, 정대불사, K-POP 가을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또한 생전예수재 회향과 수륙대재는 봉은사 개산대재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다.

신성민, 하성미 기자

천태종, 라오스 댐 붕괴 이재민에 구호품

3억여 원 상당 물품 주한 라오스 대사에



천태종과 종단 산하단체 (사)나누며하나되기가 라오스 남동부 아타푸 주(Attapeu province)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붕괴로 발생한 이재민에게 3억여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9월 4일 서울 관문사서 캄쑤와이 께오달라봉 주한 라오스 대사에게 3억3000여만원(약 30만 달러) 상당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 자리서 문덕 스님은 "이번 구호물품은 전국 250만 천태종도들이 고통 받고 있는 라오스 주민들을 위해 정성껏 마련할 것"이라며 "이 물품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하루속히 행복한 웃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기원한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문덕 스님은 이어 "라오스는 오랜 불교국가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아름다운 나라다. 한국 불자들도 라오스의 불교 전통을 존경하고 있다"며 "라오스 불자들과 한국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하나의 형제라고 생각한다. 오늘을 시작으로 유대관계를 지속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캄쑤와이 대사는 "천태종에서 보낸 구호물품이 현지 이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라오스 정부도 구호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오스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전달식에는 천태종 총무부장 월장 스님, 교무부장 경혜 스님, 천태종복지재단 사무총장 덕중 스님 등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대학생 불자 신문 펴내, 불교 알리기 Start

9월 10일 〈Campus 108〉 1호 창간



대불련이 펴낸 〈Campus 108〉 창간호. 게임 속 불교와 청년불자들의 연애담 등을 담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최근 불교 관련 인터넷 정보를 바로잡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불교 반크(Vank, 민간 홍보대사)' 역할을 할 청년신문이 탄생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양희동)는 9월 10일 〈Campus 108〉 창간호를 펴냈다. KBUF불담기자단(단장 김동현, 서강대 종교학과 2학년)을 중심으로 만든 이번 신문에서는 '게임에서 불교를 찾다' 특집과 '연애민국, 자발적인 솔로들은 응답하라' 등 다양한 기사와 함께 '스님이 돈까스를 먹는다?' 는 제목의 궁금점을 풀어주는 기사와 각 대학 불교학생회 소식 등이 실렸다.

또 대불련 봉사단인 '다온'을 파헤쳐보자와 백효흠 대불련 총동문회장의 인터뷰도 실렸다. 전국불교동아리 현황을 통해 각지의 대불련 소속 불교동아리의 현황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불련의 신문 창간은 대학생 불자들의 소식지 역할 뿐만 아니라 대학가에서 올바른 불교정보를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반 사회에서는 잘못된 불교 정보를 바로잡는 반크 운동이 활발히 일고 있다. 안동대 민속학과 1학년에 재학하는 오유진(20) 씨는 9월 일본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일반인들에게 세계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사이트 '세계 역사의 창' (世界史の窓 · www.y-history.net)에서 "13세기 초 고려에서 금속활자가 사용됐지만 이 활자로 인쇄된 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았다.

韓 '반크' 日〈직지〉정보 수정
정작 불교단체는 활동 전무
대불련 등 역할 기대 높아져

불교계에서도 이 같은 반크 운동을 벌인 바 있다. 그 주인공은 보리방송모니터회로 1990년부터 일간 방송에서부터 인터넷 관련 뉴스까지 주요 언론에 대한 불교 관련 오류를 바로잡는 역할을 했다. 또 포교사단은 인터넷 포털이 활성화되던 2005년부터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불교왜곡 정보를 바로잡는 '불교바른정보사업' 을 이양 받아 조직,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그리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네이버 지식검색과 각종 블로그에서 잘못된 불교 정보를 바로잡는 데 나선 바 있다.

당시 4대 포털사이트의 불교지식 5410건을 모니터링하고 바로 잡아 갔다. 하지만 현재 중단 상태다.

조계종 포교원은 올해 각 산하단체 및 사찰 담당자를 대상으로 미디어 포교 관련 교육을 조직화하는 데 나섰다.

불교계 단체 중 그나마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곳이 바로 대불련이다. 대불련은 최근 불교기자협회와의 연계를 통해 기자교육을 받고 불담기자단 1기를 구성했다. 이어 9월 20일까지 9월~12월 활동하는 1.5기 모집에도 나서고 있다. 대불련은 이번 신문 발간과 함께 인터넷 등에서 활동할 기자들을 양성해 불교반크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동현 KBUF불담기자단 단장은 "지면 신문과 함께 인터넷을 중심으로도 불교를 알리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불교를 모르는 이들도 불교에 대해 바르게 알고 신심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1인 미디어의 확산으로 불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다양화되는 인터넷과 방송에서 호법역할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이런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원주 흥법사지서 통일신라 금동불 출토

강원 원주 흥법사지에서 통일신라시대 금동여래입상〈사진〉이 발견됐다. 원주시와 강원문화재연구소는 "신라시대 절터인 흥법사지(강원도 문화재자료 제45호) 발굴조사 중 금동여래입상을 비롯해 건물지 3동과 석축 등을 확인했다"고 8월 28일 밝혔다.

발견된 건물지는 남북길이 17m, 동서길이 16m 방형에 가까운 금당지로 추정된다. 회랑으로 추정되는 건물지에서는 높이 7㎝가량의 통일신라시대 금동여래입상이 출토됐다.

발굴 관계자는 "출토된 금동여래입상은 향후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유물의 주조기법과 도금방법 등을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흥법사지에는 진공대사 탑비(보물 제463호)와 흥법사지 삼층석탑(보물 제464호)이 위치하고 있으며 원주시와 강원문화재연구소는 지난 5월 24일부터 추후 정비 및 복원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발굴조사를 진행해왔다.



신성민 기자

'보물' 선운사 대웅전, 집중호우에 파손

문화재청, 문화재 피해 15건 확인 · 응급조치

지난 8월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고창 선운사 대웅전(보물 제290호) 내림마루 기와가 떨어지고 익산 미륵사지 수로 석축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집중호우로 인해 고창 선운사 대웅전을 비롯해 익산 미륵사지, 안동 하회마을 등 15건의 문화재 피해가 발생했다"고 9월 6일 밝혔다.

이번에 피해가 많이 난 지역은 주로 충북, 전북, 전남 지역이며,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호우로 인한 피해라서 담장이나 석축이 무너지거나 토성 침하, 목조건물의 지붕 파손 · 천정 누수 · 기와 탈락 등이 대부분이었다.

15건의 문화재 피해 중 불교 관련 피해는 총 3건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고창 선운사 대웅전으로 후면 내림마루 기와가 탈락됐다. 현재는 관람객 출입제한 및 안전띠를 설치했으며 현장 조사 후 복구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충북 안심사 대웅전은 호우로 인해 석축이 유실됐다. 현재는 석축 주변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익산 미륵사지는 동측 대배수로 석축이 유실됐고, 우장막을 설치해 추가 유실을 방지했다.


8월 말 집중호우로 인해 보물 제290호 고창 선운사 대웅전의 내림마루 기와가 탈락됐다. 현재는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조사 후 복구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호우 피해를 입은 15건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2차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피해 문화재마다 개별 응급조치를 우선 실시했다"며 "경미한 피해를 입은 9건에 대해서는 자체복구를 하는 중이며 주요부분의 피해가 있는 6건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긴급보수 예산 지원을 검토해 조속히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교고전 백암집 · 동계집 한글본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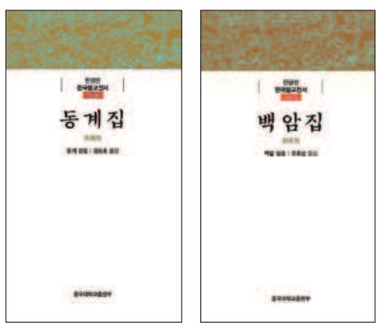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학술원 출간
전서 발간 사업 일환으로
〈석보상절〉권3 주해본도

한국불교 고승 문헌인 〈백암집〉과 〈동계집〉의 한글본이 발간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 사업단은 한국불교전서 발간 사업의 일환으로 〈백암집〉 · 〈동계집〉 한글본 2책과 〈석보상절〉 권3 주해본을 최근 발간했다.

이번 한글본 출간으로 지난해 총 55종을 발간한 이후로 한국불교전서 한글본 문헌은 모두 67종이 됐다.

이번에 발간된 한글본인 〈백암집〉은 조선 후기 승려인 성총(性聰, 1631~1700)의 문집으로 원문은 한국불교전서 제8책에 수록돼 있다. 〈백암집〉은 2권 1책으로, 간행 연대와 장소가 분명치 않은 목판본이 규장각에 소장돼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 필사본이 전한다. 권상에는 시(詩), 권하에는 문(文)이 실려 있다.



시는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편집됐으며, 증여시와 차운시의 형태가 많다. 문은 기(記) · 서(序) · 상량문 · 권선문 등으로 양이 풍부한 편이다. 이 중에 특히 기(記)가 많아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동계집〉은 효종 · 현종 · 숙종 연간에 활동한 경일(敬一, 1636~1695) 스님의 시문집으로 네 권으로 이뤄졌다.

〈동계집〉은 경일이 입적한 지 16년 되던 신묘년(1711)에 간행되었는데, 생전의 명성을 생각하면 늦은 시기에 간행됐다는 평가다.

문집 간행에 임해서는 문도인 자감 · 익상 · 원순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감은 직접 '태허당 대사 행적' 을 찬술했으며 익상은 〈동계집〉의 개간과 관련, 간기(刊記)를 작성하는 한편, 당시 영남의 큰 학자였던 신주백(申周伯)을 찾아 서(序)를 부탁했다. 원순은 풍계(楓溪)에게 〈동계집〉의 또 다른 서문을 부탁했지만 판각 원고로는 신주백의 서가 선택됐다.

주해본으로 발간된 〈석보상절〉권3은 훈민정음 반포 이후 최초의 산문 번역문헌으로서 정음 문헌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문체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중세국어 연구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문헌이다.

이번 출간으로 ABC사업단이 발간한 주해본은 총 4종이 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한국불교전서 한글본 역주 사업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총 324종에 달하는 불교저서를 집대성한 한문불전 '한국불교전서' (전 14책)를 한글화하는 사업"이라며 "각 시대의 불교문화와 역사, 철학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을 우리말로 알기 쉽게 집대성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복지재단, 실무자 연수 '성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혜일)은 8월 29일부터 30일 한국문화연구원서 '2018 실무책임자 연수' 를 개최했다. 이 재단 산하 사회복지시설 부국장급 종사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최고관리자 · 실무자의 가교 역할을 하는 실무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및 리더십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급증하는 국내 재난상황에 대한 사회복지기관의 신속 대처와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커리큘럼이 신설됐다.

이윤호 한국재난심리연구소장은 '재난 심리지원 활동과 심리적 응급처치법' 을 주제로 한 강의서 심리지원의 필요성 및 핵심원칙을 설명했다. 연수자들은 재난상황 발생 시 사회복지기관의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을 다졌다.

이외에도 조성희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세훈 유엔미래포럼 한국지부 사무총장은 △불교사회복지의 핵심가치와 실천 △'미리 보는 미래보고서' 를 주제로 강의했다.

김지원 기자





난타·서화, 불교대학서 가을나기 즐겁다

9월부터 전국 불교대학 개강

노덕현 · 김지원 기자

무더위가 가신 9월은 독서와 사색의 계절이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혹은 연초에 계획한 자기계발의 기회를 다시 찾는다.

이런 9월에는 전국의 불교대학들이 문을 활짝 연다. 불교에 갓 입문한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불교적 삶을 돕는다.

조계종 불교대학만도 156곳, 전국 각지에 없는 곳이 없다. 가을을 맞아 새롭게 불교공부 삼매에 빠질 이들은 주목해 보자.

신도전문교육기관은 신도기본교육을 마친 불자들이 가야하는 학교다. 불교대학은 연 96시간 이상의 1~2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최근에는 불교학 개론과 부처님 생애 등 기본 필수과목 외에도 다양한 불교와의 접점을 모색한 강좌도 열고 있다.

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불교대학 강의를 80% 이상 수강하고 종단 인증을 받으면 졸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다양한 전문적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불교대학도 인기다. 청소년포교 지도사를 비롯해 각종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청소년 법회 지도자로 나서요"

대한불교교사대학(www.kbtc.or.kr)은 조계종 포교원이 불교어린이지도자양성을 위해 개설한 불교대학이다. 사단법인 동련에서 주관하는 대한불교교사대학은 사이버 공간에서 교육을 진행하며 인터넷을 통해 입학할 수 있다. 학력과 성별, 연령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

이번 가을을 맞아 불교청소년지도사과정을 개설했다. 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과정에서는 청소년법회 교재 및 교구 활용, 화엄놀이 DIY를 활용한 청소년 법회, 법회환경 꾸미기 등 수업으로 청소년법회 개론 · 운영 · 실제를 배울 수 있다.

전국 150여 곳 조계종 불교대학
불교교리 비롯 자원봉사 운영도
난타 · 사물 · 목탁습의 등 다채

"서울 사찰 역사와 문화 살펴요"

서울 동산불교대학(www.dongsanbud.net)은 김경집 위덕대 교수를 강사로 서울의 24개 사찰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특별강좌를 개최한다. 흥천사와 진관사, 승가사와 도선사 등 강좌를 통해 그동안 몰랐던 서울 주요사찰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갈 수 있다. 강좌와 함께 현장답사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동산불교대학은 한국춤반, 선무도반, 사물놀이반, 민화반 등을 개설한다. 사물놀이반의 경우 영남농악의 사물놀이와 천수북 및 법고북 치기 등을 배울 수 있다. (02)732-1206

"난타로 스트레스 해소해요"

울산 정토불교대학(www.jungtosa.com)은 난타 취미반을 개설했다. 전문강사가 지도하며 악기도 제공되는 난타반은 기초와 중급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타악 퍼포먼스를 익히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할 수 있고, 공연을 통해 봉사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접수한 뒤 당일 지정된 장소로 가면 바로 들을 수 있다.

"목탁 한 번 제대로 쳐볼까?"

서울 조계사불교대학(edu.jogyesa.kr)은 목탁교육생 11기를 11월부터 접수받는다. 목탁습의에 관심이 있고, 조계사 기본교육을 수료한 불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1회 90분간, 3개월 동안 교육이 진행된다. 목탁교육 수료 후에는 염불봉사단 입단자격을 부여한다. 조계사 염불봉사단의 경우 국내 대표적인 염불봉사단이다. 목탁은 개별로 구입해야 하며 수강료는 8만원이다. 선착순 50명에 한정하니 유의하자.

"불화와 개금의 전문가로 거듭나자"

대한불교진흥원이 진행하는 대원불교문화대학은 불교전통꽃꽂이와 불교 영어와 회화, 단청의 이해 등 불화그리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故 김익홍 선생 문하에서 불화, 개금을 전수 받고 홍창원 선생 문하에서 단청을 수학, 무림 김기영 선생 문하에서 서예를 수학한 정인 스님이 강사로 나선다. 스님은 경향미술대전 특선, 현대여성미술대전 특선, 2011굿모닝 아트컬렉션전 등에 출품한 전문가다.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2시까지 진행되며 1기당 9만원의 수강료를 받는다. (02)707-1072

전국 불교대학 주소록 (총 156곳, 지면 관계상 일부 표기)

지역	불교대학명	전화번호
서울	국제선센터불교대학	02-2650-2209
	극락사불교대학	02-434-1717
	금강선원불교대학	02-445-8484
	길상사불교대학	02-3672-0036
	대성사불교대학	02-583-1475
	봉은불교대학	02-3218-4821
	불광불교대학	02-417-2551
	삼보불교대학	02-352-6406
	서울정각원 불교대학	02-2260-3016-8
	수국사불교대학	02-356-2001
	조계사불교대학	02-768-8600
	진관사불교대학	02-359-8410
경기	금강불교대학	02-898-8200
	김포불교대학	031-980-7753
	대덕사불교대학	031-283-3655
	보문선원불교대학	031-401-2540
	봉선사불교대학	031-527-5974
	안양불교대학	031-444-5935
경기	용주사불교대학	031-221-2324
	자재암불교대학	031-865-4045
	청계사불교대학	031-426-2348
	화운불교대학	031-335-2576
	법륜사불교대학	031-332-5703
	정심사불교문화대학	031-791-7732
	봉국사불교대학	031-755-0329
	묘적사불교대학	031-576-0784
	약천불교대학	031-942-1252
	보광사불교대학	031-948-7701
	경인불교대학	031-574-5585
인천	경인불교대학	032-427-8400
	나란다불교대학	032-434-9930
	인천불교대학	032-577-5108
	전등사불교대학	032-937-0025
강원	강릉불교대학	033-643-2985
	동해불교대학	033-534-7661
	신흥사불교대학	033-638-4807
강원	원주불교대학	033-746-0248
	월인불교대학	033-436-6611
	청평사불교대학	033-244-1095
	용연불교대학	033-647-1234
충남	각원사불교대학	041-561-3545
	마곡불교대학	041-841-6221
	보문사불교대학	041-545-6531
	서광불교대학	041-664-2002
	수덕사불교대학	041-330-7789
	영평사불교대학	044-854-1854
	향천사불교대학	041-335-3556
대전	대전불교대학	042-222-3315
	백제불교문화대학	042-471-8214
	통도사대전불교대학	042-531-1332
	수덕사대전불교대학	042-222-1159
충북	법주사불교대학	043-542-4200
	석종사불교대학	043-854-4505
	중원불교대학	043-745-7788
충북	직지불교대학	043-272-1080
	청주불교문화대학	043-256-6254
	충북불교대학	043-273-2159
부산	내원불교대학	051-242-0691
	로터스불교대학	051-853-8539
	범어사금정불교대학	051-866-7277
	법계사불교문화대학	051-711-0700
	여래사불교대학	051-466-4080
	영주암불교대학	051-754-2210
	원각불교교육대학	051-752-6624
	인과불교대학	051-704-0332
	선암사나란다불교대학	051-803-7573
	홍법불교대학	051-508-0345
울산	백양사불교대학	052-243-8712
	여여불교문화대학	052-267-0108
	정토불교대학	052-258-9944
	지장정사불교대학	052-256-3552
	황룡사불교대학	052-211-1949
울산	울산불교교육대학	052-266-3318
대구	경북불교대학	053-792-1353
	관오불교대학	053-472-0108
	대구불교대학	053-256-3725
	마하야나불교대학	053-629-0408
	법왕불교대학	053-766-3747
	한국불교대학	053-474-8228
경북	구미불교대학	054-453-0571
	김천불교대학	054-429-1700~2
	남화사불교대학	054-452-6568
	문경불교대학	010-3776-2476
	보경사불교대학	054-262-1117
	불국사불교대학	054-746-2211
	대원불교대학	054-858-2630
	예천불교대학	054-654-0682
	은해사불교대학	054-335-3318
	의성불교대학	054-833-2938
	포항불교대학	054-247-4688
경북	금강불교대학	054-632-3767
	상주불교대학	054-535-2881
	대승불교대학	053-802-4080
	기림사불교대학	054-744-2292
경남	경남불교대학	055-543-7195
	구룡불교대학	055-294-3279
	대광불교대학	055-545-9595
	성주사불교대학	055-262-0108
	도성암불교대학	055-533-2073
	밀양불교대학	055-354-4464
	봉림불교대학	055-237-2266
	영축불교대학	055-242-8393
	진주불교대학	055-759-1080
	통도사불교대학	055-382-7182
	해인사불교문화대학	055-934-3110
	쌍계사진감불교대학	055-883-1901~2
전남	강진불교대학	010-6622-5655
	목포불교대학	061-285-0576
전남	삼호불교대학	061-461-1212
	영암불교대학	061-473-5122
	완도불교문화대학	061-554-2634
	해남불교대학	061-534-5502
	불일불교대학	061-755-0107
	화엄사선재불교대학	061-783-7600
광주	광주불교대학	062-375-7633
	무각사불교대학	062-383-0108
	선덕사무등불교대학	062-263-4660
전북	남원불교대학	070-8881-0108
	정읍불교대학	063-536-8741
	참좋은우리절불교대학	063-236-6633
	화엄불교대학	063-277-3497
제주	서귀포불교대학	064-733-8882
	제주불교문화대학	064-724-6830
	신제주불교대학	064-746-0108
포교원	불교상담대학	02-737-7378
	대한불교 교사대학	051-852-08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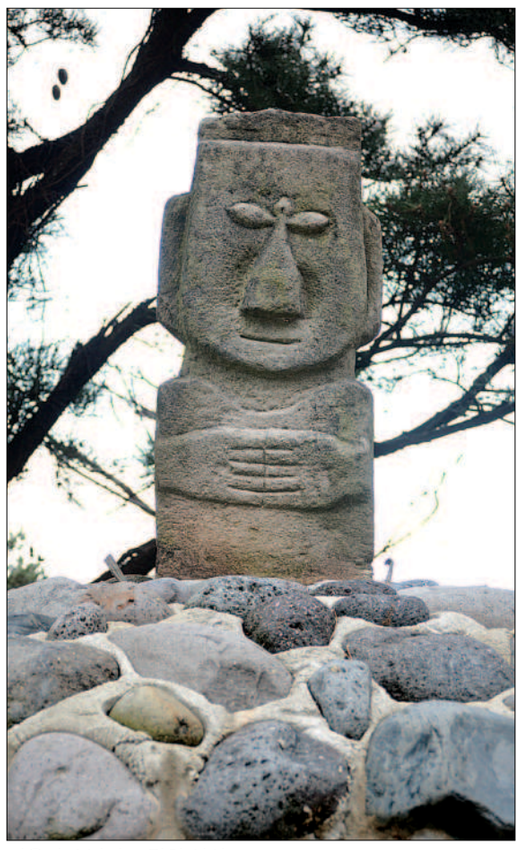
4·3 사건 70주년 제주불교 흔적 바로 세우기

〈5〉 애월읍 광령리 수덕암

산신령 스님 주석처, 초토화작전에 희생



1951년 사계리에 다시 창건된 수덕암은 이후 영산암으로 이름을 바꿨다. 사진은 현재 영산암 모습.



마용기 스님이 조각한 석상.

이병철 제주불교 기자

한라산 기슭을 관통하는 제1산록도로 인근의 광령 소재 수덕암(修德庵)은 1948년 4·3이 발발하며 1949년 2월 관음사가 토벌대에 의해 전소되던 시기에 함께 불태워졌다고 한다.

수덕암을 창건한 마용기 스님은 후손들 2대가 부처님의 법을 잇고 있지만 당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마용기 스님은 '법사' 혹은 '산신령' 등으로 불리는 등 제주도민들에게는 신화같은 존재다. 아마도 풍수에 능통했을 뿐 아니라 키가 육척이며,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였다는 이미지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용기 스님의 아버지 마희문은 헌종 무신년(1848)에 전라도 강진 비자동 집에서 태어나 의술과 점술, 주력 등에 능통했던 인물로 전해진다. 무자년(1988) 봄에 정의현감에 임명돼 제주도로 들어온 마희문은 1904년에 사망했다. 이 자료는 한라산 민대가리 동산에 봉안된 마희문의 묘비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 비석은 1944년 아들인 마용기 스님이 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대가리 동산은 한라산 어리목코스로 등산을 하다가 만세동산을 지나 윗세오름 가기 직전 북쪽으로 보이는 오름으로 제주에서 손가락에 꼽는 명당 묘 자리다. 이는 산신의 기운을 받고자 했던 마용기 스님의 의지로 엿보인다. 의술과 점술, 주력 등을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마용기 스님은 이 같은 능력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산신령' 같은 존재였던 것으로 미뤄 짐작된다.



마용기 스님

마용기 스님 창건한 수덕암 4.3당시 법당 전소

텃밭 있던 부인 토벌대에 총살… 스님 화 면해

훗날 수덕암 명맥 이어가고자 사계리에 재창건

스님의 며느리에 따르면 "아버님은 영산암과 수덕밭(수덕암)은 물론 육지에도 자주 오가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의 옷에는 없는 게 없었어요. 쌀은 물론 솥단지, 숟가락, 바늘과 실까지 갖고 다니셨다"고 증언했다.

또 며느리는 "밥을 한 번 지으시면 많이 했는데 밥의 양이 적으면 아예 숟가락을 뜨지 않으셨죠. 그렇게 드시면 3일 동안은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하셨다"고 설명하며 "특히 산신기도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면서 "산이 병을 내고, 병을 보듬는데 산은 뭇 중생의 모체"라고 산신기도를 강조했다.

마용기 스님은 1912년 제주시 회천동 화천사 전신인 '만덕사(萬德寺)'를 창건한다. 화천사 창건 당시의 상황은 1973년 봄 화천사 주지 김운공 스님이 세운 '화천사 창건기'에 잘 드러나 있다.

"서기 1912년 임자년 봄에 마용기가 사찰을 창건하여 김보관·송재술·현갑생 스님 등이 여러 해 동안 온 힘을 다하였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였다. 오고가는 사람들마다 안타까워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중략)"

화천사 창건기에서 보듯 마용기 스님이 만덕사를 창건한 후 후임 스님에게 사찰을 이양하고 한라산 기슭을 관통하는 제1산록도로 인근의 광령에 수덕암(修德庵)을 창건한 것으로 보인다. 마용기 스님은 화천사에서 떠나 왜, 머나먼 한라산 기슭에 와서 수덕암을 창건했을까. 앞에서도 밝혔듯이 마용기 스님은 잃어버린 소와 말을 찾아주는 능력이 뛰어났던 모양이다. 마용기 스님의 아들인 故 마성공 스님의 증언에 따르면 제주시 광령리 산 173-1번지에 수덕암을 창건, 30평가량의 초가 법당을 짓고 15평의 요사채 등을 갖췄다고 한다.

하지만 1948년 4·3이 발발하며 토벌대에 의해 불태워졌다고 한다. 그 당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텃밭을 가꾸던 마용기 스님의 부인은 토벌대에 의해 총살당하는 비운을 맞는다.

마용기 스님은 소개령이 내려지자 한라산 아흔아홉골의 천왕사와 영실의 존자암, 법정사 등을 고려하다가 지금의 안덕면 산방산으로 내려왔던 것으로 보인다. 마용기 스님은 수덕암의 명맥을 잇고자 1951년 안덕면 사계리 산 15-2번지에 수덕암을 창건하고 이후에 사명을 영산암으로 개명한다.

한금순 박사가 바라본 제주 4·3

수덕암

가장 악랄했던 초토화작전 중산간 마을과 수덕암 불타

수덕암은 제주4.3사건으로 잃어버린 사찰이다. 애월읍 광령리 산 173-1번지에 있었다. 지금의 한밝저수지 서쪽 산록서로에 있다. 인근에 마을이 형성되지 않았던 곳이다. 마용기 스님이 창건하였다. 제주4.3 당시 수덕사는 30평 가량의 초가로 지은 법당과 15평의 객실 등이 있었다. 불상은 3자 크기의 석가모니불을 모셨으며, 각단 탱화도 모두 갖추고 있었다. 법당은 타버렸고 객실이 타다 남아있었으나 그 후 마용기 스님이 돌아가실 때 다시 불타버렸다. 지금은 폐사인 채로 다시 복원되지 않았다.

수덕암이 토벌대에 의해 불질러졌다. 마용기 스님은 피신해 있었고, 부인 김 씨가 토벌대에 총살당하였다. 절을 지킨다고 소개하지 않고 있다가 희생되었다. 불상은 피신시켜 두었다고 하나 지금은 없다.

수덕암이 소각된 것은 초토화작전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가가 드문 곳에 있던 수덕사의 위치로 보면 소개령에 의해 소개할 처지에 놓여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가가 없는 위치이므로 소개령이 전달되었을지도 확신할 수 없는 지경에 있다. 김 씨가 절을 지키다가 희생되었고 절을 불지르는 등을 보면 초토화작전 시기에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초토화작전 시기 토벌대는 사람이 보이기만 해도 무차별 공격을 가하였다고 한다.

초토화작전은 이승만 정부가 제주4.3사건을 조기 진압하기 위해 전개한 강경 진압 작전이었다. 소개령을 내리고 중산간 마을을 불태웠고 주민들을 해안마을로 내려보냈다. 주민을 해변 마을에 모아놓고 주민감시 체제를 구축해 놓아 무장대의 근거지를 없앤다는 취지였다.

당시 이범석 국무총리의 국회 보고에 따르면, 제주도민은 '폭도의 정신적 가담자'라는 전제 아래 연대 책임식 주민감시를 위해 해변마을에 모아놓고 마을 밖으로는 성을 쌓아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소개령이 전달되지 않은 마을도 있었고, 전달되지 않았어도 토벌대는 무차별 방화와 총격을 가하였다.

초토화작전은 제주4.3사건 전개 과정 중 가장 비극적이고 많은 피해를 남겼다. 1948년 11월부터의 초토화작전으로 제주도의 중산간 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지고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한금순(제주대 외래교수)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 집
어학단기반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9월 28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 http://www.njutcm.co.kr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僧職 갈등'

〈승려 관직〉



박동춘의

초의스님 前上書

⑰ 우활과 성활의 편지



안국암 종정 우활이 초의에게 보낸 서간(사진 왼쪽)과 표충사 총섭을 지낸 성활이 보낸 공문서(사진 오른쪽). 모두 표충사 주지 직을 놓고 갈등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닭벼슬보다 못한 중벼슬'을 놓고 벌이는 갈등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했었던 것 같다.

시대마다 다르지만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1840년경 대흥사에서는 총섭첩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듯하다. 1840년 3월 17일에 안국암 종정 우활(宇闊, 생몰연대 미상)이 초의에게 보낸 편지와 이 해 7월에 도내 승통 성활(性闊)이 초의에게 보낸 공문서는 바로 이 분쟁이 무엇 때문에 야기된 것이며 그 결말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라 하겠다.

초의와 우활의 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 우활의 편지는 그 실마리를 풀어줄 단서일 터다. 우활은 어떤 승려일까. 그의 생애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대략 1840년경 안국암에 거처했던 승려로, 직위는 종정이었다. 당시 초의도 대둔사 · 표충사의 원장(院長)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우활의 편지 겉봉에 '대둔사 원장 사주 예좌하 입납(大芚寺院長師主 猊座下入納) 안국암 종정 우활 근후장(安國庵宗正 宇闊 謹候狀)'이라고 쓴 것에서 드러난다.

편지의 크기는 대략 가로, 세로 26.6×45.2cm이다. 단아한 서체는 그의 품성을 짐작하게 한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다.

꽃향기가 두루 향기롭습니다. 서울에서 정사를 겸한 이래로 문후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뜻밖에도 복되고 길하시며 무(茂) 스님이 온 이래로 더욱 좋다고 하시다니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이 실로 깊을 따름입니다. 저(우활)는 관문과 길 사이에 겨우 후미지고 막힌 곳에 머물고 있는데 무엇을 번거롭게 말씀드리겠습니까. 벼슬길에 나감은 위태로움이 많아 근심의 파고가 더욱 높아서 산에 사는 사람에게 시비가 전파되지만 입으로 기약했기에 매번 마음이 불편합니다. 생각지도 않게 예조(禮曹)관청에 나가보니 즉, 본사 원장 스님에 보고한 것입니다만 지난번 예조에 보고한 후, 간사(幹事) 스님이 망기(望記)에 개인적으로 고쳐 첩을 내기 때문에 간사한 상황은 잘못된 보고이며 망기(望記)도 거짓된 것이라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원안대로 고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받은 첩문을 바로 보내겠다고 하니 즉, 세상에 어찌 이런 놀랠만한 일이 있습니까. 일이 결과적으로 이와 같다면 그 책임자를 바꾸어 하나라도 논란될 단서를 없애야합니다. 사람을 낭패케 하는 것이 하나일지라도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나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존사께서 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상황을)들어야 합니다. 본사 간사(幹事) 스님이 간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곧 이곳으로 인장함(印章函)을 환수해 보내시기를 간절하게 바랄 뿐입니다. 나머지는 이만 줄입니다. 엎드려 존사께서 살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가 답장을 올립니다. 1840년 3월 17일 소승 우활(小僧 宇闊)이 삼가 올립니다.

月許花香轉馥 未審伊來攝京莅政氣體候 乃福乃祥 由來茂衲增吉 慕仰良深耳 宇闊 間關道路僅棲僻隔 幸何煩喻 就控祿路多險 患波層出 使巖穴餘生轉播是非 口期每用耿耿 不意卽接禮曹關內 則所謂本祠院長僧報招內 向時望報之後 幹使僧就望記中 私改換以出帖 奸狀僞望 不可仍置 原望修呈次 此處所受帖文 卽地上送云云 則世豈有如此駭然之事乎 事果如是 則其於替換任席 一無論端 使人狼狽 一至於此 誑我之心 尊聽查其事實 其實本祠幹使 卽地發送此處 印函還收 負去企望耳 餘在去口 不備 伏惟尊照 謹候狀 庚子 三月十七日 小僧 宇闊 謹再拜

위 내용에서 우활이 예조(禮曹)에 나갔더니 원장인 초의가 보낸 보고서의 내용이 지난번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가 예조에서 파악한 내용은 "지난번 예조에 보고한 후, 간사(幹事) 스님이 망기(望記)에 개인적으로 고쳐 첩을 내기 때문에 간사한 상황은 잘못된 보고이며 망기(望記)도 거짓된 것이라 조치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망기(望記)는 바로 삼망(三望)을 적은 단자, 즉 조선시대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해 3배 수로 추천했던 제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 쟁점의 핵심은 바로 간사가 자기 임의대로 망기를 고쳐 예조에 올렸던 내용을 파악한 후, 초의에게 이것을 바로잡으라는 요구였던 셈이다.

당시 우활은 안국암에 머물렀다. 아마도 안국암은 한양에 위치한 암자로, 종정이란 승직(僧職)을 수행하는 이가 머문 암자가 아닐까 여겨진다. 조선이 건국된 후 폐지되었던 승려의 관직은 조선 후기에 공식적으로 복원된 것은 아니지만 암암리에 승직을 수행했다고 전한다. 그러므로 우활의 편지는 표충사 원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초의 측 간사가 임의로 망기를 수정한 것을 발단으로 분쟁이 일어난 셈이다. 따라서 우활의 편지는 초의에게 그 경위를 조사, 처리해 달라는 것이 주된 골자였음을 드러낸다.

다음에 소개할 문서는 일종의 공문서류이다. 도선암(道詵菴)의 성활(性濶)이 1840년 7월 17일 초의에게 보낸 문서이다. 당시 성활은 도내승통(道內僧統)이었기 때문에 초의와 우활 간에 쟁점이 된 총섭첩과 관련된 사안을 바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우활이 주장한 내용의 잘못과 초의가 처리한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여 바로 잡으라는 공문서를 보낸 셈이다.

조선 후기에 "승통은 한 도(道)를 규정하고 원장은 팔도를 총섭, 규정하는 것인데"라고 하는 사실에서 승통과 원장의 승직 처리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이 공문서에는 "이거늘(是去乙), 이고(是遣), ~할 일(向事)" 등 이두 표기가 눈에 띄는데, 공문에 흔히 보이는 용례라 하겠다. 초의에게 보낸 공문서를 살펴보면 크기는 32.6×92.4cm이다.

표충사 주지 임명 문제로 다툼
"예조 보고, 지난 내용과 달라"
우활, 서간으로 초의 문제 제기

성활 편지엔 우활과는 입장 차
"처리말고 이관해 달라" 요구
예나 지금이나 권력 놓고 갈등

도선암 본원에 머무는 소승 성활 삼가 올립니다.

초의사주대법좌하 입납

표충사수호겸팔도선교양종승풍규정도원장(表忠祠守護兼八道禪敎兩宗僧風糾正都院長)께서 상고한 일입니다. 우활(宇闊)이 총섭첩문(摠攝帖文)을 잃어버린 것은 모두 줄 것을 바라고 간사함을 일으켜 생긴 잘못인데 이미 상부 관청(上司)에서 처리하셨다면 다시 여러 말을 할 것이 없거늘 구 원장이 새로 총섭을 맡으면서 일일이 부당한 상황을 상정하였으니 모든 일이 슬프고 놀랄 일입니다. 자신이 규정(糾正)에 있으면서 처음에 상부를 범한 잘못을 잡지 못하고 안이하게 무고를 받아들여서 영문(營門)에 전보한 것이 무슨 사사로운 뜻이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이 첫 번째 잘못입니다. 승통은 한 도를 규정하고 원장은 팔도를 총섭, 규정하는 것인데 스스로 일일이 논하여 보고하였으니 이것이 그 두 번째 잘못입니다. 영문에 제기해 보낸 것은 뜻에 맡길 뿐이라고 하신다면 그 간사한 승려로 하여금 문서를 이관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일일이 행관(行關, 비슷한 관서 이하로 보내는 공문) 한 것은 무엇인지요. 세 번째 잘못을 범했는데도 승도에게 내려 보낸다면 어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理)와 사(事)에는 분별이 있고 상하에는 나누어짐이 있습니다. 즉 팔도에 다섯 가지 규정을 공론함이 있다면 이로써 다 알 수 있으니 마땅하게 지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항에 합치되도록 이관(移關)하시길 청합니다. 살펴보고 시행하길 바랍니다. 관문이 잘 도착하길 바랍니다. 도내 승통 도광 20년(1840) 7월 17일. 관 원장 도장 날인

道詵菴 本院留 小僧 性濶 謹上候書 謹封

帥衣 師主 大法座下 入納

表忠祠守護兼八道禪敎兩宗僧風糾正都院長爲相考事 宇闊失其摠攝帖文 都由授望作奸之過失而旣爲上司之所處 則更無餘言是去乙 舊院長新摠攝 擧名呈狀於不當呈處 萬萬痛駭是遣 身在糾正 而初不執犯上之過是遣 恬受誣訴 轉報營門 有何私情乎 此其一失也 僧統一道之糾正 院長摠攝八道之糾正 恣意擧名論報 此其二失也 營題起送之意知委云爾 則使其幹事僧 文移知委 可也 擧名行關 何也 犯者三失 而以下僧徒 何以糾正乎 理事有別 上下有分 則將有八道五糾正之公論 以此知悉 宜當向事 合行移關 請

照驗施行 須至關者

右 關

道內僧統

道光二十年 七月 十七日

關 院長 (押)

성활이 보낸 공문서에는 초의와 우활 사이에서 일어났던 분쟁의 쟁점이 드러난다. 그가 파악한 잘못은 첫째는 "우활(宇闊)이 총섭첩문(摠攝帖文)을 잃어버린 것은 모두 줄 것을 바라고 간사함을 일으켜 생긴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초의는 "이미 상부 관청(上司)에서 처리하셨다면 다시 여러 말을 할 것이 없거늘 구 원장이 새로 총섭을 맡으면서 일일이 부당한 상황을 상정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불상사였다는 것이다. 그가 말한 구 원장은 초의를 말한다.

두 번째에는 "자신이 규정(糾正)에 있으면서 처음에 상부를 범한 잘못을 잡지 못하고 안이하게 무고를 받아들여서 영문(營門)에 전보한 것이 무슨 사사로운 뜻이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이 첫 번째 잘못입니다. 승통은 한 도(道)를 규정하고 원장은 팔도(八道)를 총섭, 규정하는 것인데 스스로 일일이 논하여 보고하였"다는 점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잘못은 "영문에 제기해 보낸 것은 뜻에 맡길 뿐이라고 하신다면 그 간사한 승려로 하여금 문서를 이관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일일이 행관(行關, 비슷한 관서 이하로 보내는 공문)한 것은 무엇인지요"라고 반문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안은 초의가 처리하려 하지 말고 이관해 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활의 편지와 성활이 초의에게 보낸 공문서는 대둔사, 표충사 원장 임명에 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내고 있으며 표충사 원장 임명과 관련하여 상당한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해 보이는 자료이지만 1840년경 대둔사에서 일어났던 분쟁 요인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성활(性濶)은 조선 후기의 승려로, 쌍월(雙月)이라는 호를 썼다. 표충사와 수충사의 총섭(摠攝)을 지냈다. 학식과 지행(知行)이 깊었고 두타행(頭陀行)을 즐겼으며, 1852년(철종 3)에 〈유마경(維摩經)〉 3권과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 1권, 〈아미타경〉 1권을 판각하였다. 제자로는 철경(鐵鏡) 등이 있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한국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한국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등록증
- 주지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300번지 (오정산 백봉사)
■ 종무소 : 전국대표번호 1577-1016 / 054)571-6973 / 054)571-1030 / 054)571-7497 / 팩스 054)571-7498
■ 한국불교방송 : 대구시 달서구 새동네로107 예림빌딩 606호

대한민국 불교종단 역사

대한민국 불교종단 역사는 신라시대 5교9산의 선문(禪門)전통에 따라 비로서 종문(宗門)이 개창(開創)되고 고려시대에 이르러 천태, 조계종을 필두로 종파(宗派)가 설립되어 제종파(諸宗派)가 제각기 부종수교(扶宗樹敎)의 일념으로 불조(佛祖) 혜명(慧命)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을 면면히 계승해 오다 조선조에는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제종을 통합하여 오다가 그후로는 조계종(曹溪宗)만의 단일종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제종파 시대가 열리고 또한 1988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불교 수 많은 종단이 창종되고 소멸되고 이제 그 실체를 파악하여 관계부처에 자료제공과 신문과 방송, 불교언론에 널리 홍포코자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종승(宗承)을 선양하니 해동대한민국에 불일(佛日)이 중휘하고 자비광명이 삼천리 강토에 비추리라. 이와같이 종지 종풍으로 일가를 성립할 수 있어 각기 종명을 세우고 이 땅에 불일중흥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한국불교 조계종 (사)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한국불교방송 ㈜한국불교방송신문사

대구시 달서구 새동네로 107 예림빌딩 606호 / 전화 1670-2012

시코쿠 13번 사찰엔 한국인 주지 스님이…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⑤ 토쿠시마 5개 순례 사찰

젠콘야도 스다치칸에서 아침을 먹고 길을 나선다. 13번 다이니치지(大日寺)로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강을 낀 차로를 따라 가느냐, 고개를 넘어가는 옛 순례길을 따르느냐.

쇼산지를 넘느라 산길은 지긋지긋하기에 차로를 따라 편하게 걸을까 하다가 지도를 보니 산을 넘어가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다. 스다치칸 할머니께서도 고개가 험하지 않으니 그냥 고갯길을 넘을 것을 추천하신다. 그래, 어제 산 두 개를 넘었는데 오늘 고개 하나 못 넘으랴 하고 고갯길로 길을 튼다.

어제 산을 타면서 산길에 익숙해서일까. 삼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아침햇살과 아직 선선한 기운이 남아있는 길을 걸어가노라니 마지막 고개 '타마가도게(玉ヶ峠)'로 올라가는 길에 들어섰다. 길 옆의 냇물에 수건을 적실 겸, 손으로 참방거리려니 웬 게가 놀라서 도망간다. 이 깊은 산골에 게라니? 하도 신기해서 잠시 보고 있으려니 뒤에서 어제 같이 묵은 순례자가 와서 힐끗 보고는 "저거 맛없어요"하곤 말을 붙인다. 이 녀석을 잡으려는 것으로 생각했나보다.

"저 게는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먹을 수는 있는데, 살도 없고 흙내가 심해요. 대신에 해감을 좀 해서 육수를 내는 용으론 그만이죠."

'어른 손바닥 1/4만한 걸 잡아다 육수를 낼 것까지야' 라고 생각을 하며 다시 고갯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래된 순례길이라 그런지 길 중간 중간 작은 석불들이 모셔져 있고, 사람이 쌓은 축대도 간간히 있다. 마지막 급경사를 낑낑대고 올라가니 포장도로와 만나고 '타마가도게'라고 쓰인 안내판이 나온다. 고갯길을 다 넘은 것이다.

허리를 펴고 숨을 돌리려니 뒤에서 청아한 종소리가 들린다. 인적 없는 산길에 울리는 종소리에 놀라 고갯길을 굽어보니 아까 그 순례자가 올라오는 게 보인다. 산길에 뱀이나 짐승을 쫓으려고 허리춤에 달아둔 요령이 울리는 소리였던 것이다. 문득 길가에 보았던 싯구가 생각났다.

'순례자의 방울소리, 이 하늘을 따라가는 참회의 길'

시코쿠 순례란 스스로가 사자(死者)가 되어 걷는 길. 새로운 탄생을 위한 참회의 길이다. 산 속에 울리는 맑은 종소리가 그야말로 시가 되는 풍경이었다.

구불구불 길을 다 내려오니 강 옆으로 난 작은 마을에 들어선다. 이제부턴 편안한 평지길이다. 강을 따라 한참을 걷는다. 마을에서 5㎞가량 걷고 강을 건너는 다리를 넘어서니 '토쿠시마시(德島市)'라는 경계판이 나온다. 도쿠시마역에서 순례를 시작한지 닷새 만에 다시 토쿠시마시로 돌아온 것이다. 곧 13번 사찰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로 힘차게 걸음을 서두른다.

강을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이어졌을까. 아무리 걸어도 사찰이 보이지 않는다. 저 멀리 사찰의 지붕이라 생각한 곳은 다른 신사거나, 규모가 큰 농가였다. 지도로 보기엔 금방인데 아직도 멀었나 보다. 휴게소 앞의 표석에는 13번까지 3km남짓이라고 일러준다. 넉넉잡아 1시간은 더 걸어야 한다.

다시 배낭을 짊어지고 길을 나선다. 오늘은 다이니치지에서 묵기로 했다. 주지 스님이신 묘선 스님과 인연이 깊기 때문이다. 나와 묘선 스님과의 인연도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묘선 스님이 시코쿠 영장 13번의 주지가 되신 것도 참 기이한 인연이다.

묘선 스님은 무형문화재 제27호 이매방류 승무의 전수조교로, 원래는 공연을 위해 1995년에 토쿠시마를 방문하신 것이 인연의 시작이다. 당시 13번의 주지였던 오쿠리 코에이 스님이 이 공연을 보고 그 춤사위에 반해 2년간 열렬한 구애 끝에 결혼에 성공, 이듬해엔 아들도 태어났다. 코에이 스님의 적극적인 후원 덕에 묘선 스님은 아무 걱정 없이 한국무용을 일본과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 미국 명문대 UCLA의 객원교수로도 출강했다.

순례 13번째 사찰인 '大日寺'
한국인 묘선 스님이 주지 맡아
승무 조교였으나 日스님과 결혼
남편 입적 후 출가해 주지까지

13~17번까지는 하루 순례 가능
'5개소 참배' 라는 풍습도 있어

코에이 스님은 한국의 무형문화재를 전수한 사람으로서 귀화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몇 차례 일본에서 출가하여 승적을 취득하라고 권하셨다고 한다. 묘선 스님은 그때 그 권유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2007년 돌연 뇌경색으로 코에이 스님이 입적했고, 갑자기 홀로 된 묘선 스님에게 온갖 공격이 들어왔다. 스님은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밤에 도망갈까 생각했지"라고 당시를 회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아들이 묘선 스님을 이곳에 붙들어 잡았다. 신도회가 다 모인 총회의석에서 겨우 열 살배기였던 아들이 "내가 출가해서 절을 이을 나이가 될 때까지, 어머니가 주지로서 절을 맡아주시길 바란다. 신도회 분들께서 많이 도와달라"라고 당당히 선언한 것.

이 이야기는 묘선 스님이 늘 자랑스러워 하는 이야기다. 필자도 여러 차례 들었지만 참 대단한 일이라고 감탄한다.



시코쿠 순례 13번 사찰인 '다이니치지(大日寺)' 주지는 한국인이다. 법명은 묘선 스님이며, 원래는 이매방류 승무 조교였다. 다이니치지 주지였던 코에이 스님과 결혼했지만 2007년 입적했다. 이후 출가해 1년 만에 주지 자격 시험을 통과했다. 사진은 필자〈사진 왼쪽〉와 묘선 스님〈사진 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순례의 Tip



시코쿠 순례의 이정표.

– 12번 절 하산길에서 13번 절까지 마땅한 식당이 없다. 타마가도게 고개를 내려간 마을의 슈퍼나 가게에서 먹거리를 마련하도록 하자. 계속해서 걷다보면 머리에 열이 올라 쉽게 지친다. 가능하면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식혀가며 걷는 것이 좋다. 간혹 순례길 이정표나 표석에 쓰여진 거리나 방향이 틀린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도로안내판을 보거나 지역주민에게 길을 묻는 것이 좋다. 가끔 지름길을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다.

스님은 남편이셨던 코에이 스님의 장례를 마치고, 교토의 다이토쿠지(大德寺)로 출가했다. 다이토쿠지가 코에이 스님의 출가본산인 인연이다. 스님은 밤잠을 아껴가며 정진에 정진을 거듭해 단 8개월 만에 모든 기초교육과정을 끝내버리고, 이어서는 1년 만에 주지 자격 시험을 통과했다. 일본에서도 보기 드문 초고속 통과였다.

본산과 종단에서는 갑론을박이 일었다. 한국국적에 한국이름을 가진 여성에게 시코쿠 순례지라는 중요한 절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결국 다이니치지의 주지로 묘선 스님을 임명했다. 한국무형문화재 전수조교라는 특수한 신분을 인정해 이례적으로 속명이었던 김묘선을 그대로 법명으로 인정, 삭발도 면제 되었다.

그때부터 스님은 13번 절의 주지와 승무 전수조교라는 두 생활을 빈틈없이 해나갔다. 일본에서도 묘선 스님은 춤추는 스님으로 유명하다. 그 춤도 어디 보통 춤인가? 바로 승무 아닌가. 스님의 춤 스승이셨던 故 이매방 선생은 "중이 돼서 진짜 승무를 추니 복 받았다"고 말하셨단다.

다이니치지에 도착하자 묘선 스님께서 직접 나와 맞이해 주신다. 오늘 온다는 연락에 일부러 기다리고 계셨단다. '난 대체 무슨 복으로 시코쿠 순례 사찰의 주지 스님에게 환영을 받나' 는 생각에 부끄럽기만 하다.

배낭을 방에 풀어두고 다시 길을 나선다. 아직 해가 중천이니 짐은 풀어두고 이어지는 절들을 순례하기 위해서다. 12번에서 13번까지의 거리가 좀 길다 뿐이지 13번부터 17번 절까지는 서둘러 가면 그날 안에 다 순례할 수 있다. 실제 도쿠시마에는 '5개소 참배(五ヶ所まいり)'라고 하여, 13번부터 17번까지 5개소를 하루 안에 순례하는 풍습이 전해진다.

5개소 참배에 들어있는 절들은 모두 각각 특색을 가지고 있다. 오늘 묵는 13번은 원래 신사와 함께 있던 사찰로, 중세에는 절이 아니라 신사가 순례처였다. 그러던 것이 메이지 시대에 신불분리령(神佛分離令)으로 신사에 모시던 11면 관음상을 절로 이운해 본존으로 모시게 된 것이 지금에 이른다.

14번 죠라쿠지(常樂寺)는 절 전체가 마치 파도치는 것 같은 바위 위에 자리 잡고 있어 인상 깊다. 또 특히 '떡갈나무 대사(あらぎ大師)'라는 코보대사상이 유명하다. 절에는 옛날 코보대사께서 떡갈나무 잎을 달여 당뇨로 고생하던 노인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때의 떡갈나무가 지금의 대사당 앞에 서있는 나무라는 것이다.

15번 사찰은 절 전체가 사적(史蹟)이다. 바로 고쿠분지(國分寺)라는 절이다. 옛날 나라시대(奈良時代)의 왕이었던 쇼무(聖武) 천황의 발원으로 일본 전국 66개의 쿠니(國)에 세운 관사(官寺)가 바로 고쿠분지다. 실제 경내에 당시 목탑이 서있던 터와, 여러 건물유적들이 남아 있어 당시의 사세를 짐작할 수 있다.

16번 칸온지(觀音寺)는 백의에 광명진언을 찍어주기로 유명하다. 납경소에 부탁하고 별도의 보시금을 내면 백의의 옷깃에 광명진언을 찍어준다. 절의 설명으로는 코보대사가 친필로 남긴 광명진언을 판목에 새긴 것으로 절의 보물이라 한다. 시코쿠를 순례하다 보면 옷깃에 광명진언이 찍힌 백의가 종종 보이는데 모두 이곳에서 찍은 것이다.

17번 이도지(井戶寺)는 7분의 약사여래를 본존으로 모시고 있다. 시코쿠에 88개소 중에서는 유일하고, 일본에서도 매우 드문 본존이다. 또 절 이름에 맞게 경내에 코보대사가 팠다고 전하는 우물이 있는데 지금도 수량이 풍부해서 물을 떠가는 순례자들이 많다.

5개소를 모두 참배하자 어느덧 시간이 오후 5시를 지나있었다. 버스를 타고 돌아갈까 했더니 묘선 스님이 차를 끌고 데리러 오셨다. 그날 저녁 공양을 받을 때 내 상엔 슬그머니 스님이 담그신 배추김치가 올라와 있었다. 김치 한 쪽에 한국인의 정을 온 몸으로 느낀다.

방에 돌아와 지도를 펴본다. 오늘 17번 절까지 모두 순례했으니 내일은 곧장 18번 절로 향한다. 목표하기론 19번을 지나서 있는 휴게소를 가늠해 본다. 순례자가 잘 수 있게 이부자리까지 마련되어 있는 곳이다. 대략 계산해보니 오후 6시나 되어야 도착할 예정이다. 내일 아침 예불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자유기고가〉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후원계좌 : 국민은행 (611225-92-12142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 (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작은 소비에 방심하면 종잣돈 없다



윤성식의
불교 속 부자되는 법

⑰ 자리이타의 불교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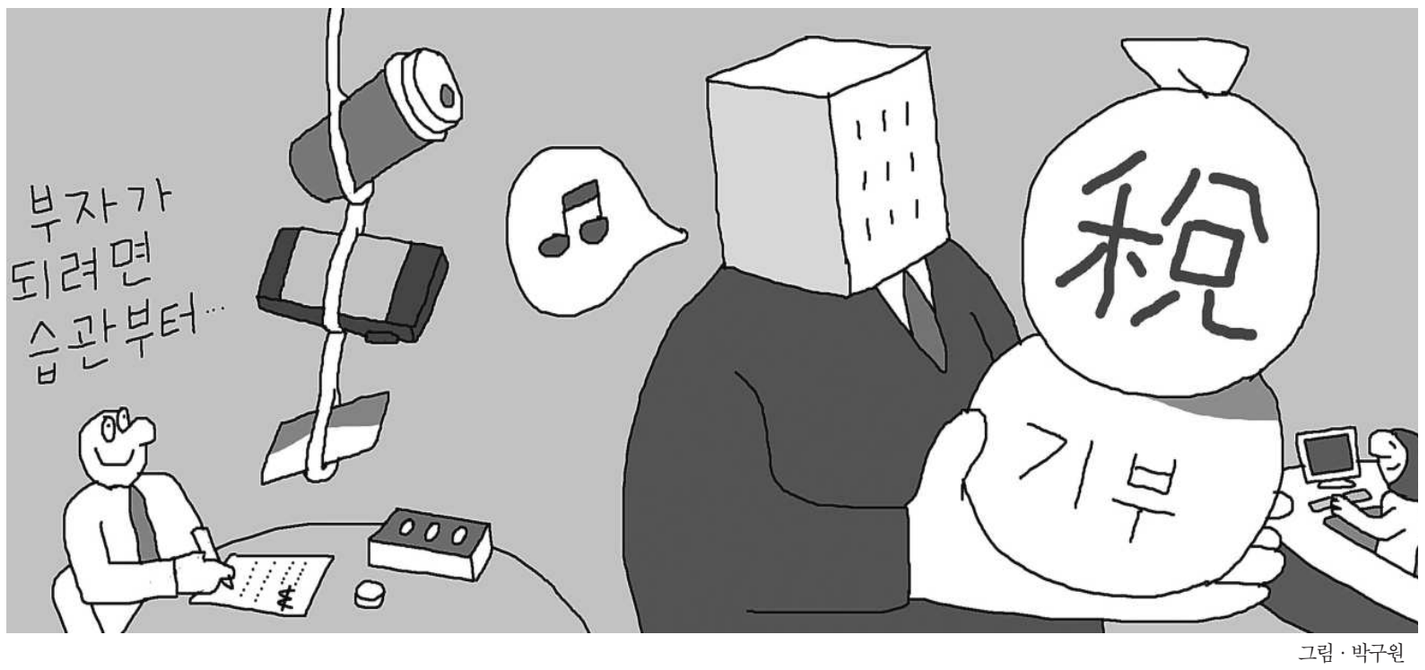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돈이 돈을 버는 시대다. 돈이 돈을 벌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 그들만의 리그에 진입하는 게 필요하다. 눈 빤히 뜨고 돈 버는 길을 놓치는 게 보통 사람이다. 돈이 없으면 돈 벌 수 있는 길을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미국의 CNN을 소유하고 있는 테드 터너는 처음 목돈 마련이 어려웠고 그 다음은 사업이 너무 쉬웠다고 고백했다. 내 주변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업가를 여럿 봤다.

가난한 사람이 목돈 마련하기는 정말 어렵다. 가난한 사람이 목돈 마련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난하면 담보도 없기에 아주 높은 이자를 내고도 소액밖에 빌리지 못한다. 그렇게 마련한 돈을 목돈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누가 돈을 불쑥 증여한다면 몰라도 저축밖에 다른 길이 없다. 아무리 먹고 살기조차 힘들다고 해도 저축이 아니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커피가 아프리카에서 유럽에 처음 들어왔을 때 유럽인은 열광했다. 커피가 이교도의 음료수였다는 사실 때문에 악마의 음료수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에게 브레이크가 걸렸다. 교황이 커피를 마셔보고 '악마가 마시기에는 너무 맛있다' 라고 말하면서 드디어 커피는 공식으로 허용된 음료수가 됐다.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바하는 수많은 칸타타를 남겼는데 그 중에는 '커피칸타타' 라는 유명한 곡도 있다. '커피칸타타' 에는 딸이 아버지에게 커피가 너무 좋아 시집을 안 가도 좋다고 말하는 구절이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커피에 매료된 것 같다. 커피 전문가인 바리스타까지 등장할 정도다. 2011년 20살 이상 한국인은 한 명당 100잔이 넘는 원두커피를 마셨다. 커피 가격을 생각하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우리가 커피 전문점에 가는 이유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서일 수도 있다. 점심 먹고 남는 시간에 쉴 공간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 젊은이는 커피 전문점에서 노트북 켜 놓고 공부하는 것이 새로운 풍속도다. 어쩌면 도서관보다 색다른 분위기에 공부가 더 잘 될 수도 있다. 젊은이가 많이 가는 스타벅스나 카페베네는 커피를 마시는 장소라기보다는 공부하고 대화하는 장소다. 비싼 커피값은 가난한 봉급쟁이와 학생에겐 큰 금액이지만 음료수를 마시는 장소가 아니라 사교와 공부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비싼 것은 아니다.

나는 커피값이 비싸다고 생각한다.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는 사람이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도 그들에게 '가능하면 다른 대안을 찾으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좋은 연구실을 가진 덕분에 가끔 점심 식사를 한 후에 내 연구실에 가서 차를 대접하곤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커피 전문점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서 자주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 커피를 커피집에서 마시지 않고 사무실에서 마시면 한결 돈이 절약될 거다. 커피값이 얼마라고 그걸 절약하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매일 5천원이라면 일주일에 2만5천원 한 달이면 10만원이다. 목돈을 마련하기엔 부족한 금액 같지만 이런 식의 지출이 늘어나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한 달에 몇 십만원은 훌쩍 넘어간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다. 목돈의 구성요소는 생각보다 작은 지출로 이루어진다.

부자에게 소욕지족 권하는 사회

어떤 사람이 스님의 거처를 방문했는데 방에 그야말로 물건과 가구가 하나도 없더란다. 텅 비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생활할까 궁금했었다고 한다. 우리는 스님이 호화로운 물건과 가구로 가득찬 방에 살면 존경하지 않는다. 물건과 가구의 소유 여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은 결코 불교적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님에게 금욕적일만큼의 절제를 기대한다. 불교는 소욕지족의 종교이다. 가난한 사람이 물건과 가구가 없는 방에서 살고 있다고 우리는 그를 존경하지 않지만 스님이 그렇게 산다면 존경한다. 만약 부자가 그렇게 산다면 어떨까? 당연히 존경할 것이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불교신자였다. 결혼도 불교식으로 했고 그가 세상을 떴을 때 미국의 ABC 방송은 그가 선불교적으로 애플을 운영했다고 평가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그가 결가부좌를 하고 명상하고 있는 사진을 볼 수 있다. 스티브 잡스가 살았던 동네는 부자 동네였지만 미국 기준으로 그의 집은 결코 세계적 부자의 집이 아니었다. 스티브 잡스의 집을 방문했던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는 집이 너무 작아서 놀랐다. 빌 게이츠는 스티브 잡스에게 이렇게 작은 집에서 모든 식구가 사느냐고 물었다. 스티브 잡스의 방에는 사진 하나와 가구 하나만 있다고 한다. 스티브 잡스는 검은색 터틀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유명하다. 검은색 터틀셔츠를 고집하다보니 여러 벌이 필요했다고 한다. 그가 입은 옷, 안경, 신발의 합계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다. 부자가 소박한 삶을 살면 우리는 그를 존경한다.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소욕지족하는 부자가 있을텐데 언론이 외면하여 보도되지 않았던 것일까?

불자는 아니지만 워런 버핏은 소욕지족의 기업인이다. 워런 버핏은 오직 주식투자만으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가 현명한 것에 감탄하여 그를 '오마하의 현인' 이라고 부른다. 오마하는 네브라스카주의 도시인데 시골 중의 시골이다. 나는 한 번 그곳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시골이어서 지금 기억나는 것은 옥수수밭뿐이다. 주식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거의 모두 주식거래소가 있는 뉴욕 월스트리트 근처에 사는데 그는 네브라스카 시골 동네에서 주식투자를 했다.

근면절제가 바로 자리이타
희생이 중생구제 아냐
소임 최선 다할 때 이타행 실현

워런 버핏은 맞춤 양복이 아니라 기성복을 사 입는데 최근에 중국 기업의 기성복을 사 입어서 그 회사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고 한다. 워런 버핏은 양복이 헤지면 기워 입는데 양복 기워 입는 버릇이 부인이 고치지 못한 워런 버핏의 버릇의 하나라고 한다. 워런 버핏은 햄버거와 콜라를 즐겨 마시고 동네 식당에 자주 들려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그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는 링컨 타운카인데 좋은 자동차이기는 하지만 부자들이 소유한 최고급 승용차와는 거리가 멀다. 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롯데 호텔에 묵었다. 손님 접대 때문인지 그는 방과 거실이 있는 스위트룸을 예약했다. 롯데호텔의 스위트룸은 5등급이 있었는데 그는 그 중 최하등급을 예약했다. 워런 버핏이 롯데호텔에 숙박한다는 사실은 롯데호텔에게는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는 사건이었지만 최하등급의 스위트룸을 예약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고민에 빠진 모양이다. 결국 최고급 스위트룸을 최하등급인 5등급 요금으로 제공했다.

워런 버핏의 집은 스티브 잡스의 집에 비하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다. 오마하라는 곳은 부자 동네가 있을까 싶은 시골 도시인데 워런 버핏이 부자가 되기 이전에 구입한 집에서 아직까지 살고 있다. 사진을 보고서 너무나 평범한 주택의 모습에 놀랐다. 그는 거의 전재산을 자신이 만든 재단이 아닌 빌 게이츠와 부인 멜린다가 만든 재단에 출연했다. 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은 세상이 맡긴 것이라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뜻과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는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번 것은 자본주의 덕분이다"고 고백하였다. 그는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버핏세를 주장하기도 했다. 어떤 학생이 가난하다면서 자주 택시를 타기에 내가 꾸짖은 적이 있다. 만약 보통 사람이 스티브 잡스나 워런 버핏과 같은 생활을 한다면 목돈을 마련하기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도 이롭게하는 불교경제관

오늘날 모든 사람이 '돈, 돈' 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무조건 희생하라고 요구하면 절대 먹히지 않는다. 불교는 다행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교리에 기초하기 때문에 시장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삶의 지혜를 제공한다. 대승불교는 중생구제를 목표로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고 남을 위한 헌신과 봉사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자리이타라는 대승불교의 쌍방향적 정신은 현대인에게 더 말할 나위 없는 지혜로운 행동지침이다. 자리이타란 나의 이익과 남의 이익이 별개가 아니며 자기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한다는 의미이다. 자신의 깨달음에만 몰두하는 소승의 수행자가 아니라 타인의 이익도 염두에 두는 대승의 수행자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자신의 열반도 포기한다는 보살이다. 내 돈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시비야' 라는 태도는 불교의 연기사상을 모르는 무지의 증거이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이 아니라 수많은 정부의 지원, 특혜 그리고 국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자는 세금 이외에도 자발적 보시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노력 이상으로 축적된 재산을 세상에 되돌려주어야 한다. 이게 부자의 자리이타다.

오늘날 중산층이 가난한 사람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을 맡을 수는 없으며 세금을 통해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평범한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는 일 이외에 남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근면이다. 최선을 다해도 가난하다면 정부에서 복지로 생존기본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게으르게 노는 사람에게 정부가 돈을 준다면 뭐가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 모든 나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복지국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에 근면하지 못한 사람에게 복지를 주는 정책은 세금을 내는 사람의 불만을 초래한다. 부처님은 근면을 수없이 강조하고 계신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불교경전에서 말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남에게 보시하려고 궁리할 필요도 없이 내가 근면하면 정부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절약된 세금은 남을 위해 쓸 수 있으니 자리이타이다.

절제는 부자만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도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다면서 택시를 타고 다니면 결국 파산하게 되고 정부가 부채를 탕감해주니 그 피해는 타인에게 미친다. 절제야말로 자기에게도 이익이지만 남을 위해서도 이익인 자리이타이다. 불교는 소욕지족을 강조하는 종교이며 돈에 대한 집착을 고통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절제야말로 돈에 대한 집착에서 떠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에겐 근면과 절제 못지 않게 중요한 의무가 있다. 자신이 맡은 업무를 성실하고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다. 합법적이며 공정하게 자신이 맡은 임무만 수행해도 세상은 엄청 좋아진다. 기부를 하고 자원 봉사를 하기 전에 자기 의무를 다하자. 기업인은 소비자를 속이지 않고 세금을 정직하게 내며 종업원을 착취하지 않아야 한다. 종업원도 회사돈 빼먹지 않고 납품업자와 결탁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공무원도 부패에 연루되지 않고 국민을 위해 바른 정책을 펴면 된다. 교수도 성실하게 학생을 가르치고 공정하게 성적을 매겨야 한다. 우리 모두가 근면하고 절제하며 자신이 맡은 임무를 다할 때 자리이타의 기본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 이후에 기부와 자원봉사를 논하자.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정의 수호한 왕과 성자 나가세나의 만남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㉜〈밀린다팡하〉 1

〈밀린다왕문경〉 혹은 〈나선비구경〉으로 불리는 이 책은 '여시아문(如是我聞)'의 부처님 설법 경전은 아니다. 후대에 성립된 대론서(對論書)의 형식으로 경율론 삼장의 스타일을 벗어났지만 모두 부처님의 법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후대 경전에 포함시켜 유통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론은 주로 인생에 관한 혹은 철학적인 주제로 서로 의심이 나는 것을 서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여러 주제를 이렇게 토론하다보면 철학적 소양이 깊어지는 소통방식이다.

〈밀린다팡하〉는 기원전 150년 경 서북인도를 지배한 그리스왕 메르난데스가 당시 최고의 불교지도자인 나가세나 스님에게 '불교란 어떤 가르침인가?'를 질문하면서 시작된 내용이다.

메르난데스는 인도에 알려진 그리스왕 40여 명 중 문헌에 등장하는 유일한 왕인데 정복자가 인도인의 역사에 긍정적인 의미로 등장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아마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훗날 평등한 정치를 위해 노력한 왕이기 때문일 것이다. 알렉산더에 의해 세워진 굽타왕조부터 서북인도를 침입한 이후 그리스인들에 의해 세워진 박트리아왕조의 메르란데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가니스탄 카불 근처에서 태어났다. 왕위에 오른 뒤 영토 확장에 힘을 쏟아 여러 나라를 합병하면서 유화정책으로 민중의 선망을 얻었으며 타고난 경제적 감각으로 부강한 나라를 건설했다. 그 시대에 국제무역에 통용되었던 화폐가 22종이나 되었다. 그가 죽인 뒤 200년 후에 제작되어 통용되었던 동전이 1942년에 발견되었다. 거기에 메르난데스를 '정의를 수호하는 왕'이라 새겨져 있었다. 이 책의 첫 장은 그의 전생스토리로 시작된다.

과거 가섭불시대에 갠지스 강가에 비구들이 수행하고 있었다. 계율과 수행을 잘 하는 비구들의 첫 일과는 빗자루를 들고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며 번뇌를 쓸어내듯 경내 청소를 하는 것이다. 어느 날, 쓰레기가 엄청 쌓여 있어 한 비구가 지나가는 어린 사미에게 치우라고 말하지만 사미는 못 들은 척하고 가자 화가 난 비구는 쫓아가 빗자루로 사미를 때렸다. 사미가 억울한 마음에 울며 청소를 하면서 스스로를 달래려 마음속으로 발원을 한다.

"이렇게 청소를 한 공덕으로 열반에 이르기 전에 어디에 태어나더라도 빛나는 태양처럼 커다란 위력과 광채를 갖게 해주세요." 청소를 다 마치고 나무에 기대어 세차게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큰소리를 내어 또 발원을 하였다.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나더라도 갠지스 강이 저렇게 막힘없이 세차게 흐르는 것처럼 변재(辯才)를 얻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소서." 그때 마침 갠지스 강에서 목욕을 하던 비구가 그 말을 듣고 어린 사미도 강물을 보고 저런 발원을 하는데 나도 발원하리라 생각하고 흘러가는 물살을 손으로 만지며, "열반에 이르기 전에 어디에서 태어나더라도 갠지스 강의 이 힘찬 물결처럼 막힘없는 변재를 성취하여 반드시 저 사미가 내게 묻는 질문에 막힘없이 다 대답하고 난제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소서!"

세월이 흘러 그 때의 비구는 나가세나, 어린 사미는 메르난데스 왕으로 태어났다. 왕은 어느 날 군사의 사열을 마치고 태양을 바라보며 신하들에게 지혜를 찾아 수행하는 성현들에게 인생에 대하여 토론하고 싶다며 현자를 찾아오라고 명령한다. 명령을 받고 떠난 사람들이 모셔온 모든 철학자들은 몇 마디 나누자마자 말문이 막혀 스스로 떠났다. 왕은 더욱 교만해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분노했다.

그리고 철학자, 수행자, 바라문들을 매일 괴롭혔다. 불교 교단에서도 많은 토론자를 보냈지만 한 방에 말문이 막혀 돌아왔다. 아라한과 장로들이 나가세나를 찾아와 날마다 난해한 질문으로 수행자를 괴롭히는 왕을 굴복시켜달라고 한다. 이 말을 듣고 나가세나가 왕을 만나러 출발을 하니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이 엄청난 토론의 장소에 빠질 새라 함께 길을 나서는 비구들이 모두 8만 명이었다. 그 무렵 왕도 나가세나의 이름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가 매우 유능하고 지혜로우며 용기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여 담론에도 뛰어나서 어떤 질문에도 시원시원하게 답을 하여 모든 이들의 갈증을 해결한다고 하자 무작정 5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세나 스님을 뵈러가겠다고 출발한다. 서로 출발하여 중간에서 만나게 되니 영겁의 세월을 지나 비구와 어린 사미가 드디어 만나게 된 것이다.

〈계속〉

〈서울 반야사 주지〉

주는 것과 받는 것, 결국 같은 것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㉛ 참 부자가 되는 길… 보시바라밀

사회생활 근 30년이 되던 어느 날, 이제는 선지식이 시키시는 보시바라밀을 실천할 때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구청에서 대문과 담을 헐고 포장도 해주며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나는 구청에 요청하여, 마당에 대나무로 엮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무료급식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대중에게 공양하는 연습을 3년간 하라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보시바라밀을 실천하여 빈궁한 마음을 해탈하고,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욱 큰 것임을 느끼고 싶었고 참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을 실감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무료급식의 뜻을 세우자마자 여기저기서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인들의 성금이 답지하였을 뿐 아니라, 잘 모르던 사람들도 자신들이 쓰던 각종 물건들을 보시하려고 하였습니다. 자원봉사를 자청하는 사람들도 예상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학교수가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무료 급식소를 만든다는 내용이 주간지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여기저기서 성금이 답지했습니다. 지금도 매우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조계사 주지스님을 비롯한 원주 스님께서 무료 급식하기에 충분한 양의 국수를 근 10년간 꾸준히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료급식소 근처의 시장상인들은 아무도 모르게 채소류를 가져다 놓는다거나, 좋은 일 하신다고 고맙다고 하시며 매주 한 번씩 과일이나 떡을 주셨습니다. 어느 때는 무료 급식하시는 노인들께서 꼬깃꼬깃 모은 돈을 성금으로 내기도 하십니다. 그 중 가장 인상에 깊이 남는, 눈물겨운 일이 있었습니다.

무료급식을 시작한 지 5년쯤 되었을 때, 마당에 지어놓은 무료급식소 건물이 무허가라며 누군가가 구청에 신고하였고 구청 직원들은 무료 급식소 건물을 폐쇄하라고 독촉하였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됐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의 어르신들은 연대 서명하며 구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만약 구청에서 이 진정서를 받고도 건물을 철거하라 한다면, 나는 구청 마당에 드러누워 단식하며 이 무료 급식소 폐쇄를 온 몸으로 막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oo지구당 사람들은 책임지고 구청의 처분을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기저기서 무료급식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모습에서 경주 최 부잣집의 수백 년 전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만 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이런 철학을 가진 최 부자는 흉년이 들면 빌려간 쌀을 못 갚는 농민들의 담보문서를 모두 없애고, 그 대신 죽을 쑤어 농민들과 푸짐하게 나누는 아름다운 선행으로 이어졌다. 어느 때 최 씨 집의 비리를 관청에서 발견하여 탄압하려 하자, 최 씨 집안의 은혜를 입은 동네 사람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관청의 탄압을 막았다.

마치 경주 최 부자의 미담과도 같은 일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니, 무료급식의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세상의 인정은 결코 메마르지 않았음을 실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라는 '불이(不二)'의 진리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삼전대(三錢帶) '이 뭣고'

당나라 때 배휴, 배탁이란 등이 붙어나온 쌍둥이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외삼촌 집에 의탁하며 살고 있던 중 한 스님과 외삼촌과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이 아이들이 이 집서 같이 살면, 이 집안도 망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이들은 외삼촌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집을 나와 떠돌다가 산중 암자서 부목일을 하며 지냈다. 그러던 중, 아침에 목욕탕서 청소를 하다가 보자기를 발견했는데, 풀어보니 값진 보물(寶物)로 만들어진 삼전대였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 이것 하나면 평생을 부자로 편히 살 수가 있었지만, 필히 무슨 사연이 있는 물건이라 생각하고 기다리던 중, 할머니가 허겁지겁 달려 오시며 보자기를 찾으시니 배휴가 그것을 내어 드렸다.

사연(事緣)인즉 부농(富農)으로 외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실수로 마을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중국에 가서 삼전대를 구해서 원님에게 바치면 아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하여 모든 재산을 팔아 사가지고 오던 중 절(寺)이 있으니 목욕재계 하고 잠시 부처님전에 예배드리고 아들을 살리겠다는 급한 마음에 삼전대를 잊고 간 것이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외삼촌집에 다시 가니 마침 전에 오셨던 스님이 계시는데, 배휴를 보고 외삼촌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 아이를 잘 공부시키면 나중에 삼정승(三政丞)은 물론 대도(大道)를 이룰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다.

이유인즉 전에는 배휴의 관상(觀相)을 보았지만 지금은 심성(心性)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 후 열심히 공부한 배휴는 정승이 되었다. 하지만 헤어진 동생인 배탁을 찾을 수 없던 차에 황하강을 배 타고 건너게 되었는데, 여름

"나는 산과 물을 벗삼아 오고 가는 사람들을 건네주며 대자연과 함께 노니는 것이 형님의 삼공지위(三公地位)와 바꿀 것 없는 내 복이라 생각해 찾지 않았습니다"

이라 사공이 웃옷을 벗고 노를 젓고 있었다. 그의 등에 나 있는 흉터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배휴 정승은 그가 자신이 그토록 찾던 동생 배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너는 내가 정승이 된 소식을 못들었느냐?"하고 묻자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배탁이 답했다.

그럼 왜 찾아오지 않았느냐고 하자, 배탁은 "형님은 형님의 복으로 정승이 되어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나는 산과 물을 벗삼아 오고 가는 사람들을 건네주며 대자연과 함께 노니는 것이 형님의 삼공지위(三公地位)와 바꿀 것 없는 내 복이라 생각해 찾지 않았습니다"고 답했다. 그리고 결사코 그는 형을 따라가지 않았다. 언제인가 홍주자사(洪州刺史)로 있던 배휴가 이 절에 왔다가 벽에 그려진 고승들의 화상(畵像)을 보고, 안내하는 스님에게 물었다.

"저것이 어느 고승들의 상(像)입니까? 형상은 그럴 듯한데 이 고승들은 지금 어디에 있소?" 안내하는 스님이 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이 절에는 선사(禪師)가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근간에 한 스님이 오셨는데 선사 같이 보인다고 답했다. 사실 그는 황벽선사였다. 선사는 백장의 법을 받아 여러 곳을 다니다가 용흥사에 머물면서 청소나 하고 밥을 얻어 먹고 있으면서 자신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자 배휴는 그 선사를 불러 오라고 했다. 배휴가 선사에게 물었다.

"지금 저 벽에 그려진 고승들은 어디에 있소?

이때 선사는 큰 목소리로 "배휴" 하고 불렀다. 배휴는 깜짝 놀라며 엉겁결에 "예"하고 대답했다. "지금 어디에 있는고?"

언하대오(言下大悟)라, 언하에 깨달음을 얻고 배휴는 즉시 황벽 선사에게 귀의 하였다. 그 자리는 행행도처(行行到處) 지지발처(至至發處)라, 즉 가고 옴이 없는 동시(同時)이고 역천겁이불고 항만세이장금이라. 천겁이 지나도 옛 되지않고 만세를 뻗쳐 바로 지금이라는 의미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 (54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8년 9월 3일 (월요일)** 부터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 신 대 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8년 8월 1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범패 · 작법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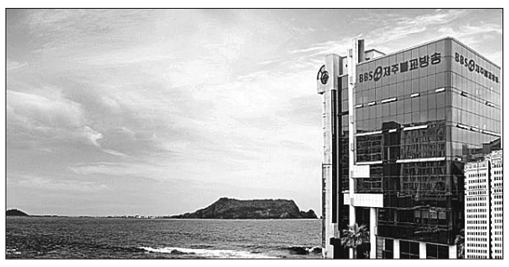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상단불공의식
◇원서교부 : 2018년 8월 1일 부터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8년 9월 4일 화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제주에 부처님 가르침 전해요

제주BBS, 9월 9일 개국 · 정규방송 송출

전국네트워크 확대와 난청해소를 위한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의 노력이 BBS제주불교방송(이하 제주BBS)의 개국으로 또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됐다.

제주BBS는 9월 9일 제주BBS 사옥에서 개국식을 갖고 정식으로 제주지역 법음홍포에 들어갔다. 제주BBS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 송출할 계획이다. 먼저, 제주도와 지역불교의 홍보를 위해 '한낮의 휴식, 장수연입니다' (평일, 낮 12시15분~2시)를 제주BBS에서 제작해 전국으로 송출한다. BBS는 제주BBS의 빠른 정착과 지역융화를 꾀하기 위해 BBS의 베테랑 장수연 아나운서와 이응진 PD를 개국멤버로 투입했다.

또 제주자체 프로그램 'BBS아침저널 제주, 이선화입니다' (월~목, 오전 8시30분~9시)를 편성해 제주의 사회, 문화, 불교 등 전반적인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다. 이 시간은 제주MBC 라디오제작부장과 제주도의회 2선 의원을 지낸 이선화 씨가 진행을 맡아 생생한 소식을 아침 시간대에 전달한다.

제주BBS는 제주시 일원 94.9MHz로 송출되며, 서귀포 일원 100.5MHz의 주파수로 허가를 받아 송출을 준비 중이다.

신성민 기자



안거 해제… 생명살림법회로 회향

조계사, 고창 선운사서 생명살림기도

무술년 하안거 회향을 맞아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가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생명살림기도 법회를 조계종 24교구본사 선운사에서 봉행했다.

9월 2일 선운사 생태공원에서 봉행된 생명살림기도 법회에는 선운사 대중스님들과 유성엽 국회의원,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기관장 등 5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지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생명살림기도 법회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의미도 있지만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비심을 일깨우는 법회이기도 하다"며 "생명의 소중함과 함께 고통 받는 이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법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환영사서 "작은 미물에도 생명이 있고, 생명존중의 깨우침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다"며 "부처님의 생명존중사상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동아리방 리모델링 미래불교 터전으로"

Interview

백효흠 대불련 총동문회장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올해 대불련 동아리방 새단장
태고종 후원, 선후배도 힘 모아
9월 성균관대 동아리방 완료

"깔끔한 동아리방에서 청년불자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대학에 제대로 된 불교동아리방을 완비해 미래불교의 보금자리이자 터전이 되도록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불련 출신 동문들이 후배들의 불교동아리방 리모델링에 나섰다. 대불련총동문회(회장 백효흠)가 설립한 사단법인 대불은 '대불련동아리방 리모델링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다. 9월 초 성균관대 불교학생회 동아리방을 낙성한데 이어 9월 5일 이 사업에 관한 태고종과의 후원업무협약까지 맺었다.

태고종 총무원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백효흠 회장은 "미래불교의 희망인 청년불자 감소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동아리방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으로 캠퍼스 포교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하나씩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백효흠 회장은 취임하면서부터 대불련을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섰다. 현재 350여 대학 중 불교동아리가 있는 곳은 66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번 불교동아리방 리모델링은 초기에 창립된 불교동아리들이 낙후된 공간에서 활동하고, 또 동아리회원의 감소 원인이 되고 있다는 대불련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백효흠 회장은 "3포, 5포, N포세대라고 불리는 대학생, 청년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전하고 친화적 공간을 마련해줌으로써 대불련 회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새로운 불교의 모습을 전달하기 위해 계획했다"며 "대불련 동아리방이 마치 카페 같고, 또는 도서관 같은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만듦으로써 안락한 분위기 속에 대학생 불자들이 소통했으면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백 회장은 이어 "올해 공개모집을 통해 성균관대와 경북대, 제주대가 선정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규격화되고 깔끔한 동아리방을 제공해 미래불교의 보금자리,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회장은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에서 시작해 2012년 베이징현대 사장을 지내는 등 샐러리맨 신화를 이룬 것으로 유명하다. 그 이면에는 불교를 공부하며 쌓은 리더십이 크게 작용했다.

백 회장은 "대학시절 대불련 활동으로 청년불자들을 만나게 됐고, 함께 활동하며 일생일대의 보람을 느꼈다. 부처님 깨달음이 항상 저변에 있어 배려와 리더십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대불련 선배들의 마음도 젊은 시절 느끼고 받았던 불교의 좋은 점을 후배들에게 적극 알리고 싶은 것이다. 동아리방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캠퍼스 포교에 필요한 것에 귀를 기울여 돕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르신 건강, 섬김봉사단 책임진다"

진안 쌍봉사 보경 스님
어르신 나눔잔치 마련해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이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잔치에서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전북 진안지역에서 활발한 자비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가 진안군 백운면 소재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과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어르신 섬김 나눔 잔치를 열었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과 쌍봉사 섬김봉사단(단장 전근수)은 8월 31일 진안군 백운면 사무소 강당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자들과 백운면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 삼계탕과 다과를 대접하고 무더위에 지친 노약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또 거동이 불편해 찾아올 수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직접 시설을 찾아가 준비한 음식과 다과를 전달하고 위문했다.

보경 스님은 "유례없는 폭염 속에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무척 고생하셨다"며 "진작 모시려 했지만 무더위에 어르신들이 외출하는 게 건강에 무리가 따를 것 같아 조금 늦췄다. 더위가 한풀 꺾인 시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해 이제야 경로위안잔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사에 앞서 백운면 사무소에는 진안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미니 연잎밥 체험, 미니 방향제 화분 만들기, 전래놀이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커피 등 음료가 무료로 제공됐다.

진안경찰서에 근무하는 전근수 쌍봉사 섬김봉사단장은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형광조끼를 선물했다.

한편 쌍봉사는 매월 지역의 마을단위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찾아가는 마을밥상'을 운영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청년지도자육성 장학금 수여

동국대, 재학생 60명에게 각 100만원씩



동국대(총장 보광)는 9월 4일 불교청년지도자장학생으로 선발된 학부생 60명에게 불교청년지도자육성 장학금 1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불교청년지도자육성 장학금은 종립대학교로서 건학이념 구현 차원에서, 지혜와 자비행을 갖춘 지도자를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2008년부터 매년 120명 의 동국대 재학생을 선발해 불청장학생을 운영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세지中, 학생 위한 특강 열어

양향자 공무원인재개발원장 초청



불교종립 나주 세지중학교(이사장 원일, 나주 미륵사 주지)는 8월 30일 교내에서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초청해 특별강좌를 개최했다. 재학생과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특강에서 양향자 원장은 자신의 성장과정과 적극적인 자기개발에 대한 경험 등을 학생들에게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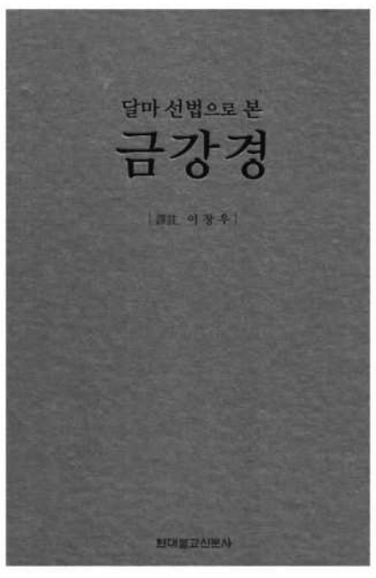
나무 보살핀 '청소년 한강지킴이'

불교환경연대, 9월 1일 남한강 수질보전활동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서울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사업 일환으로 '청소년 한강지킴이'를 모집, 9월 1일 여주 신륵사 인근 남한강서 버드나무 심기 및 돌보기 활동을 펼쳤다. 이날 이항진 여주시장, 이동순 목사(여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청소년 자원봉사자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김지원 기자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

여시아문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는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 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에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 구입문의 : 02)2004-8216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외국 예술인들도 사찰음식에 '흠뻑'

무각사, 2018 광주비엔날레 관련 전시회 개관



해외 예술인들을 위한 특별전시회와 사찰음식 만찬이 열렸다.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는 9월 5일 경내에서 광주비엔날레 참가 외국 예술인과 관계자들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 전시회 개관과 사찰음식만찬을 진행했다.〈사진〉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해외 유수 미술관의 작품을 광주에서 감상할 수 있고 신진작가와 지역작가의 작품을 해외 미술관에 전시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비엔날레 메인전시관을 비롯해 무각사, 광주시민회관, 남구 이강하미술관 등지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이번 무각사 특별전시는 핀란드, 한국 작가 5명이 공동 작업해 과거와 현재, 개인과 집단, 미시적 시선과 거시적 시선까지 전시 공간인 무각사의 환경과 어우러져 상호 의존성과 연속체로서의 가치를 보여준다.

이어진 사찰음식 만찬에는 2018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한 국내 · 외 작가와 예술인들이 함께했다. 프랑스, 미국, 아시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참가한 예술인들이 참여해 한국 사찰음식의 풍미를 느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시법회서 고민한 불교발전 방안

불교중흥실천협의회, 원인 스님 선시법회 열어

불교 음악과 문화로 성큼 다가온 가을을 만끽하고 선시와 함께 불교 중흥을 논하는 법회가 열렸다.

불교중흥실천협의회(의장 안국)는 9월 1일 부산 금강공원 일대와 금어사에서 '원인 선사와 함께 하는 선시(禪詩) 법회 별이 빛나는 밤'을 개최했다.

불교중흥실천협의회는 선시법회를 개최하고 '이 시대 불교중흥을 위한 제언'이란 불교발전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영주 대승사 회주 원인 스님과 불교중흥실천협의회 안국 스님, 부산교수불자연합회장 장상목 동아대 교수, 현익채 법사(前금정중학교 교장), 김정혁 동아대불교동아리 회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사찰 재정 관리 투명성을 강조하며 관리 및 운영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승려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행자로 마지막까지 청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상목 교수는 "행정과 재정이 분리돼야 한다"며 "행정을 주관하는 총무원장과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 처장과 감사들은 모두 독립 선출 돼야한다"며 "수행성의 노후 보장을 비롯한 스님들의 복지정책이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원인 스님은 "조계종 종단사찰재정을 투명하게 통합 관리해야 한다"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승가의 모든 복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범어사 하행로 양방통행 개통

10월 중 공사 예정인 범어사 하행로가 양방통행으로 바뀐다. 범어사 하행선 양방통행으로 12월 개관 예정인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접근이 편리해져 템플스테이 및 선문화 체험 등 내 · 외국인 전통불교 문화체험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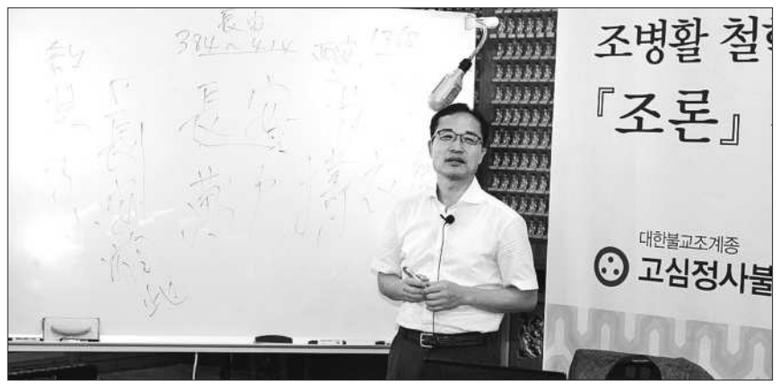
부산 금정구는 "범어사 하행로 일방통행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과 범어사 방문 관광객 및 신도들을 위해 2015년부터 정비를 시작해 10월 개통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범어사 하행구간은 범어사 매표소에서 상마마을과 금샘로 삼거리까지 총 1.85㎞ 구간으로 사업비 39억 원이 투입됐다. 일방통행로는 양방통행으로 바뀌면서 기존 폭 12m에서 16m로 확대됐다. 아울러 범어사 주차장 일부를 정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소통을 도왔다. 한편, 범어사 상행로는 기존 일방통행이 유지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론〉으로 반야 지혜 펼친다

고심정사, 불교대학 강의 개설… 조병활 박사 맡아



고심정사 불교대학이 승조 스님의 〈조론(肇論)〉을 살펴보는 강좌를 개설했다. 특히 백련불교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조병활 박사가 직접 강의해 뜻 깊은 인연으로 훈훈함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중국 역사상 불교가 가장 널리 알려지고 연구됐던 수 · 당나라 시대를 연 승조 스님의 〈조론(肇論)〉을 살펴보는 강좌가 고심정사에 개설됐다. 특히 백련불교문화재단에서 후원해 학위를 취득한 조병활 박사가 직접 법사로 나서 더욱 뜻 깊은 강의로 훈훈함을 전했다.

고심정사 불교대학(학장 원택)은 9월 5일 고심정사 법당에서 〈조론〉 첫 강의를 시작했다. 〈조론〉은 중국 후진시대 승조 스님이 저술한 책으로 반야중관사상(반야공사상)을 담고 있다. 승조 스님은 당시 위진시대 유행하던 노자 및 장자의 현학 사상과 불교 핵심 가르침인 공(空)을 구분해 설명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명료하게 전해 중국 내 불교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강의는 조병활 철학박사가 담당한다. 조 박사는 "이번 강의를 통해 반야중관사상을 토대로 〈조론〉을 해석하고 노자사상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밝힐 것"이라 말했다.

조 박사는 "승조 스님은 중관사상에 달통한 구마라집의 제자로 중국에서 반야 사상을 최초로 설명한 분이다. 중국에서 각 시대마다 〈조론〉 주석서가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 중요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도가 입장에서 〈조론〉을 접근해 아쉬운 점이 있다"며 "철저하게 반야 사상을 기초로 연구하고 강의를 마칠 때쯤엔 〈조론〉을 새롭게 해설한 책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장 원택 스님은 "10여 년 동안 중국과 티베트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해 돌아온 조 박사에게 기대가 많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반야 공사상의 진수를 보여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중국불교 발전 기틀 〈조론〉
"노자 사상과 차이 밝힐 것"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강의
6개월간 중관사상 파헤친다

강의에 앞서 고심정사 불교대학은 조병활 박사의 학위 취득을 축하하며 강의 개설을 알리는 입재식을 봉행했다. 고심정사 불자들은 한 명씩 나와 장미꽃을 조 박사에게 전달하고 학위 취득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학장 원택 스님은 조병활 박사와의 인연을 설명하며 "모두 고심정사 불자들의 후원과 관심으로 조 박사가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조병활 박사는 과거 불교신문 재직시절 원택 스님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이후 중국에서 유학하며 중국어를 공부하고 입국하려다 원택 스님의 권유로 불교철학에 매진해 2012년 6월 북경대 철학과에서 북송 선종사상 연구로 철학박사를 취득했고, 2018년 6월에는 중앙민족대 티베트학연구원에서 티베트불교를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 박사는 "중국어를 공부하고 돌아오려는데 원택 스님께서 '중국어 잘하는 사람은 이미 한국에 넘친다'며 불교를 제대로 연구하고 돌아오라는 당부를 했다"면서 "10년이 넘는 유학 기간 힘든 점도 많았지만 백련불교문화재단의 후원과 여러분의 관심으로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고 인사를 전했다.

원택 스님은 "70여 년 동안 티베트어로 논문을 작성한 외국인이 없었다"며 "조 박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앞으로 불교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심정사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부산에 널리 알리기 위해 창건됐다. 고심정사의 '고심(古心)'은 성철 스님의 해인사 백련암 고심원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고심정사 불교대학은 2005년 문을 열어 현재 기초교리반, 학과반, 경전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론〉 강의는 6개월 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51)464-8450

각국 문화로 꽃피운 세계일화

삼광사, 제6회 연꽃문화제 세계전통음식도 함께 펼쳐



삼광사 연꽃문화제서 외국인들이 연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세계 각국의 음식과 문화로 소통하고 다양함을 인정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세운)는 9월 2일 천태종 주최, 삼광사가 주관하는 '제6회 세계음식과 함께하는 연꽃문화제'를 경내 마당에서 열었다.

행사는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과 재가불자 3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세계전통음식 시식 △다문화인을 위한 전통사찰 · 약선요리 소개 △각 나라별 놀이체험 및 의상, 인형, 모자 등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세계음식은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한국이 준비했으며, 전통놀이와 전시는 한국, 베트남, 몽골, 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가해 각국 문화를 선보였다. 이어 세계 전통춤과 음악으로 꾸며진 무대가 펼쳐졌다. 전통공연 무대에서 한국은 요잡바라 · 천수바라 · 도량게를, 베트남은 전통부채춤, 몽골은 더먹, 우즈베키스탄은 랴즈기를 각각 선보였다. 초청공연으로는 어린이합창단과 화엄합창단이 무대를 꾸몄다.

특히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로 구성된 레인보우팀이 한국 전통부채춤을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은 "세계일화라는 말이 있듯이 세계는 하나다. 진흙탕에서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우리들 마음에 청정심을 드러낼 때 갈등,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오늘 세계 전통음식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자"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독거어르신 무료급식에 동화사스님들 직접 나서

소외계층 독거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에 팔공총림 동화사 스님과 신도들이 팔을 걷어 올렸다.〈사진〉

동화사는 직할포교당 보현사에서 8월 29일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동화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 배식봉사를 펼쳤다. 봉사에는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을 비롯해 국장단 스님들과 신도회, 종무원들이 함께 동참해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400여 명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2004년부터 무료급식을 시작한 자비의 집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300~400여 명의 점심식사를 제공해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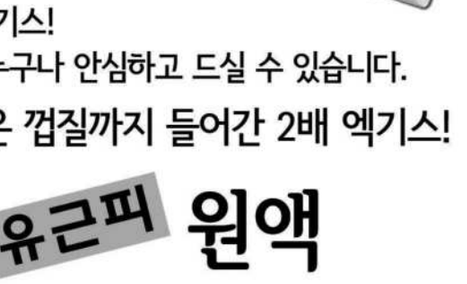
피부 · 치아 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소화불량, 스트레스(화병), 가슴통증, 수행시상기증, 얼굴모낭충,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대장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굴셀健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s.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여래의 가르침의 핵심은 너희 마음을 단속하는 데 있다. 너희는 욕심으로부터 멀리 떠나 몸을 바르게 하고 순결히 하며 말에 거짓이 없도록 하라.

〈반니원경〉



관상(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출장탐사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음범패 학인 모집
- 주1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실용교육
- 예불,불공,사십구재,천도재 등
- 북,징,경쇠,요령,목탁 다루는 법
- 바라작법, 오공양무

영남범음범패 염불선원
(경산시 경산역 부근)
010-5315-3589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기도와명상
"신간 책 소개!"
기도와명상
교보문고 영풍문고 전국서점 구입!
책이름검색 손재찬선사 북갤러리 인터넷 구입!
모든불교인의 '필독서'입니다
문의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풍수지리 신통력
음택명당 이장하는데 해무리, 무지개 3시간 1년에 30회 뜹니다
무지개 스님
010-4413-3377

율곡 범음 대학
(광주전남 범음범패)
의식교육 학인 모집
- 대상 : 스님, 법사, 보살 가능, 사찰행사 함께 하실 분

초급 · 중급반	상 급 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6시

광주무형문화제 제23호 범음기능보유자
문의 010-6241-8499

최면 전수생 모집
①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② 최면치료는 부작용이 없다.
③ 빙의(신들림)에서 우울증, 자살충동 까지.
④ 최면치료는 재발이 없다.
⑤ 사고장요법까지 전수해준다.
HOMEPAGE :www.hypnosis.or.kr
최면치료사 상담치유학박사 강성진교수
010-4844-7002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풍수,명리,육효,주역,작명(학인모집)
남·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모집안내
사암, 포교원 등록
종단, 연합회 등록
불교문화원 시설 등록
지방 종무청 설치 등록
한국불교 종무청
종무집정기관 종무집정관
종통정승 011-412-8040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명상(무료)
"누구나"
T.1588-5654
화태명상원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 3길 31
전철 2호선 홍대역 2번출구

천둥번개 삼키는 법 전수
뇌강검의 비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수리 비술
- 수리의 비밀과 의미를 알려 드립니다.
- 손 하나만으로도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 전 후의 운세를 예측할 수 있는 운세 작법
- 명리나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사)한국불교 조계종 영락사
요양하실 분 / 기도 하실 분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033) 435-9556
010-7137-5924 / 010-4717-1960

범음범패 교육도량
각단예불 및 천수바라 육법공양무(작법)나비무 법고,송주북,정근북
사찰행사 문의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불교 공부와 철학을 배우면서 사찰을 같이 운영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35세 ~ 50세 차후 사찰을 무료로 인도해줍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정량길 65-9 운암사)
010-6536-012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2세 이하
(충남 지역 사찰)
041-673-8385

기도 예불스님 구함
처사님 (봉고 운전면허 소지자)
절에서 공부할 행자 심부름
(부산)
010-3840-435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충남 아산)
010-6266-466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당)
011-229-6061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010-7344-1881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이메일 jabi2018@naver.com | 02) 2004-8216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그릇되고 해로운 일은 자신에게 행하기 쉽고,유익하고 옳은 일은 자신을 위해 지극히 행하기 힘들다.

〈법구경〉



청도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 법당. 요사채. 삼성각. 토지 5,000㎡
- 주변산 사찰. 기도도량. 저수지 전망
- 양도 : 15억 2천만원 (융자가능함) (위치 알려드리지 않음)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 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시 치악산 자락
- 대지 : 900평
- 건물 : 대웅전 28평 (전통 목조)
- 요사채 2동, 산신각(4평) (각 30평)
- 가액 : 5억 5천만원

010-4028-889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700만원
- 즉시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진주부근사찰(급)안내
- 지리산 기도도량. 토지5,000㎡
- 목조법당.요사채.삼성각.공양간
- 조용하고 풍광일품 위치좋음
- 운영잘됨. 스님사정상 양도
- 양도가액 : 9억5천만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구입의사 있으신 스님만 모심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 찰 안 내
- 위치 : 거제시 대금산하 총부지 1100평
- 종교집회장 300평 허가득
- 토목공사,700평 완성되어있음
- 주택 34평,임법당, 삼존불 27평 소불700불,산신각,심야보일러 농사용전기,산업용전기,수도시설
- 포교원, 전원주택 모두 가능함
- 가액 : 6억(은행 2억있음)

010-9113-0015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수도권 ◎ 위치 : 서울 북한산
◎ 부지 : 150평 ◎ 부지 : 100평 사용
◎ 법당 : 40평 ◎ 인법당 : 약 60평
◎ 요사 : 70평 ◎ 산속, 무허가 건물
◎ 양도가 : 11억 3천 ◎ 양도가 : 5천 5백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8천만원 (대출 1억)

010-8916-5680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 임야대지: 약 9만9천평(3필지), 산 중턱까지 임도 포장 완료, 좌측과 가운데에 국유지 약 46,000평
- 건물 : 60평 단층건물, 30평 축사2동(건축물대장에 存)
- 방향 : 서향, 서북향 / 계곡물 有
- 용도 : 요양병원, 산림욕장,수목장, 종교(청소년)수련원, 버섯 및 약초재배 등 • 가액 : 22억

010-9388-0215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소백산
- 물 좋고, 공기 좋은 곳, 조용히 공부하실 분 적합
- 불기 일체, 집기 일부, 수도, 전기, 보일러 유
- 벽돌기와건물,35평,텃밭,대형주차
- 총평수 7백14평
- 개인사정으로 (급)양도가 2억
- 낮 12시 이후 4시전 통화가능

010-4747-3468

토굴하실 분
- 위치 : 경북 청도 금천면
- 대지 : 110평
- 건평 : 20평(거실, 방 2) 창고, 기름보일러 설치
- 판넬구조, 공기좋음, 토굴로 사용하실 스님수행공간 최적임
- 주변유실수 많음(살구,감)
- 가액 : 1억

010-8517-4130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87-25
- 시장을 끼고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 주지스님이 일본가시는 관계로 급히 인연을 찾고자 합니다
-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2천 월 1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3102-5102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삼장면 소재
- 600평 건물 6동
- 법당 53평 그 외 용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전화 상담

010-8957-80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소재
- 부지 : 1500평(대지,밭)
- 법당 : 30평(목조,단청)
- 요사채 : 2동 60평
- 기타 : 산신각,용왕당,석불,석등
- 가액 : 6억2천만원
- 특징 : 도심외각에 위치한 사찰로 포교와 기도처로 정말 좋습니다
- 위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 부지 : 150평(종교용지)
- 건평:100평(법당,요사채,종무소,기타)
- 가액 : 3억8천만원
- 특징 : 신도구성이 잘되어있어 사찰운영이 아주 용이하며,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포교지로 적지입니다

전국소재 사찰, 절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010-4942-045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339-9
- 법당 30평
- 방1개, 친견실, 공양간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절충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010-7257-424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봉양읍
- 법당, 거실, 주방, 방
- 심야전기 보일러
- 가액 : 2,500만원

010-5258-1570

일본 포교원 안내
- 위치 : 오사카 쯔루하시 재래시장 입구 한국인들 집중 거주지역
- 2017년 건립, 3층 건물 전체사용, 각층20평,법당,신중당,공양간, 접견실,침실,휴식처
- 시설 완벽, 몸만 오시면 됨
- 스님 건강 문제로 급 안내함
- 가액 : 문의 후 상담

010-3545-5060
일본 080-5358-5060
무료 070-8836-5060

사 찰 안 내
- 법당, 요사체, 토지 3,971.1 ㎡ / 1,201.26평
- 전북 군산의 조용하고 불심을 다스리기 좋은 최적의 도량
- 인가도 멀지않아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주변이 둘레길산책로가 형성되어 접근성이 좋음

010-5870-3358
063)451-25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집현면
- 대지 : 약 1,000평, 산 약 1만평
- 건물 : 법당 30평, 요사 25평, 산신각 3평, 기도방1칸
- 가액 : 5억 4천 8백만원

010-6520-5859

주택안내(토굴하실분)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353-20 외
- 대지 약 380평, 전290평
- 전통한옥ㄱ자형, 본채, 별채 (2채 약70평,부속건물포함)
- 준공일 : 2012년 12월
- 가액 : 8억 5천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010-7449-292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광진구 구의사거리
- 시설 : 법당(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산신각(산신탱화), 상담실, 주지실, 공양간
- 최상의 시설, 2층 60평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150만원 시설비 1,300만원(절충가능)

010-4047-013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서원시장 사거리 지하철 근접
- 4층 건물 중 2층 34평
- 총무실1.침실. 화장실2. 시설A급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 (관리비, 부가세 없음)
- 5년째 법당으로 사용하다 현재 비어있음

010-8448-6725

사찰(급)안내
- 위치 : 고성(위치 좋음)
- 대지 : 200평
- 대웅전 : 30평
- 요사채 : 40평
- 상태 양호(수리완료)
- 가액 : 3억 5천

010-9485-9318

사찰(급)안내
- 위치 : 김해 신도시
- 신축 2년
- 대지 470평
- 건물1층 60평, 2층 60평 식당 23평, 산신각 7평
- 법당안 1년등 1,450개
- 양도가 13억

주인직 055-346-2908

20년기반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대연동 아파트 밀집 지역(상가분양 받았음
- 제반시설: 법당, 주방, 상담실, 접수실, 주차장
- 70평, 5층건물, 즉시법회가능
- 양도가액: 1억4천5백만원 은행대출 3,400만원안고 1억천백만원

010-9878-12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동두천시
- 대지 : 350평
- 법당 30평, 요사채 : 20평
- 가액 : 4억 5천만원
- 전철 인접 (도보 20분, 차량 +2~3분) 공인중개사는 사절합니다. 사진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세요. (문자로 사진요청은 안보냄)

010-6559-0913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 3층 40평
- 법당, 삼존불, 시설원만 방2,주방,화장실,옥상사용함
-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5분거리
- 전세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절충가능

010-7536-2588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화봉로
- 2층 : 33평. 방2,화장실2,법당,난방완비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준비 할것 없음
- 가액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 1,900만원(가격 절충)

※ 불사관계로 (급)
052-287-8526
010-7572-8526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중앙선,버스 정류장 앞,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 대지 : 220평
- 건물 : 대웅전(50평, 공양간, 종무소 포함), 요사채 2동
- 특이사항 : 법당 바로 법회가능 (불상, 불단, 냉방시설완비)
- 가액 : 9천 오백만원

전화:010-6241-8499

펜션 별장 토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일월산 자락에 아담한 곳
- 현대식 목재건물
- 건평 30평, 대지 밭 1천평
- 앞마당 계곡, 법당 부지 있음
- 가액 : 2억 4천만원

010-5424-496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연산동
- 대지: 121평
- 대웅전 1동, 삼성각 1동
- 소불당 1동(600불 봉안) 요사채 1동, 주지실 1동 용왕당, 사시사철 자연수
- 사찰연력 130년 완전고찰
- 가액 : 4억

연락처 010-7273-1529
010-2720-1580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해남읍에서 5분 거리
- 대지 : 1,500평 남짓
- 시설 : 법당, 목조 20평, 관음전, 종각, 차실, 요사채, 공양간 등 모두 방 10칸
- 외부 : 부속사, 대형주차장 등
- 대출 7,500만원 승계도 가능,
- 모두 합 2억 9,500만원 (부득이한 사정)

010-4628-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시내
- 대지 : 2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40평
- 산신각 : 10평
- 몽땅 : 1억 1천만원

010-8861-1785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 대지 : 125평 중 건평 : 100평
- 법당 : 35평, 삼성각, 용왕단, 호신불 650불, 인등 1008등
- 방 5개, 화장실 3개
- 아파트 대단지 4만 5천세대 부근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019-5385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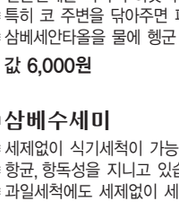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행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명당 절터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 광도면
- 산중턱에서 바라보면 청정바다가 보이는 멋진 곳, 계곡물 전기
- 평수 : 150평
- 평당 60만원(조절 불가)
- 직접 보시고 결정하세요

010-8643-52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요지)
- 부지 : 280평
- 삼존불, 각단탱화, 법당 스님방,공양주방,다용도방,창고! 실내화장실 2, 실외화장실 2 집기일체, 즉시법회 가능
- 가액 : 대출6천안고 2억4천

010-8643-5235
010-7475-0474

사 찰 안 내
- 위치:경남 합천군 대송면 성리 529-5
- 대지 : 740평
- 건물 : 법당 12평, 요사채 50평, 무학대사 자연동굴 약70평 (무속인 기도처)
- 불교용품 판매 가능
- 보증금 : 3천에 월세30만원 전세 가능합니다

010-2078-9595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손맞이길 107
- 사찰건물 : 법당, 방2, 주방, 다용도실, 독채등기필
- 대지 : 도지료1년 35만원
- 넓은 마당 및 텃밭200평 사용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소유임)
- 가액 : 4천 3백만원

010-8525-1959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 단독 주택 약 50평
- 법당, 방 3, 화장실 2
- 법당(아미타 삼존불), 청동불(3자)
- 교통편의,지하철 1호선 안지랑이역에서 5분거리
- 보증금 1천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청동불 인수 포함 1천만원

010-9735-8032

토 굴 임 대
- 위치 : 충남 청양군 소재 (공주시와 인접)
- 고속도로 IC에서 5분내 거리
- 법당 : 컨테이너하우스 1동
- 요사 : 방사2, 실내주방, 해우소 약 20평
- 법당 및 주방 집기일체 구비(시설비 무)
- 개인기도, 수행하실 스님이나 비구니 스님 적합할듯 합니다.
- 전세가 : 2,000만원

문의 010-3977-2123

포교당 (창업) 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화곡동 코너 건물
- 2층 25평, 시설비 없음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 건물주가 적극 협조 (본 건물에 거주)

010-5381-141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소재
- 법당 : 아미타불
- 평수 : 141평
- 가액 : 1억 1천만원

연락처 010-3697-3521

전망 좋은 암자(토굴)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바닷가
- 삼존불, 각단탱화, 스님방사, 산신각
- 양도가 : 1억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만원 또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010-8643-5235
010-7475-0474

불법 삼림 벌채에 스님들 '뿔났다'

캄보디아 승려 단체, 숲 살리기 환경 운동 '앞장'

박정현 객원기자

캄보디아 정부의 무분별한 삼림 벌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스님들이 삼림 보호를 위해 직접 뛰어들었다.

현재 MCF(Monks Community Forest) 및 사회정의를위한독립승가네트워크(Independent Monk Network for Social Justice, IMNSJ) 소속 스님들이 삼림 벌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고 8월 31일(현지시간) 부디스트도어가 보도했다.

삼림 벌채는 캄보디아에서 주된 환경적 위협 요소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에는 캄보디아 국가 면적의 73%가 숲으로 덮여있었으나, 2010년에는 57%까지 떨어졌다.

캄보디아 북부 오다르메안체이주(州)에 위치한 삼롱 사원 주지인 번(Bun) 스님은 "우리는 숲을 잃었고, 이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줄었다. 이는 곧 질병 증가와 이산화탄소의 대기 방출로 이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는 이 땅을 보호할 방법을 생각해야만 했다"며 "승려들은 숲 전체의 바깥을 따라 도랑을 파서 경계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번 스님은 시골 마을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출가했다. 그는 태국에서 5년간 수행하는 동안 불교 교리와 환경 인식을 통합 연구하며 환경 보호 운동에 임하는 단체에 머물렀다. 이후 2002년 캄보디아 당국의 숲 보호 정책에 따라 귀국, MCF를 설립하고 오다르메안체이주의 숲 1만8261헥타르의

숲 면적 20년 간 16% 감소

무분별 삼림 벌채 주요 원인

활동가 스님들, 숲 외곽 따라

경계선 만들어 '지킴이' 운동

반대파 협박에도 의지 '굳건'

산림지를 보존하는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번 스님은 2010년 유엔개발계획에서 적도상(Equator Prize)을 수상하기도 했다.

번 스님은 "이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숲의 중요성을 몸소 체감했다"며 "태국은 이미 숲 면적을 많이 잃어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다. 캄보디아는 현재 남은 숲을 다음 세대를 위해 소중하게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승려단체들이 숲 보호 운동에 앞장서는 가운데 불교계 안팎에서 스님들의 활동을 저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또 다른 단체인 IMNSJ 설립자인 번텐 스님은 "숲 보호를 위해 나서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매우 논리적인 일이었다"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번텐 스님은 캄보디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상록림 중 하나인 프레이 랑(Prey Lang)이 벌채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프레이 랑은 3,600㎢ 규모의 숲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20개 식물종과 27개 동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그런데 농장 건축과 불법 벌목으로 인해 숲의 상당 규모가 훼손됐다.

프레이 랑 인근에 살고 있는 산 레스(63) 씨는 "정부는 국가 발전을 위해 벌목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이 '발전'이라면 왜 우리에게 슬픔을 야기하는가"라고 탄식했다.

그는 이어 스님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오랜 시간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의 숲을 구하기 위해 나서주기를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스님들의 환경 보호 운동은 위협받고 있다. 불교계 안팎에서 스님들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감행하는 것. 지난해에는 활동가 스님들의 사원이 경찰에 의해 수색 당했으며, 심지어 캄보디아 승가 교단의 원로 스님조차도 이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나섰다.

비단 스님들뿐 아니라 환경활동가·언론 등이 불법 벌목에 대해 고발한 후 협박을 받거나 사망하기도 했다.

중국정부 불교통제 확대… '국기게양' 실시

전국종교회의서 국기게양 채택 "국가의식 고취"

천년고찰들 경내서 국기게양

온라인상에서 비판 목소리 커



소림사에서 열린 국기게양식의 모습. 사진출처=시사통신사

중국정부가 종교계를 통제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통제가 가시화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의 '더 에폭 타임즈'는 8월 30일 중국의 천년고찰들에서 국기게양식이 실시됐다고 보도했다. 국기게양식은 중국에서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시행되기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과 28일 중국의 천년고찰인 허난성(河南省) 샤오린스(少林寺)와 윈난성(雲南省) 위엔통스(圓通寺)에서 잇달아 국기게양식이 실시됐다. 국기게양은 지난 7월말 베이징서 열린 전국종교관련회의에서 채택된 '종교활동 거점에 국기를 반드시 게양해야 한다'는 제안에 기인한다.

27일 샤오린스에서 실시된 국기게양식에는 허난성 공산당 상무위원, 방장 스융신(釋永信) 스님과 샤오린스 대중스님 전원이 참석했다. 융신 방장은 게양식에 붙여 "애국은 불교에서 일관되게 지켜온 역사적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융신 방장은 중국정부가 공인한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튿날 오전 7시 20분엔 윈난성 쿤밍(昆明)에 소재한 위엔통스에서도 국기게양식이 실시됐다. 위엔통스 방장 쉰파(淳法) 스님은 게양식에 대한 인터뷰서 "애국은 불교의 전통이다. 불제자로서 나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새로운 시대의 승려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중국의 인권변호사 시에옌이(謝燕益) 씨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못 박으며 "사상에 대한 강조와 당국에 의한 통제는 정권의 운영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주로 해왔던 일"이라고 분석했다.

인터넷 상에는 "중국불교는 이미 공산당에 굴복했다" "경내에 공산당지국을 세울 것인가"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세속에서 벗어난 승려들에게 애국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원래 불교정신에서 어긋난 일"이라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실제 4세기경 중국의 고승 여산혜원(廬山慧遠)선사는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을 저술, 출가자와 국가 간의 정교분리를 일찍이 강조한 바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 슬럼가 변화시킨 동네 불상

캘리포니아 우범지역서 범죄율 82% 이상 급감

쓰레기 불법투기 막고자

지역민 화단에 불상 모셔

미국의 한 슬럼가에 부처님 가피가 퍼지고 있다. 지난 8월 28일, 일본의 인터넷 매체 '토카나'는 불상 한 구가 미국 슬럼가를 변화시킨 이야기를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Oakland)시의 11번가와 19번로 사이 지역은 예로부터 우범지대로 손꼽히는 곳이다. 시에서도 이렇다 할 개발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마약밀매와 불법매춘 등이 성행하면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약 5년 전, 이곳에 거주하는 댄 스티븐슨 씨가 집 맞은편 골목에 높이 60㎝ 정도의 불상을 모시면서 변화가 생겼다. 스티븐슨 씨는 "집 앞 골목 화단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고, 꽃을 밟고 다녀 골치였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불상을 가져다 두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상은 지역 잡화점에서 구매했다고 덧붙였다.

놀랍게도 변화는 다음날부터 일어났다. 먼저 불상이 모셔진 화단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사라졌다. 불상 옆에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다른 주민들이 다시 수거해갔다. 불법 그래피티 낙서도 점점 줄어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의 베트남 이주민들이 불상을 참배하러 왔다. 처음엔 작은 과일을 올리고 향을 피우는 정도였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또한 스티븐슨 씨의 이웃인 베트남 이주민 비나 보 씨와 꿉 보 씨는 이를 보고 불상을 관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티븐슨 씨가 허락하자 베트남 이주민 공동체는 본격적으로 불상을 모신 화단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먼저 돌로 좌대를 만들고 불상을 보호하는 지붕을 씌웠다.



오클랜드 슬럼가의 명소가 된 불당. 사진출처=오디티 센트럴

규모는 점점 커져서 작은 불당이 됐다. 새하얀 돌로 만들어진 불상은 이제 개금불사까지 마쳤으며, 불단에는 다른 불상들도 함께 모셨다. 불당엔 '팝 유엔 뚜(Phap Duyen Tu, 法緣寺)'라는 현판도 걸렸다. 현지에서는 '오클랜드의 부처님(The Buddha of Oakland)'라는 이름의 명소로 사랑 받고 있다.

불당이 갖춰지고 사람들이 참배함에 따라 지역의 범죄율도 급감했다. 오클랜드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강력범죄는 14건에서 3건, 폭행사건은 5건에서 0건, 절도는 8건에서 4건, 약물중독과 불법매춘은 각각 3건에서 0건으로 여러 범죄율이 약 82% 이하로 내려갔다.

스티븐슨 씨는 "이제 저 부처님은 나의 것이 아닌 공동체의 부처님이 됐다. 지역의 상징으로 불교도가 아닌 주민들도 불당 앞으로 산책을 나오거나 약속을 잡는다"며 자신이 모신 불상이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기뻐했다. 그는 이어 "처음엔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지만 미국 내에서 각 교파간의 문제가 있기에 부처님으로 선택했다. 부처님이 더 자연스럽고 중립적이지 않느냐"며 웃어보였다.

박영빈 객원기자

아동 15명 성추행해 구속된 인도 승려

국제불교위 "가증스러운 범죄" 강력 비난

인도에서 한 승려가 어린이들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더트리뷴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보드 가야에서 불교학교 겸 명상센터를 운영한 반드 상프리야 수조이(Bhante Sanghpriya Sujoy) 스님이 아동 성추행 혐의로 14일간 구금됐다고 9월 1일(현지시간) 현지 경찰 아닐 쿠마(Anil Kumar)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아쌈 출신 소년 15명이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보내졌다"고 설명했다.

방글라데시 국적의 수조이 스님은 보드 가야의 마스티풀(Mastipur)이란 마을에서 불교학교 겸 명상센터 프라산나 죠티(Prasanna Jyoti)를 운영했다. 이곳에서 피해자 15명의 아이들에게 불교를 가르쳤다.

경찰은 해당 아동들이 스님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으로 당국은 특별조사팀(SIT)를 꾸리고 특별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라지브 미슈라 상원 의원이 밝혔다.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자 국제 불교계의 분노도 확산되고 있다. 국제불교위원회(International Buddhist Council, IBC)는 보드가야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종교 교육이란 미명하에 어린이에게 가한 가증스러운 범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IBC 사무총장은 "진실 규명이 될 수 있도록 SIT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앞으로 모든 수도원 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가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는 승려들에 대해선 IBC 회원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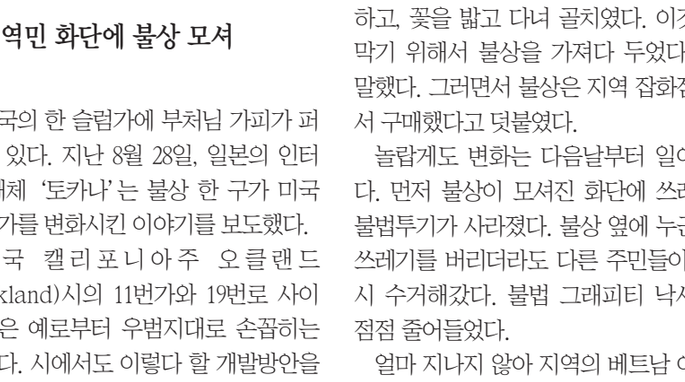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아래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철골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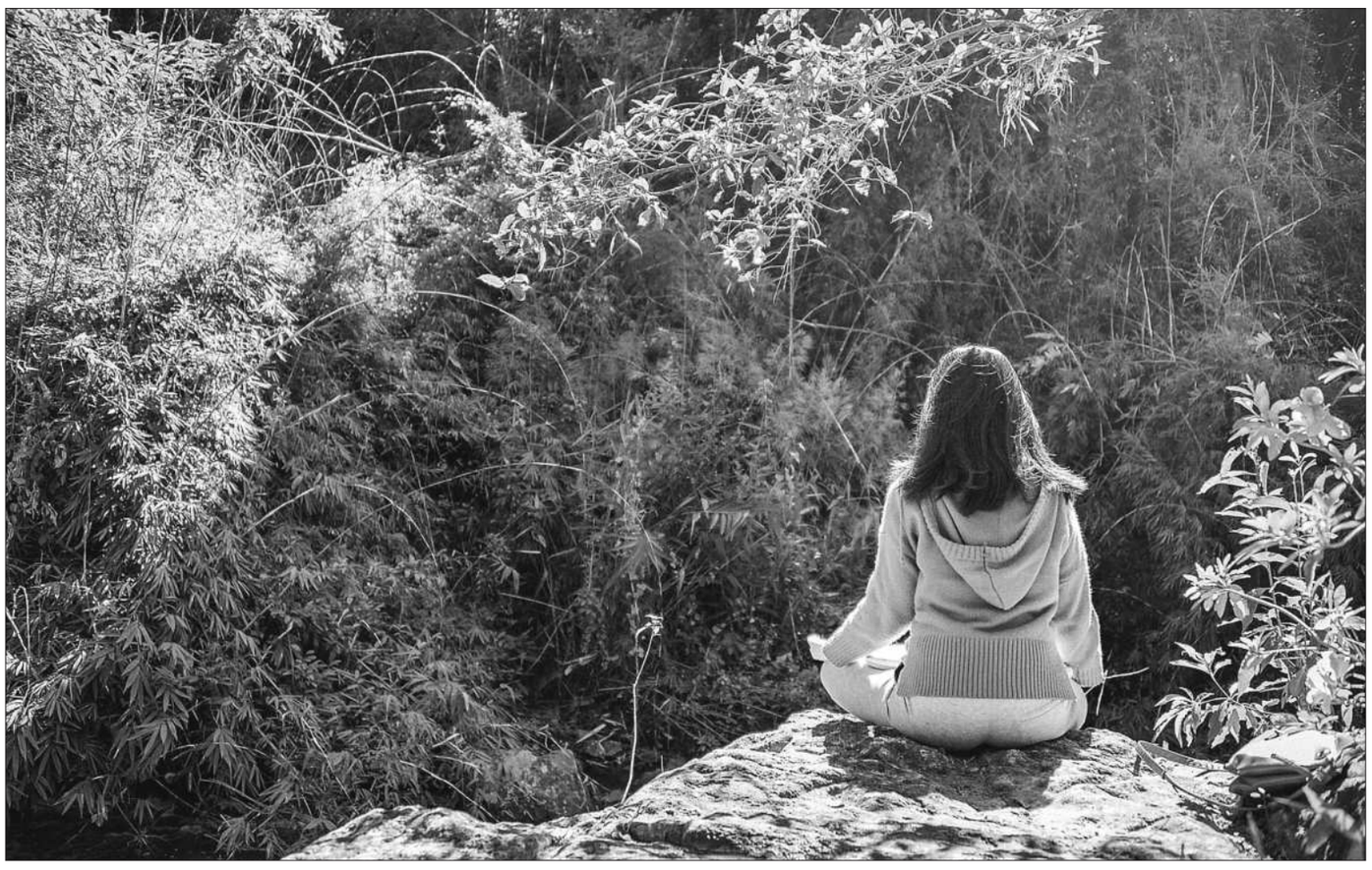
010-3911-1775 / 011-9726-9288



소리 무상함 알면 번뇌 사라진다



지운 스님의 **자비선 명상**



4. 자비경선(慈悲鏡禪)
2) 소리 무상 관찰하기

현대인들은 자연의 소리보다 인위적인 소리에 포위되어 산다. 소리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다. 그 소리에 느낌과 감정이 첨가되고 의미가 부여되고 다른 것과 결부되면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오고가게 된다. 즉, 소리에 언어문자가 입혀지면 현실적 현상은 왜곡과 착각이 일어난다. 그 결과가 긍정적이면 다행이지만 부정적이면 대인관계에서 감정의 골이 패이고 단절하게 된다. 심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아파트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칼부림 같은 현상 등이 그것이다.

언어문자는 대상을 고정시키고 분리시키고 실체를 가지고 스스로 존재하게 한다. 예를 들어, 눈앞에 찻잔이 있다면 "찻잔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보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시각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변화가 없어 보여도 매순간 무상하게 변하고 있다. 찻잔을 바닥에 던지면 부서지고 찻잔이라는 이름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과 다르게 착각과 왜곡되는 것은 찻잔이라는 언어문자와 관계가 있다. 이름으로 이루어진 찻잔은 던져도 깨어지지 않는다. 찻잔이라는 말과 찻잔이라는 사물은 별개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언어문자는 단지 의사소통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언어문자가 인식대상이 되면 이름있는 사물은 고정되고 분리되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인다. 분리 독립되어 보이는 것은 언어문자의 성격이 '타자를 부정'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 가게에 싱싱한 사과가 있다' 고 하면 다른 가게에는 싱싱한 사과는 없다는 뜻이 된다. 싱싱함을 빼고 '사과가 있다' 고 해도 다른 가게에는 사과가 없다는 뜻이 된다. 언어문자의 타자에 대한 부정은 인식대상이 변하는 데도 고정 · 독립되어 보이고, 상호 의존하는 데도 분리되어 보이고,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한 데도 실체를 가지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언어문자를 인식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면 소리에 감각과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고 의미부여하는 언어문자화부터 멈추어야 한다. 언어문자와 내적인 언어인 생각이 인식대상이 되면서 일어나는 왜곡과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은 언어문자가 인식대상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소리의 무상부터 관찰하는 것이다. 궁극에는 〈능엄경〉에서 설하는 반문문자성(反聞聞自性)의 경계까지 가는 것이다.

소리 따라 청각의식 확장

① 소나무에 기대거나 앉아서 명상자세를 취한다(坐鏡禪).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깨에 힘을 빼고 허리를 펴준다. 눈을 반쯤 감고 시선을 코끝에 둔다.

② 눈을 감고 새소리 등 여러 소리를 듣되 가까이 들리는 소리를 먼저 듣고 차츰 멀리 들리는 소리를 듣는다. 의식이 먼 소리를 듣는 데까지 확장됨을 의식한다. 확장된 청각의식 그 상태로 가만히 머문다.

③ (알아차림에 의해서)전체를 듣고 있는 가운데 부분들도 함께 동시에 들린다.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마음 거울이 생김) 집중하는 모습에서 발전하면 소리까지 보이기 시작한다.

소리의 부분과 전체를 동시에 듣는 것은 청각의식의 확장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와 부분의 동시 들음이 대상과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과 하나 됨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견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과 하나 되는 합일은 대상과 동일시하는 것이며, 대상과 동일시하는 것은 대상의 좋고 나쁨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심을 낳는다.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하므로 본래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다. 대상과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은 망상이다. 둘째, 대상과 하나 되기 위해 감정이입하는 것은 알아차림이 동반되지 않으면 대상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 마음도 따라 흔들리게 된다. 셋째, 사물의 무상, 상호의존적 이치를 망각하기 때문에 무지하게 된다. 무지하면 탐욕과 분노가 일어난다. 그런데 의식이 확장되어 의식의 공간이 넓어지면 굳이 병의 원인을 찾아 없애지 않아도 불안 증세나 우울증 등 정신장애 현상이 완화된다.

인위적 소리 둘러싸인 현대인
소리로 인한 스트레스 늘어나
소리를 소유할 수 없음 알면
흔적 없는 '텅 빔' 깨닫게 돼

소리의 무상 관찰해 깨어있기

가까운 곳[내 몸에서 나는 소리까지 포함]과 먼 곳의 소리를 동시에 들으면 의식이 확장되어 지금 이 순간에 멈추게 되고 깨어있게 된다. 깨어 있어 분별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면 좋은 소리, 나쁜 소리의 구분이 없어진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① 일상생활에서 듣는 것처럼 좋은 소리, 나쁜 소리를 습관적으로 구분하면서 분별한다.

② 가까운 소리, 먼 소리를 동시에 들음은 좋은 소리, 나쁜 소리 구분이 없어진다. 이것은 무분별에 의해서 일어난다.

③ 소리의 무상을 관찰하면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모두 변함을 알면서 구분이 없어진다. 변함을 아는 지혜에 의해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④ 소리의 무상에 실체가 없음을 알면 좋은 소리, 나쁜 소리 구분이 없어지고, 무상 속에서 모두 실체가 없음을 아는 깊은 지혜가 생긴다. 즉, 소리의 무상함 속에서 자아 없음과 자성(自性) 없음을 아는 지혜가 생긴다. 그 지혜가 곧 자기마음임을 자각하고 그 마음에 집중해 들어가면 마음의 본성인 본래면목을 깨치게 된다. 이제 실천해보자.

머묾 없음에 머물기

나무에 의지하여 잘 들리는 소리 하나를 대상으로 하여 관찰한다. 소리를 잡을 수 있는지 머물게 할 수 있는지 시험 삼아 시도해본다. 만일 소리를 소유할 수 없음이 분명해지면 소리로부터 자유로워짐을 체험할 수 있다. 20여 초 시도한 후에 다시 과거의 소리는 지나가서 없음을 관찰하고 특히 소리가 되돌아오는지를 살펴본다. 미래의 소리는 오지 않아 없음을 살핀다. 과거의 소리도 없고, 미래의 소리도 없음을 알고, 현재 소리도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음을 살피고 소리의 머묾 없음에 머물러 본다. 머묾이 익숙해지면서 의식은 과거와 미래로 흐르지 않고 현재 순간에 깨어있게 된다.

이렇게 소리의 무상을 알아차리는 명상을 계속하게 되면 상대로부터 빈정거림을 받고 비난받거나 화난 소리를 들을 때 올라오는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러나 소리 속에 있는 감정이나 의도가 먼저 본인의 감정을 자극할 때 본인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 이때는 소리의 무상을 알아차리는 명상의 힘이 소리의 무상을 알아차리게 한다.

이 명상의 힘은 누가 비난을 하거나 분노를 터뜨리는 소리에 들어있는 상대의 감정과 의도를 알아차리게 하고, 그 감정과 의도도 무상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소리와 감정과 의도가 무상이라는 이치를 이해하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현재 순간에 깨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스트레스를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소리의 무상 관찰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 명상하고자하면 다음 단계를 이어 명상하면 된다.

마음의 텅 빔 체험하기

소리의 머묾 없음에 머무는 명상을 익숙하게 한다. 익숙해지면서 머묾 없음에 머물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익숙하게 되어갈 때 일상생활에서도 대상에 반응하는 감각, 감정, 생각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게 된다. 마음은 차분해지고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한다.

다음은 머묾 없음에 머물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한다. 이제 비로소 반문문자성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면 몸에 진동이 일어나거나 밖의 소리가 차단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집중이 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때 머묾 없음에 마음이 머물 때 소리의 흔적이 없는 '텅 빔' 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면 마음의 본성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본성이 무생불변임을 깨닫기

소리가 지나가면서 매 순간순간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흔적 없는 그 텅 빔을 알아차리는 마음만 있을 때, 텅 빔을 알아차리는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면 밖의 모든 경계도 찾을 수 없고 마음의 모습도 없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된 마음이 심불견심(心不見心)의 시작이다. 주객이 한 덩어리 된 상태는 선가(禪家)에서는 타성일편(打成一片)이라하고 경론에서는 심일경성(心一境性)이라고 한다. 그 다음 단계는 마음이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평정상태가 유지되는 선정이 일어나며, 선정 속에서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한 경안이 생긴다. 이 경안이 생기면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비 오고 난 뒤의 맑은 하늘과 같은 마음상태가 된다. 또한 한 덩어리의 마음에 자유롭게 머물기가 된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한 덩어리의 마음만 있는 그 마음에 집중하여 살펴볼 때 순간순간 마음은 사라지면서도 존속함을 알아차리게 된다. 마음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불연속의 연속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쯤 되면 마음이 죽지 않음을 이해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한다.

여기서 다시 마음을 과거 · 현재 · 미래로 나누어 관찰한다. 과거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그 경계에 이르면 머묾 없음에 머물고 있는(有住) 마음도 무주(無住)가 되면서 마음의 본성이 무생무멸하여 공적하며 조작이 없는 본래면목임을 깨치게 된다. 이 공적한 마음이 번뇌망상을 만나면 번뇌망상을 없애는 힘으로 작용하며 이 공적한 마음을 마치 진금(眞金)을 단련하여 장식구를 만들 듯이 법신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깨닫는 수행이다.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선원장〉

승가전통 건강비법
마 가 목(원탕)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 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 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영남범패
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5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아 래
▸ 개강일시 : 2018년 9월 20일 (목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달전사 (경남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 778)
▸ 수 강 일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① 사십구재의식 이론 및 실기
② 사물 다루는 법
③ 바라 및 착복무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 교재비 별도 >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문의전화 : 055) 587-8419

사) 대 한 불 교 불 음 원
원장 원명 합장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맛의 생나 효모 밥죽 순
콩단백 죽 콩고기
몸 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1,0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5,000원 (25인 분량) 국내기술로 만든콩단백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영양성분표 : 수분 10%이하, 탄수화물 28%내외 단백질 60%이상
지방 3% 이하, 총열량 360Kcal 이하
특 수 성 분 : 폴리페놀 2.793mg/kg, 사포닌 1,807 mg/kg,
베타글루칸 1,233 mg/kg
효모밥죽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12만원
• 깨끗한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샘나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로 158(오류동) 블루텍공존 3층 312호 ㈜샘나
농 협 301-0222-8806-71 [예금주 : ㈜ 샘나]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 샘나]



대행 스님

자성불(自性佛)이란 바로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주인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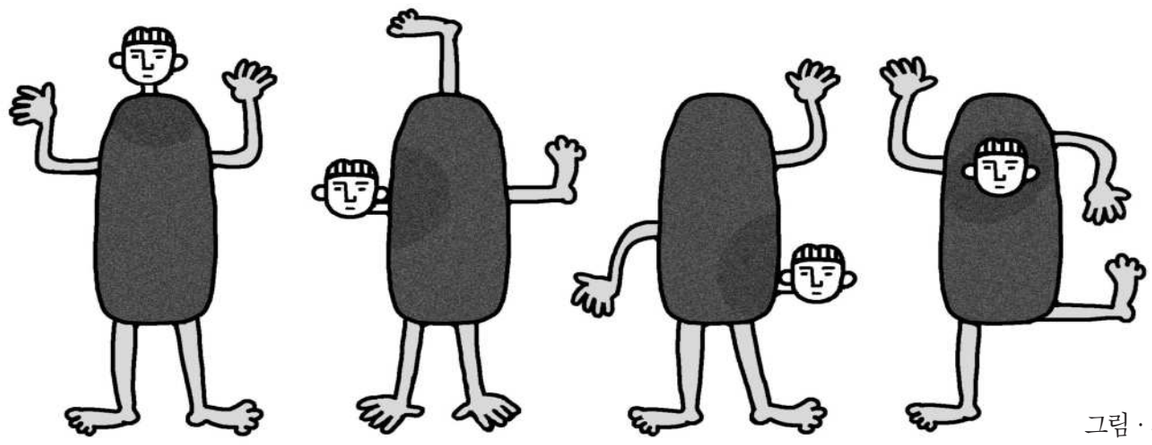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성이 어디에 있나요?

질문 스님께서는 항상 내 마음 안에 스스로의 성품이 본래 갖추어져 있으니 그 자성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저의 마음 안에 있다는 저의 성품을 온전히 느끼지 못한 채 생각으로만 알고 있기에 진짜 맡기지 못하고 헛바퀴만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연적으로 있다는 자성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고, 어떻게 확고부동하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내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신이 선다면 진짜로 믿고 맡길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 저의 자성이 확실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느낄 수 있는지를 상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리는 일면 생각하고 뛰면서, 뛰면서 생각하면서 집어먹고, 집어먹으면서 뛰고 이러는 세대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뜻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물질로써의 과학도 문화도 모든 게 발전이 돼서 우리 머리는 그때와 지금이 다릅니다. 그러니 오늘 요 대낮에 잠시 잠깐 빛이 비추는 걸 여러분이 아시죠. 어저께 밤에 또 주무셨죠. 매사 다 건건이 아시면서도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그 아시고 계신 그 자체가 자성(自性)입니다. 그래도 모르신다고 하시겠습니까? 불성이 어딨느냐고, 내놔 보라고 막 이러겠습니까?

이 점에 뒷받침이 될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오조 홍인 선사가 육조 스님이 행자일 때 삼경(三更)에 들라고 해서 금강경을 설하시니 그 끄트머리에 대답한 육조 스님의 말이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 여러분이 나보다도 아마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뜻이 있습니다.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말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래! "자성은 본래 생멸(生滅)이 없는 것을 어찌 알았으리까?" 그 '본래'가 참 중요합니다. "자성이 스스로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자성은 움죽거림이 없이 만법을 들이고 내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이겁니다.

아마 내가 틀렸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뜻은 똑같습니다. 예전에 들은 얘깁니다마는 그걸 듣고서 참, 여러분도 모두 감지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직껏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알고 있는 자성이 누군 줄을 모르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본래 스스로 갖추어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들이고 내는데 말입니다. 손색이 없고 여여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잘못되고 잘된 걸 다 놔라 이랬습니다. '잘못되고 잘되고, 좋고 나쁜 걸 아는 거는 다 놔라.' 잘못되는 것도 나오고 잘되는 것도 나오고, 잘하는 것도 나오고 못하는 것도 나오고, 높은 것도 나오고 얕은 것도 나오고, 일체 평등하게 거기에서, 그르고 옳은 게 다 거기서 나오니, 나오면은 바로 나오는 대로 재깍 자기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또.

나오는 것도 알고 들이는 것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성이. 그 자성(自性)의 원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다 싼다 해도 두루 할 수 있는 그런 광대무변한 자리다 이겁니다, 자성자리가. 일체제불이 같이하고 있고, 일체제불이 있는 자리에는 일체 중생이 다 같이하고 있다 이 소립니다. 이 말을 20년, 30년 이렇게 되풀이하게 만들어야 합니까? 되풀이를 하되 그 되풀이하는 말이 끝이 없군요. 그 뜻을 아시란 말입니다, 뜻!

본래 청정하다. 자성은 본래 청정한 걸 알고 있는 거죠. 청정한 걸 알고 있는 그 자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고정됨이 없이, 청정한 거는 깨끗한 게 청정한 게 아니라 구정물, 더러운 물, 고름물, 핏물 다 한데 합치는 것이 청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고정됨이 없이 한 찰나에 나투면서, 즉 윤회라고 해도 되죠. 반복하면서 제자리걸음 하면서 그저 찰나찰나 바꾸어 돌아간다.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고정됨이 없어요. 만남도 고정됨이 없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먹는 것도 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이 육체를 가지고 지금 살고 가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그게 청정이라 한다. 그걸 거름 삼아서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청정이라고 한다. 알고 있는 그 자체가 자성이다, 밝다, 지혜로워야 된다, 그 밝음을 깨닫는다. 이런 말을 나뿐만 아니라 수차에 거듭거듭 선조께서들 말씀하셨습니다. 사대 성인도 말을 했고요.

지금, 천장에 등이 있습니다. 등이 있는데 등대 자체가, 예전에 선조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등대라고. 지금은 등잔이 아니라 전구가 있어서 불이 들어오죠. 이런 것도 바로 저 등대를 내놓을 자리가 있어야 내놓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몸뚱이는 등대와 비유했고, 마음은 등불에 비유했고, 또 믿음은 심지를 비유했고…. 즉 말하자면 계행(戒行)은 기름으로 비유했고. 여러분 나보다 더 잘 아시죠. 지혜는 밝음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등대가 없었더라면 등잔을 어찌 매달아 놓느냐? 그러면 이 등대 자체, 몸뚱이가 화두인 것입니다, 화두! 그대로 전구도 저렇게 걸어 놓아지고 그 속에 선도 있고 밝음도 있고 전력도 있고. 기름을 계행이라고 했으니 전력을 말한 거죠, 지금으로 비유한다면.

그런데 얘기를 하면은 말만 듣지 마시고, 다섯 가지고 네 가지고 한데 합쳐서 공존하고 있다 이겁니다. 공존하고 있어요. 따로따로 이름은 있으되 공존하고 있다. 눈과 귀가 따로따로 있고 이름도 따로따로 있으나 눈 간 데 귀가 가고 귀 간 데 눈이 속해 가더라. 또 무슨 시각이니 청각이니 감각이니 촉각이니 하는 말들도 말일 뿐이지 같이 혼합해서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척 보면 척 돌아가, 벌써.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이 우는 걸 보면 '아, 슬프구나.' 이렇게 척 돌아가니까 시각이다 감각이다 할 것도 없이 그냥 돌아가죠. 그 말은 벌써 뒤돌아가 버려요. 생각하고 난 뒤에 말은 돌아가니 그 말이 무슨 필요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또 말을 하자면 시각을 통해 거쳐서, 감각을 통해 거쳐서, 청각을 통해 거쳐서, 촉각을 통해 거쳐서 두각을 통해서 심장으로 깊이 들어서 불성으로 규합이 돼서 타파가 된다, 돌아간다, 회전이 된다, 발끝까지 회전이 된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죠. 그것도 옳은 말입니다.

허나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것은 우는 걸 봤으면 '어이구, 저거 왜 울까.' 하다가 벌써 주위의 환경을 보면 슬퍼서 우는지, 기가 막혀서 우는지, 또 반가워서 우는지가 척 들어온단 말입니다, 벌써. 그렇게 척 들어와 알고 있는데 구태여 그 말이 무슨 필요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을 하기 이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체의 자성, 그 자성은 묘각이라고 할까요? 아주 묘해서 여러분이 그대로 지금…,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죠. "마음을 좋게 가져라. 생각을 좋게 해라. 꿈을 꿔서 언짢더라도 좋게 생각하고 놓으면은 그대로 회전이 돼서 보이지 않는 50%에서 보이는 50%로 나온다. 그대로 믿고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이 말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내 말은 단 한마디라면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당신네들이 모두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간다는 그 자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생멸도 없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만법을 스스로 갖춰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내고 들이고 자유자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자재하고 있는 그 자체를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볕이 나고 지금 낮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진실하게 믿고 '자성불(自性佛)이란 바로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그랬구나.' 하는 것을 믿으세요, 좀. 믿고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놓고 생각을 좋게 해라. 안 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게 어딨나? '안 되게 한 것도 거기서 한 거고 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한 건데 이번에는 되게 하겠지.' 되게 하는 것도 안 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니깐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되게 해 달라지 않아도. 그러니 더 잘 알고 있는 놈이, 자기가 지금 되고 싶어 하는 거를 자성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다시 돌아서 회전이 돼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 '되게 해 주시오.' 이럴 필요도 없죠, 알고 있으니까. 말로는 "난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아이, 고것 좀 가졌으면….' 이러거든요. 허허허. "난 그렇지 않아." 하면서도 '고거 잘생겼는데.' 요러거든요. 그것이 바로 자성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고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자성이 알고 있죠. 그러니 '믿지 못하지.' 하지 마시고 믿고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해서, 자주 이성계 얘기 했듯이 죽을 꿈을 꿨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어허, 죽는 것 사는 것이 따로 없는데 어찌 죽을 게 있노!', '아, 좋은 일 생기겠구먼.', '승진하겠구먼.' 용도에 따라서 딱 생각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냥 밀어 던지세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 자성을 믿고 놓을 수 있고 생각을 잘해서 놓을 수 있다면, 회전이 돼서 50% 안 보이는 데서 50% 보이는 데로 나온다면 우리는 사람답고 흥겨웁게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성 자리는 본래부터 청정하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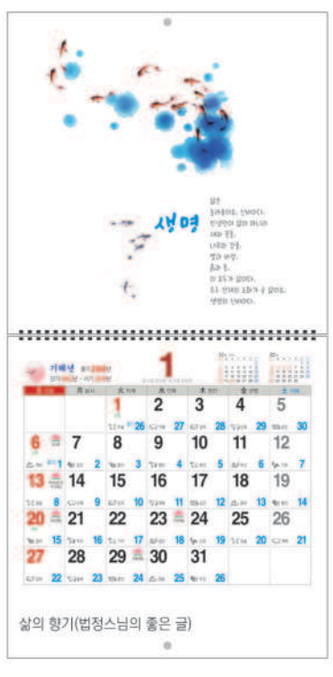
질문 인간의 마음은, 본성 자리는 본래부터 청정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마음을 닦아야 하는지요.

답변 그것이 닦아야 한다는 언어도 사실은 우매한 거죠. 닦아야 한다고 했는데 닦는 것

☞ A18면으로 계속

착한 가격 높은 퀄리티의 2019년 불교카렌다 품질이 확실히 다르다!!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으로 카렌다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삶의 향기(법정스님의 좋은 글)



부처님과의 소통(사찰의 옛 다리)



동승의 행복



지혜동자



연꽃향기



동승이야기



민족의 산하



법승이 깃든 산사

위 카렌다 외에도 총16종의 카렌다가 있습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 미소 / 우리말로 풀어 쓴 반야심경 / 세계불교 명찰 / 심우도 사구게 / 관음응신도 / 운봉스님의 달마도 / 산사에 피는 야생화

삼보불교카렌다 T. (031) 732-9905 F. (031) 732-8972
www.samboca.c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로그를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카다로그나 샘플 발송을 요청하시면 보내드겠습니다.

삼보불교카렌다 임시 할인가 보급 단행

500부 이상 6절 1400원 12절 1100원 보급기간 2018.8.16~10.15

6절 (305×306)	정가 1,800원	1,4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6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500원 2,000부 주문시 1,300원
12절 (255×260)	정가 1,600원	1,1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3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200원 2,000부 주문시 1,000원
미니스프링 (90×98)	정가 800원	할인가 600원
미니 수첩 (90×130)	정가 1,000원	할인가 700원
비닐캡 (90×160)	정가 800원	할인가 400원
탁상카렌다 (260×190)	정가 2,500원	할인가 1,800원(금박인쇄)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 보는 법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아래 eBook 바로보기를 클릭

삼보불교



삼보 2019년 불교카렌다 카다로그
새창에서 eBook 바로보기
바로보기를 클릭하시면 eBook 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도리를 알고 보면 언덕 넘어갈 것도 넘어올 것도 없어!

☞ A17면에서 계속

이 뭡니까? 여러분이 모두 살고 또 죽고, 뒤집어졌다 바로 됐다 이렇게 하는데 뒤집어지고 바로 되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대로 생동력 있게 살아나가고 있고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닦는다 하는 거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용도에 따라서 닥쳐오는 대로 재료로 삼고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닦는다고 해도 닦을 게 있어야 닦죠. 본래 닦을 것도 없고 먼지 앉을 것도 없고 옮겨 놓을 것도 없고 옮겨 놓지 않을 것도 없어요. 단 하나, 자기 마음으로 먼지를 붙여 놓고 떼려고 애를 쓰고, 구멍을 뚫어 놓고 메우려고 애를 쓰고, 마음으로 지어 놓고 마음으로 그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 마음으로 지은 것이 거죽으로 항상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사람이 물질적으로 만든 컴퓨터는 모두 입력을 해서 쓰지만 우리 살아나가는 거는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요. 그래 "오신통이 바로 컴퓨터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동적인 컴퓨터! 이것이 자동적으로 입력되니까요. 행하고 말하고 살아나가는 그대로 그냥 입력이 돼요.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동적인 오신통이라는 그 자체가, 즉 자동적인 컴퓨터가 바로 여러분 각자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로 또 나오는 거거든요. 하여튼 지금 닦는다 안 닦는다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그냥 여여하게 그대로 살아나가는 게 그대로 그놈이 하는 거구나. 보고 듣고 들이고 내고 하는 것이 전부 그 한 놈이 하는 거로구나.' 하고 믿고 생각을 잘하세요. 꿈을 잘못 꾸어도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 꿈을 잘못 꾸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어, 이거는 꿈을 꾸게 하는 것도 너니까 꿈을 잘 꾸어서 지금 현실에 잘되게 하는 것도 너다.' 이러고 쓱 돌려놓으란 말입니다. 그게 닦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지식들처럼 될 수 있는지요

질문 일찍이 한암 선사께서는 "탐진치 삼독만 멀리하면 성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앉은 자리에서 바로 부처가 된다." 하셨습니다. 달마 조사께서도 "진성(眞性)은 조금도 어두운 바 없이 항상 밝고 자재하건만 중생이 스스로 생사고(生死苦)를 짓고 자기가 받는다. 마음 가운데 망념만 여의면 본래가 부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암 스님이나 달마 조사와 같이 될 수가 있는지 가르침을 바라겠습니다.

답변 그거 걱정 없어요. '삼세, 삼심, 삼독' 이런 것이 과거 미래로 인해서 현재,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이렇게 죽는 순간과 나올 수 있는 순간의 교차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미래가 오늘이죠.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되면 바로 삼세가 되고 삼심이 되니까 삼심이 그 무명을 벗지 못하고 인과를 벗지 못하면 바로 삼독이 되는 거죠. 삼독은 바로 현실의 일심 속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독을 어디서 빼내느냐? 그 모두, 지금 내가 작업하라는 대로 그렇게 관하시고 모든 걸 용광로에 넣듯이 거기다 놓으시면 바로 삼독이 무너지는 겁니다. 삼독이 무너지면 그대로 부처요, 그대로 법신이요, 그대로 화신이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소를 하나 건진다, 무명을 벗겨 준다 하더라도 그냥 소의 마음을 나와 둘이 아니게 딱 한데 합치면 두드러지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형체가 없는 거니까 두드러지지 않고 그냥 나로 돼 버리는 거죠. 나의 그 속을 거쳐서 바로 탄생이 된다 하면은요, 꺼내도 줄지도 않고 넣어도 두드러지지도 않는 격이죠, 체가 없는 거니까요.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드려서 될까 모르겠네요. 허허허….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바로 나고 드는 것이 없죠.

> **관하시고 모든 걸 용광로에 넣듯이 거기다 놓으시면**
> **바로 삼독이 무너지는 겁니다.**
> **삼독이 무너지면 그대로 부처요, 그대로 법신이요, 그대로 화신입니다.**

나고 드는 게 없이 내 마음이 항상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합류화돼 가지고 돌아가는 게 사무 사유(四無四有)를 한데 합쳐서 중용을 한다는 격이 되죠.

그러니까 그대로 앉아서 소의 무명을 벗겨 줘도 아프지도 않고 그냥 금방 죽어요. 그리고 죽으면 껍데기가 없어지는 거죠. 무명이 벗겨지고, 그 영혼은 내가 돼 가지고 바로 환생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즉시에 무명이 벗겨지는 거죠. 어떤 때는 지나가다가 도살장에 가는 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에 그냥 그렇게 해 줘요. 그러면 소의 머리를 방망이로 쳐도 아픈 걸 느끼지 않아요. 그러고 무명을 벗어요. 돼지든지 닭이든지 모두가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들을 맺으세요. 악한 인연을 맺지 말고 좋은 인연과 선덕을 쌓아서 바로 선의 씨로서 이 세상을 두루 한다면 내가 고달플 때 모두 같이해 주고 모두 같이 들어 줄 수 있고 이렇습니다.

마음에서 다 창조를 하나요?

질문 심성(心性)을 빼놓고는 과학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마음에서 다 창조를 하나요?

답변 그렇죠. 마음이 떠나고는 절대 이거는 허용되지 못하니까요. 이 마음으로 인해서 보는 것도 보고, 동시에 보고 듣고 말하고 몸을 움죽거리고 이러죠. 근데 그 마음이 말입니다, 자유스럽게 살라고 그 많은 말들을, 그 많은 생각들을 다 자유롭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생각지 못하고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해요. 마음 빼놓고 뭐 있을까요? 허허허.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세계, 지금 우리가 사는 데 중세계, 하세계 이렇게 삼 세계가 같이 돌아가고 있죠. 마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높아지고 차원이 얕아지고 차원이 아주 저 밑으로 떨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모습도 그렇게 나오죠, 그대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도 각자 자유권을 얻기 위해서 누가 그거를 말해 주기 이전에 모두 알고 있어야 되겠죠? 누가 대신 잠을 자 주고, 누가 대신 먹어 주고, 누가 대신 똥을 눠 주고, 누가 아파 주고, 누가 죽어 주고, 누가 깨닫게 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정수의 자동적인 컴퓨터라고 얘기했죠? 그건 자기 차원에 따라서 입력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내가 산다. 내가 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먹었다." 이렇게 말씀들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 몸뚱이 속에도 생명체들이 잔뜩 들어 있는데 어떻게 물을 먹었는데 내가 혼자 먹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더불어 같이 먹었죠.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체들은 나에게 또 작용을 해 줘요. 그러니까 항상 더불어 에누리가 없어요. '내가 주면 받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생각을 건전하게, 즉 말하자면 둥글게, 좀 밝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대로 입력이 된 거니까 그대로 현실로 나오는 거예요. '난 이거 할 수 없다. 나는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요거는 할 수 있는데 요거는 할 수 없다.' 이런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못하죠. 여러분한테 자유스럽게, 마음도 말도 생각도 자유스럽게 줬는데도, 고등 인간으로서 자유스럽게 쓰라고 했는데도 자유스럽게 쓸 수가 없죠, 여러분은.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뭐….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몸이 움죽거리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요, 내 이 정신계의 보이지 않는 자기는 무한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인공에 '진짜 너만이 이 몸을 푸르게 살게 할 수 있다. 너만이 이끌어 줄 수도 있고, 너만이 해결사가 돼 줄 수 있고, 아프면 의사도 돼 줄 수 있다.' 하는 거를 오직, 자기 이 몸이 싹이라면 자기 뿌리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말을 하고 또 그게 맞고 그게 진리고 그게 사람 사는 본의라면 모두가 좋아요. 모두가 좋은 거예요. 인간하고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날아다니는 새하고도 말을 할 수 있고, 꽃하고도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소를 건지는 데는 내가 소가 돼야, 내가 소 속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소를 건질 수 있다고요.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소로 태어났으니까 소의 고기는 사람들이 먹어서 약으로 쓰고, 소의 영혼은 건져서 인간으로 형성시킨다' 이거죠. 갖은 각색으로 천차만별의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풀 수는 없고 한꺼번에 알 수는 없으니까 차차 아시도록 하세요.

세존유산범찰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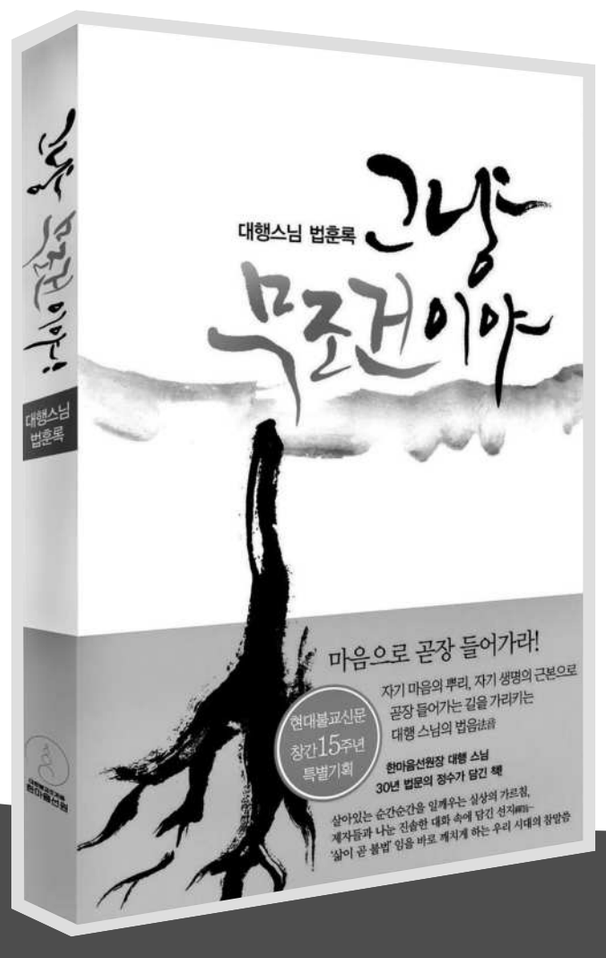
질문 『선리채근』에 나오는 '세존유산범찰(世尊遊山梵刹)'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한 때 부처님이 사부대중을 거느리시고 어느 산을 지나가시다가 한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좋은 명당이니 이곳에 큰 범찰을 하나 지으면 좋을 것 같다." 하시니 제석천왕이 앞에 나타나서 풀 한 포기를 땅에 꽂고는 "범찰이 다 지어졌습니다." 하니 부처님이 빙그레 웃으셨다고 합니다. 웃으신 뜻이 무엇인지 또 제석천왕은 무슨 뜻으로 땅에 풀 한 포기를 꽂았는지 가르침 주시길 바랍니다. 그 제석천왕의 법거량이 벽지불의 경지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경지인지, 저희들이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되게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처님이 여기다 절을 짓겠다 한 것도 그놈이 한 것이고, 제석천왕이 풀 한 포기 꽂은 것도 그놈이요, 사찰을 지은 것도 바로 그놈이요, 웃은 것도 그놈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벌써 이 풀 한 포기 딱 꽂을 때는…, 제석천왕이라는 것은, 비유를 하면 선생님 몸 안에 선생님이 많이 들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이 제석천왕이 아닙니까? 혼자 사찰을 짓는 게 아니죠? 사과 하나를 잡숴도 혼자 먹지 않죠? 여러 명이 먹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석천왕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체제불의 마음, 그 일체 중생의 마음이 한데 합쳐진 거를 제석천왕이라고 합니다. 천왕이거든요. 이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풀 한 포기 딱 꽂았다 하는 건 생각을 딱 거기다가 집중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음이 집중을 한 거죠. 한마음이 집중을 하니까 그 사찰이 그대로 지어졌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빙긋이 웃었다. 바로 그놈이 그놈이요, 그놈이 한 거니까 그냥 웃는 게 대답이죠, 뭐. 그러니까 혼자 웃은 게 아니죠, 또 그것도.

아, 여러분! 말이 났으니 말이지 지금 끄떡끄떡하는 것도 혼자 끄떡거리십니까? 하하하…. 아니, 혼자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 먹는 것도 없고, 혼자 입는 것도 없고, 혼자 사는 것도 없고, 혼자 일하는 것도 없고, 혼자 사랑하는 것도 없고 전부 헤아릴 수 없는 자기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자기가 그렇게 나투기 때문에 아버지로도 나투고 또 남편으로도 나투고 또 형으로도 나투고 아들로도 나투고 사위로도 나투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투는데 한 몸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 얼굴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 얼굴을 한 몸에다가 수없이 해 놨죠. 손으로 천차만별의 일을 다 하죠. 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거 할 때 내 손이 했다고 할 수 없으리만큼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에 있는 나도 얼마나 많습니까? 수억겁 광년을 내려오면서 미생물에서부터 이 인간으로 화했다는 걸 알고 싶으면 내 속을 들여다봐라 이겁니다. 증명서가 바로 여러분 몸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그 도리를 넓히면서 알면서 이렇게 해야 어디 가든지 서슴없이 팍 쪼개서 맛을 보고 먹고, '아! 참 맛 좋고 시원하다.' 이렇게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먹고도 그 씨는 되남아서 이듬해 또 먹어요. 그러니 아주 영원토록 먹는 거죠. 이 도리가 얼마나 광대하고 묘하고 영원한지 모를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요, 이 정신세계의 마음을 못 배우면요, 영혼이 죽어서 말입니다, 죽어서 아휴, 자기 몸체가 있는 줄 알아요. 옷을 벗었어도 벗은 걸로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못 가고, 불에 타 죽을까 봐 못 가고, 또 귀신들 많고 짐승들이 많은 데는 잡아먹힐까 봐 못 가고, 이렇게 넘어서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했고, 부처님께서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저 언덕을 넘어서야 하느니라." 하셨는데, 이 도리를 알고 보면 언덕을 넘어갈 것도 넘어올 것도 없단 얘기죠. 그 도리를 알면 산 부처죠. 산 법신이고요. 가만히 있으면 산 부처고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이고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이에요, 그냥요.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혐오 키우는 언론 보도 '유감'



이화행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男76%, 女86% '혐오 심각' 응답
혐오, 대상 비하해 차별하고 배제
불평등 따른 분노 약자들에게 표출

언론 보도 대안보다 갈등만 조명
본질 분석한 기사는 찾기 어려워
갈등 관련 보도는 대안 제시 방점

불자들은 진실한 말 실천 노력해야
미래에 혐오사회 아닌 불국토 전해

탐진치. 불교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3가지 번뇌로서 탐욕, 노여움, 어리석음이다. 이 3가지 번뇌가 중생을 해롭게 하는 것이 마치 독약과 같다고 하여 삼독이라고 한다. 중생을 생사의 윤회 속으로 빠뜨리는 근원이자, 중생의 고통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으로 해석되는 게 삼독이다. 삼독을 제거하면 고(苦)를 떠나서 열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불자로서 열반의 경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를 최소화하고자 수행의 의지를 불태우지만 자꾸 삼독의 그 두 번째 것, 진을 녹이는 것을 우리 사회는 쉽사리 허용하지 않는 모양새다. 진은 마음에 맞지 않는 상대와 대상을 미워하고 성내며 분노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시기와 증오가 용광로처럼 끓어 넘치는 혐오현상이 곳곳에서 뚜렷이 목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86%, 남성 76%가 각각 우리 사회의 혐오표현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우월주의 사상을 가진 한국 남자를 지칭하는 '한남충', 청소년 집단에 대한 '급식충', 노인을 겨냥한 '틀딱충' 등의 표현은 대상을 벌레로 비유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워야 하는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또한 혐오표현은 대상을 비하함으로써 그들을 단지 분노하게 하려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의도가 대상을 차별하고 배제하려 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위협과 불안을 가져다준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따라서 혐오현상은 그저 감정조절에 실패한 개인들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며,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민주사회를 위협하는 현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런 집단적 혐오 현상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사회학자들은 경쟁이 심화되는 사회구조를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불평등의 심화로 경쟁자들을 견제 대상으로 간주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그들과 약자들에게 표출하게 된 것이 혐오현상의 배경이라는 것이다.

언론학자로서 필자는 혐오 확산의 원인이 잘못된 언론의 보도행태에도 있다고 본다. 원래 각종 혐오 표현의 발상지는 인터넷이다. 여성 혐오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부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남성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은 혐오발언의 온상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는 속성상 소수의 마니아가 지배하는 공간이어서, 이슈의 확장성 면에서 제한적이다. 온라인 기반의 이슈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것은 제도권 언론을 통해서다. 이 갈등적 이슈가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이 어떻게 혐오이슈를 다루어야하는가가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혐오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는 갈등 측면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있어서, 과장적이고 선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혐오 문제의 본질에 대한 분석적 보도, 혐오 현상에 대한 대안 제시는 찾아보기 힘들다. 혐오 표현의 문제와 같은 사회갈등적 이슈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분석과 해설을 통한 대안 제시에 방점을 두어야한다. 이것이 언론이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서 성숙한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진실한 말을 하면 진언이 되고 하치않은 말을 하면 구업(口業)이 되도다." 우리 불자들은 이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한 말을 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실천하려 노력한다. 이 실천행을 통하여 사회 정화에 기여하고, 미래 세대에게 혐오사회가 아닌 불국토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불자들은 오늘도 탑돌이 하듯 간단없이 자신의 언행을 살펴볼 일이다.

社說

청정·공정선거로 새 길 열자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이를 통해 대각회 前 이사장 혜총 스님(기호 1번), 前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기호 2번), 前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기호 3번), 원로의원 일면 스님(기호 4번)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4명의 후보들은 9월 12일 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조계종이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가는 것이다.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모두 수행자로서 자신의 길을 걸어온 스님들이다. 포교원장을 역임한 혜총 스님은 평생을 포교와 복지사업을 펼치며 살아왔고, 원행 스님은 중앙종회의장, 중앙승가대 총장, 금산사 주지 등을 역임한 만큼 종단 행정에 밝다는 평가다.

정우 스님은 '포교와 불사의 장인'으로 불릴 정도로 평생에 걸쳐 전법교화행을 펼쳤고, 일면 스님은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를 이끌며 자비행을 전개하고 있다.

행정과 전법교화에 매진했던 스님들이 출마한 만큼 이번에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지는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 이상 후보 간 상호 비방과 정치적 프레임에 매몰된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 비판과 대결은 환영할만 하지만, 소모적 감정 싸움과 비방은 선거에 도움되지 않는다. 또한, 더 이상 금권선거가 있어서는 안된다.

한국불교는 백척간두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젠 조그마한 실수만으로도 한국불교는 끝이 보지 않는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불자는 물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자.

울산대 원효학 연구소 설립 환영

원효 스님을 하나의 학문 체계로서 연구하기 위한 '원효학' 전문 연구소가 울산대에 설립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한국 대학에서 원효 전문 연구소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원효 스님은 한국불교와 정신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하나의 학문 체계로 정립될 정도로 연구가 축적되지 못한 것은 저간의 현실이다. 한국 전통사상가 중 퇴계나 다산과는 상반되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전문 연구기관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울산대의 '원효학 토대연구소' 설립은 원효 연구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런 연구소 설립의 바탕에는 초대 소장으로 임명된 박태원 교수의 노력이 있어왔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 5년동안 한국연구재단의 토대연구사업을 통해 '원효전서 번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원효학' 수립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한다.

박태원 교수는 향후 전서 영역을 비롯해 원효사상 개념사전 편찬, 계보학 구성 등의 후속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는 보편인문학으로서 한국학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불교를 넘어 한국의 정신문화를 선도했던 원효 스님의 사상을 '원효학'으로 정립하는 것은 불교학 분야의 확장성을 더하는 일이다.

나아가 한국불교에는 원효 스님만큼이나 우리의 정신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스님들이 많다. 이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사상을 정립해 하나의 '학(學)'으로 만드는 것도 한국불교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일임이 분명하다.

특별기고

무엇이 허물이라 지적하는 건가



일감 스님
前 조계종 기획실장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여름도 서서히 지나가고 가을 향기가 나기 시작한다. 조석(朝夕)으로 맺히는 서리와 이슬을 보며 자연의 무상함을 느끼고 마치 폭풍처럼 몰아친 지난 몇 달간의 과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제34, 35대 집행부에서 기획실장을 두 번이나 역임한 소임자로서 나는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종단 일각에서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들으며 한편으로는 분심이 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대표적인 것이 불교 예산에 관한 형편없는 주의와 주장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듯 국민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위법 행위가 있다면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한다. 자승스님께서 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털면 뭐든 나오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전직 총무원장이나 집행부에 대해 '구속'이나 '멸빈'이니 극한 표현을 써가며 검찰이나 심지어 청와대, 대통령까지 개입해달라고 요청하는 행태는 꼴사납고 애처롭기까지 하다. 도대체 저들에게는 이성이나 상식이 있는지, 무슨 자격으로 저런 행위를 버젓이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정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일부 언론을 통해 그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방재시스템의 예산과 관련하여 사찰이 부담해야하는 자부담비용을 시설 업체가 공사 수주를 빌미로 대납했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조만간 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억측이나 비난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특히 수년을 걸쳐 어렵게 만들어낸 전통문화에 대한 국가 예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것으로 왜곡 폄하하거나 일선 사찰에서 발생한 문제를 종단 차원의 대형 비리 사건 인양 몰아세우고 외부세력이나 심지어 이교도까지 내세워 전임 총무원장과 종단을 비리 집단으로 표적화하는 것은 그 진위를 의심케 할 뿐이다.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등 불교 관련한 국가 예산의 확대는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한 국가와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일이며 대다수 일선 사찰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중요한 성과이다. 사찰 기준으로 평균 2.5억 원이 소요되는 방재시스템 구축 후 사찰 화재가 현저히 줄어들고 도난 사건이 거의 사라진 것을 보면 예산 확보의 실효성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전임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8년간 종단 안정을 바탕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불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 그리고 그 예산은 거의 총무원이 아닌 우리 종단 소속 사찰의 유지 존속을 위해 사용됐다. 이것이 어떻게 허물이 될 수 있는가?

이제 무책임한 억지는 삼가해야한다. 아니면 말고 식의 깃털보다 가벼운 행위로 종단을 멍들게 하는 농단을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충 청 지 사 : (042)631-7747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귀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

즉문즉설 ①

부처님 가피(구원)는 있는 것인가?



그럼 당신은 길에서 환우(조현병, 말기암, 희귀병)를 만나면 어떻게 하실건지 출가자로서 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일부 출가자들이 공영방송에서 조현병 환우를 병원에 보내야 한다,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는 등등..... 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현대불교신문에 부처님 제자가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출가자인가 라는 것에 대해 지면을 빌어 알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 8. 29. 수요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눈만 뜨면 천날 만날 말해봐야 무슨 소용 있으랴? 직접 죽음의 문턱에서 새 생명을 얻은 이 (조현병, 말기암, 희귀병)들의 사례를 직접 듣고 꼭 확인하며 질의 응답하는 야단법석의 장을 이 소승이 불교계 최초로 펼치고자 합니다.

의사라고 자임하는 이들이 말과 글로 실컷 떠들면서 수련(수행)한 결과를 환우들을 대상으로 시술(권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는 누가 뭐래도 의사가 아니다. 그것은 말장난, 글장난이고 수행을 하지 않은 결과이다.

모든 경전과 조사어록의 말씀은 실천 수행한 후 체득한 것을 중생 구제를 위해 보이고, 그에 대한 이치, 도리를 얘기하라 했다.

이생도 그렇고, 전생부터 수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 도리, 저 도리를 깨우치면 어떻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나? 진정 이 도리,저 도리를 깨우쳤다면 그에 대한 결과물인 그 권능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사례1] 담도암, 담낭암

대기업에 다니는 젊은 청년이 소납이 있는 절에 왔다. 그는 불교에 대한 의문점이 많으면서 신심은 대단했다. 건설회사 직원으로 사찰 인근에서 대형 공사를 위해 현장 사무실에 근무하며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었다.

당시 안거 중 이었고 새벽예불과 더불어 매일 육조단경을 강설하고 있었는데 기존 신도들 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몇 달 보이지 않다가 나타났는데 그 청년을 보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눈과 얼굴, 피부 색깔 전체가 노랗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일명 황달이다. 몸도 야위었고, 물어보니 10kg가 빠졌다고 한다.

바로 두 스님이 인근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한 결과 여기서는 안되니 대형병원에 가보라고 하면서 검사한 내역과 소견서를 써주는 것이었다. H 대형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해 본 결과 병원 측에서 너무 늦었으니 데리고 가라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담도, 담낭 이것은 신호가 감지 됐을때는 수술할 수 있는 이도 10% 미만이지만, 수술을 한다 해도 또 살아날 확률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사의 말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것이었다.

결국 절에 데리고 와서 "네가 살고 죽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길이다." 하고 지금부터 이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다음날 새벽에 신도들이 보는데서 기도를 해 주었다.

첫날부터 혈색이 달라지고 3일이 지나니 황달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그래서 다시 근무지로 보내면 또 재현될 것이고 해서 이참에



부처님의 은덕으로 살아났으니 이 은혜를 갚기 위해 술, 담배를 끊고 출가를 하겠느냐 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큰 절로 출가를 시켰다.

"너의 출가 목적은 너 스스로를 제도받기 위해 출가하는 것이다. 그러니 꼭 명심하거라." 하고 일러주고, 또 하나의 출가는 부처님처럼 오랜 겁을 지나면서 닦고 닦아서 시절인연이 되어 중생을 제도할 만한 인격체를 완전히 갖추었기 때문에 중생들을 제도키 위해 출가를 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불교의 현실은 부처님처럼 과거생 으로 부터 닦고 닦아서 때가 되어 출가한 이는 보기 드물고, 대부분 스스로 제도받기 위해 출가한 것이라 보면 될 것이다.

부처님처럼 바른 출가한 이가 있다면, 절대 비불교적인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전생부터 닦지 않고 잡귀만 하다 그 습기가 남아 있으니 이생에서도 하는 것이다.

법문 시 많이 들었을 것이다. 지금의 일이 전생의 일이고, 현생의 일이 내생의 일이다.

"어쨌든 새 생명을 얻었으니 술, 담배는 절대 멀리하고 열심히 바른 공부, 바른 실천하는 승으로 태어나길 바란다." 라 하며 출가를 시켰다.

때가 되어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다시 최고 학부에서 사회복지 석사를 마치고 지금은 박사과정을 준비 중이다. 방학이 되면 꼭 3~4일을 다녀가곤 한다.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선택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으니 분명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다. "지금 살아 있음이 부처님의 은덕으로 숨을 쉬고 있으므로 그에 합당한 행을 하며 살겠다는 것이다. 쪽방촌, 소외계층, 빈곤자들을 위해서 그들 속에서 같이 살겠다고 하면서 방학 때 마다 쪽방촌을 찾아 그들과 같이 생활한다.

5년 전 열반하신 무진장 큰스님께서는 살아생전 거지들과 6년을 파고다공원에서 생활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런 큰스님을 닮아가고 싶다 한다.

그리고 공부가 끝나면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들 원주민들과 같이 생활을 할 것이라 한다. 고 이태석 신부님처럼.....

어떤 이처럼 돈 걷어서 미얀마 등 오지지역에 학교를 지어주고, 우물을 파주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 속에서 같이 생활을 하겠다고 한다. 고 이태석 신부님은 한샘(문둥병)환자들과 같이 동거동락 하지 않았는가?

그 말에 아무래도 "너는 지난 생부터 분명히 닦고 닦았기에 이생에서 그런 행을 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너는 나고 죽는 생을 반복하면서 닦은 것이 분명하다. 이생에서 잠시 시험에 들어 헤어나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삼배든, 일배든 절을 하고자 하면 나는 멀리 도망간다. "절은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하며 올 때마다 절을 하려 하면 나는 도망 다니기 바쁘다.

지금 누구보다 건강하며 승가의 일원으로서 모범적으로 수행을 잘 하고 있다.

■ 소납은 초파일을 비롯해 큰 행사시 신도님들에게 꼭 묻는 것이 하나있다. 통칭 염라대왕이 병고로 고생하는 가족(신랑, 부인, 아들, 딸)중 때가 되어 데리고 가고자 할 때 그 가족이 지극정성으로 한번만 살려달라고 염라대왕께 매달리자 "좋다, 그러면 내가 제안을 할테니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내 살려주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동전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가져온다면 내 살려주마."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는지?.....**

생명인지, 재산인지.....

대부분 여기 거제도에 있는 연등사라는 조그만 사찰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매스컴을 통해 소문만 무성한 종교집단에 재산을 거의 다 소진하고 탈진상태가 되어 반신반의하며 실제로 오는 이는 드물다.

대신 스님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즉문즉설의 장을 열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 자주 알리고 쉽지만 본 사찰은 사주, 부적, 삼재, 인등, 방생, 성지순례 등등..... 비불교적인 행위를 일체 하지 않으므로 이 지면을 통해 정법 불교를 알리는데 재정적인 문제로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말로만 하는 정법보다는 실천하는 정법인연을 맺읍시다!

불교계 최초 즉문즉설 안내

- **내용:**
  조현병, 말기암, 희귀병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을 통한 발표 및 질의응답
- **일시:**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
- **장소:**
  연등사 대웅전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 **전화: 055-633-6555**
  (학장스님 :010-9411-5302)
- **참가자격 : 누구나**

■ 당일은 개인 면담은 안 되고, 학장 스님과 협의 요망.

■ 앞으로는 재정이 해결되면 당분간 스님들 조현병 사례를 쓰고자 한다.

◆ 기도 동참하신 일부 신도님 연락처

① 010-2526-4365 (김 00)
② 010-4807-6932 (박 00)
③ 010-9707-4808 (박 00)
④ 010-6786-7495 (윤 00)
⑤ 010-3143-5302 (선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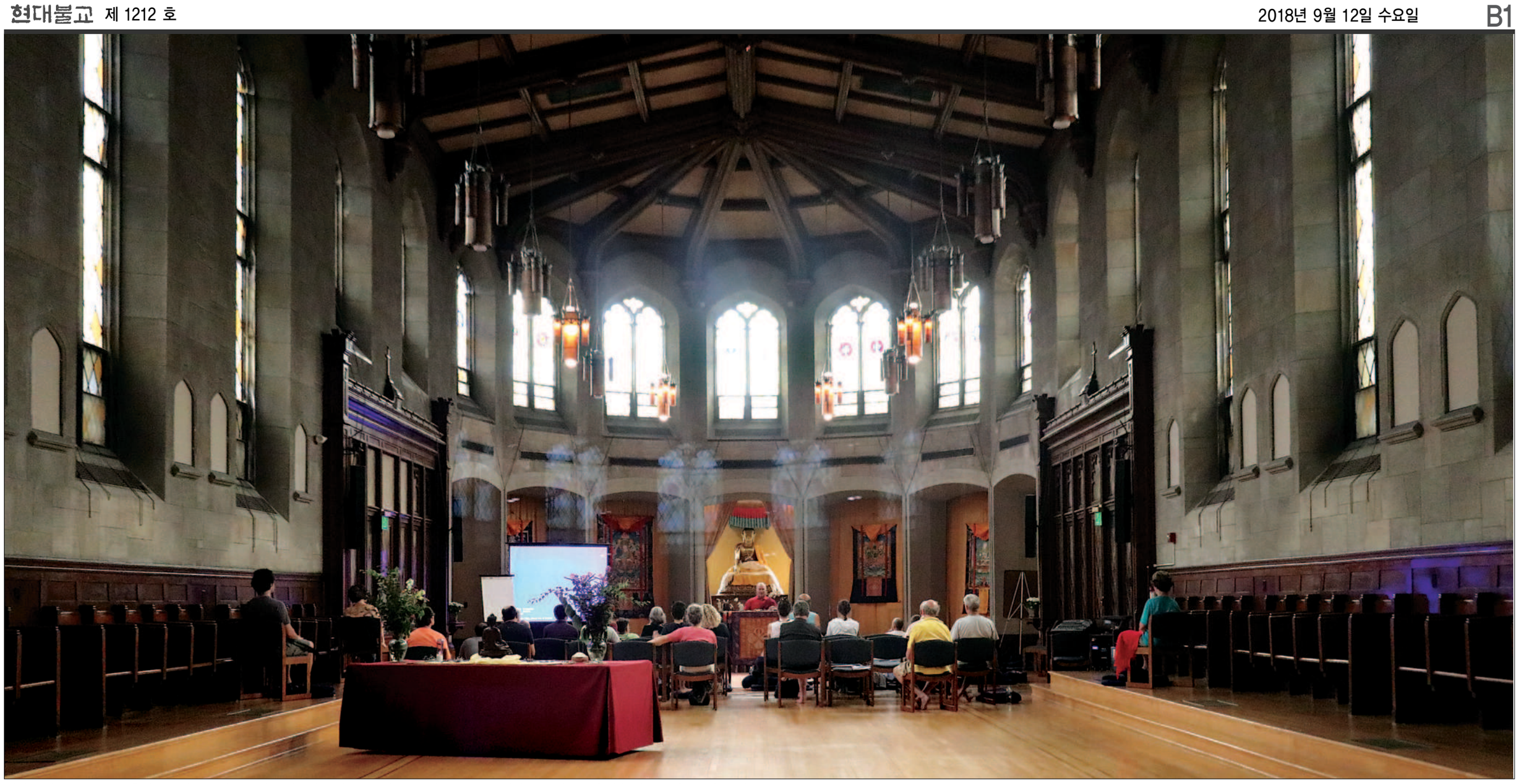
불.법.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

(선재불교대학)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내)

TEL. 055)633-6555



개리슨 인스티튜트 메인홀에서 스님에게 지도를 받는 미국 수행자들의 모습. 스테인드글라스로 된 수도원 건물 가운데 놓인 불상이 눈길을 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바뀐다

특집기획

세계는 명상시대, 한국 禪이 연다

① 미국 불교명상의 현재는?
② 美 명상센터 현장 – 젠마운틴사원
③ 美 명상센터 현장 – 블루클리프사원
④ 美 명상센터 현장 – 개리슨 인스티튜트
⑤ 美 명상센터 현장 – 레이크샤린
⑥ 세계 명상 현주소와 禪명상 방향
⑦ 걸음마 뗀 한국 禪명상 과제는?
⑧ 불교명상 'GURU'에게 듣다

뉴욕=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미국 사회에서는 수행이 개인의 수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회활동으로도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7월 17일 방문한 개리슨 인스티튜트에서는 이러한 미국 명상수행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명상은 종교를 넘어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개리슨 인스티튜트는 사회를 변화하는 데 명상의 파급력을 활용하고 있는 곳이었다.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허드슨 강을 따라 1시간 가량 길을 달리다 보면 미국 육군사관학교가 있는 웨스트포인트가 나오고, 그 강 건너에 개리슨 인스티튜트가 있었다.

높은 절벽 사이에 흐르는 넓은 강은 웅장함과 우리의 높은 산에서 느끼는 기운을 느끼게 했다. 이런 자연환경 속에 미국 육군사관학교와 대칭으로 자리한 개리슨 인스티튜트는 학교와 같은 외양과 달리 활발한 기운을 품은 이들을 배출하기에 적합한 기운을 품고 있다고 생각됐다.

개리슨 인스티튜트는 겉보기에는 붉은 벽돌로 구성된 건물 한 채와 넓은 풀밭, 그리고 주차장까지,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한 우리네 학교와 매우 흡사했다. 오래된 청동문을 열고 들어가니 바로 메인 홀이 나왔고, 이곳에서는 20여 명의 수행자들이 불상을 앞에 두고 티베트 스님에게 수업을 듣고 있었다.

옛 수도원 향취 그대로 남아

개리슨 인스티튜트는 2003년 설립된 이래 독특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 당초 개리슨 인스티튜트가 자리한 곳은 카푸친 수도원(Capuchin monastery)이 있었다. 카푸친 수도원은 1923년 카푸친 프란시스코에 의해 지어진 수도원으로 사제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의 역할도 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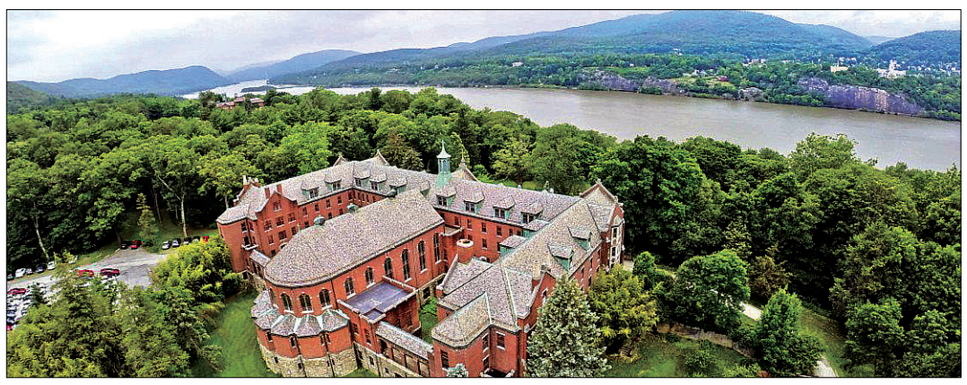
이곳은 처음부터 신학교였기에 첫 인상에서 학교와 같다고 느낀 점도 무리는 아니었다. 카푸친 수도원은 이 지역의 부동산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이를 안 오픈 스페이스 연구소(Open Space Institute)가 2001년 인수했다. 이어 새롭게 설립된 비영리 재단인 개리슨 인스티튜트에 오픈 스페이스 연구소가 수도원을 기증하며 개리슨 인스티튜트로 시작하게 됐다.

개리슨 인스티튜트는 앞선 젠마운틴이나 블루클리프 사원들과 달리 미국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 설립했기에 특정한 수행법을 전하고 있진 않았다. 80% 이상의 대부분 수행자들이 불교명상을 하고는 있지만 기독교 사상에 근간한 영적 수행이나 이슬람 수행을 하는 이들도 있다고 전해 들었다.

개리슨 인스티튜트는 초기에 신부, 스님, 랍비 등 다양한 종교 지도자도 참여했으며, 개원 직후인 2003년 가을에는 달라이라마가 방문해 법문을 하기도 했다. 연구소의 메인 홀에는 부처님 상이 있으며, 메인 홀 측면에는 달라이라마 흉상이 있었다.

개리슨 인스티튜트는 최대 200명을 수용 가능한 명상 홀과 강당을 비롯해 총 165명을 수용 가능한 50개의 1인용 숙소와 45개의 2인용 숙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모든 침실은 2~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개의 공용 욕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밖에 10개의 소규모 회의실이 1층과 2층에 존재했다.

재가자 중심의 운영으로 상주하는 수행자들뿐만 아니라 주말 통근, 퇴근 후 방문 등을 통해서도 수행자들이 이 시설을 이용한다고 했다. 운영원칙은 기본적으로 묵언을 중심으로 다른 이들의 명상을 방해하는 휴대전화 사용과 이어폰 없는 CD플레이어 등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었다. 현란하지 않은 반바지와 티셔츠 차림이 허용되고 등산을 위한 등산복 또한 허용됐다.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마주보고 있는 개리슨 인스티튜트. 절벽 위에 위치해 웅장한 기운이 느껴진다.

개인적인 수행과 함께 정기적으로 스님들의 위빠사나, 마음 챙김 등 수행지도 등이 이뤄지고 있었다.

화두는 자연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성'

개리슨 인스티튜트는 오래된 건물임에도 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에너지로 무장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다른 사원들에 비해 오래된 건물을 개조했음에도 이를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눈길을 끌었다.

오래된 건물에서 개리슨 인스티튜트는 가장 먼저 설립과 함께 건물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나섰다.

설립자 중 하나인 조나단 로스 대표는 건물 열손실 15%가 바닥을 통해 발생한다는 것에 착안해 단열기능이 있는 친환경 유기물(VOC) 페인트로 다시 칠했으며, 수도원의 오래된 파이프를 단열재로 교체했다. 조명의 75%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로 변경했으며, 동작센서를 설치해 야간에 사람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조명이 꺼지게 했다.

또 지하수를 이용한 냉방과 지열을 이용한 난방시스템을 도입했다. 기계식 에어컨 대신 자연환기를 이용하며, 대신 공기 흐름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높은 천장에 팬을 설치해 냉방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메인 명상 홀에는 어떤 에어컨도 없었지만 한여름에도 더위를 느낄 수 없었다.

물 관리 또한 자연을 생각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모든 화장실은 물 사용량이 적은 모델로 대체됐으며, 화장실의 수압 또한 필요한 만큼만 나오게 했다. 또 일반수도 외에 유기물 필터링을 도입한 우물을 사용하고 일회용 생수병보다 재사용 가능한 물병, 물컵 등을 쓰고 있었다.

식사 후 설거지에서도 생분해성 세척제를 활용하고 정원 관리도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잡초를 뽑는다고 했다. 개인 위생용품도 유기농 제품을 사용하고 심지어 각종 종이와 포장재 또한 재활용을 통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개리슨 인스티튜트는 2017년 연평균 전기사용량을 1/3수준으로 줄이고 쓰레기 배출 등도 최소화했다고 했다.

답사단을 맞이한 마크 웨이스(Marc Weiss) 전무이사는 "처음에는 에너지 낭비가 심했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를 고쳐가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교체하고, 순환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채식을 제공하는 식사 준비도 지역사회의 유기농 생산물로 하고 있었다. 개리슨 인스티튜트의 식단은 〈프레쉬 쿠킹〉 저자 쉴리 보리스 요리사가 이끄는 케이터링 회사 '프레시 컴패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프레시 컴패니는 허드슨밸리 지역 농장과 생산자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달걀 및 유제품, 곡물, 꿀, 메이플 시럽 등 유기농 제품을 사용한다. 심지어 사용되는 소량의 육류 또한 호르몬제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키운 것을 구입하고 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명교계숭 삼교일치(三敎融合)

B5
문화
'치미(尾), 하늘의 소리를 듣다'
국립부여박물관 특별전

B6
학술 · 문화재
"SNS 악플은 口業이자 악업사슬"


개리슨 인스티튜트 수행자들의 모습.


제인 콜리니 이사(사진 왼쪽 세번째)와 질의응답을 하는 답사단.


개리슨 인스티튜트의 정면 모습. 수도원과 신학교 목적으로 만들어져 마치 우리나라 고등학교나 대학교 건물같은 느낌을 준다.

명상 수행 바탕한 사회 변화 운동 '눈길'

수도원 건물 활용한 명상센터

수행자 대부분 직장인 · 주부

일 · 가사 병행하는 수행 시스템

환경 · 여성운동 등 결합 '사회참여'

이슈별 소모임으로 수행 · 실천행

'세계는 명상시대 한국 禪이 연다' – 개리슨 인스티튜트

B1면에서 계속

제인 콜리니(Jane Kolleeny) 사업개발 이사는 "재활용 할 수 없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온라인 통신에 의존하며 모든 종이, 캔, 유리 등을 재활용 하고 있다"며 "음식 또한 마찬가지다. 자연에 해가 되지 않게 키운 것들을 활용한다. 자연과 함께 하는 인간의 고요한 삶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삶"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수행공동체

개리슨 인스티튜트는 한국불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립된 수행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었다. 앞서 밝혔듯 수행자들 대부분은 평일에는 직장과 가정일을 하다 주말에 인스티튜트에 모여 수행을 한다. 뉴욕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직장일이 끝나면 퇴근 후 수행을 하기도 한다고 전해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의 이슈가 수행공동체의 화두, 개인 수행의 화두가 됨을 알 수 있었다.

개리슨 인스티튜트는 2003년 창립과 함께 먼저 환경운동가와 자원봉사자들이 경험하는 정신적, 신체적 상해를 극복하기 위한 명상 프로그램을 전개했다. 2004년에는 수업 중 스트레스를 받는 교사들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 보급에 나서기도 했다.

같은 해에는 허드슨 강 환경을 지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해 기금모연과 함께 기후 변화와 생태 변화의 위험성을 뉴욕 사회에 알리기도 했다.

2005년에는 가정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여성 웰니스 프로젝트(Women's Wellness Project)를 시작해 현재는 여성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개리슨 인스티튜트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켰다. 최근에는 또 다른 분야로 접근하고 있다.

제인 콜리니 이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시간을 초월한 영적활동 △간병인을 위한 도움 △생태변화와 명상 △리더십과 조직변화 △사회갈등을 막기 위한 명상을 주제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간병인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제인 콜리니 이사는 개인적인 수행과 별개로 인스티튜트 내에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한 소모임이 많다고 했다. 인스티튜트 차원의 지원이 없어도 이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답사단 방문에 함께한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관계자도 개리슨 인스티튜트의 수행자들에 대해 "그들은 조용한 사람들이지만, 지역사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평가했다.

개리슨 인스티튜트의 특징은 이사회와 자문위원, 직원 및 파트너 회원 등으로 이뤄진 인적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이사회의 경우 11명의 재가자로 구성돼 있는데 투자회사 CEO를 비롯해 비영리 단체의 대표, 불교수련회 회장, 의사, 사회적 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 고문으로 심리학자, 기후변화 연구가, 건강센터 운영진 등을 두고 사회활동에 대한 확장성을 꾀하고 있었다.


연구소 정원에 조성된 조형물 사이로 포행하는 수행자들.

미국 주요 언론서 주목해

이러한 활동은 미국 사회의 다양한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017년 3월 'Lawyers Go Zen, With Few Objections'란 특집을 통해 "부드러운 변화의 바람이 법조계에 불고 있다"며 "그동안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기 위해 골몰했던 법조인들이 명상을 통해 소수의견을 내는 데 주저하지 않게 됐다"고 소개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마이애미 법대생들을 비롯한 다양한 법조인들이 개리슨 인스티튜트에서 3일간 수행한 내용을 다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부 수면이 부족한 변호사들은 교육시간 졸기도 했지만 명상을 통해 각 이슈에서 그동안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고 소개하며 '수도사처럼 머리를 깎거나 옷을 입지 않고 종교단체에 가입한 것 같지 않게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참가자들의 소감을 실었다.

또 〈뉴욕타임즈〉 또한 2017년 9월 'Cultivating Mindfulness for Educators Using Resources From The New York Times' 기사를 통해 "교사는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며 교육현장에서 마음 챙김(mindfulness)을 연습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마음 챙김 수행법과 함께 개리슨 인스티튜트가 운영하는 교사들을 위한 케어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밖에 다양한 블로그와 매체들이 개리슨 인스티튜트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SiriusXM Radio의 경우 2011년 '개리슨 인스티튜트는 사회적 변화의 리더로 우뚝 섰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밖에 현재 개리슨 인스티튜트는 다양한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60여 명이 수행 프로그램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행 장학금, 명상 중심의 인도주의 교육을 보급하기 위한 CBRT(Contemplative-Based Resilience Training) 장학금,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연구 및 심포지엄 참여를 위한 CMB(Climate, Mind and Behavior) 장학금, 교사들이 사회정서적 기술을 명상을 통해 얻도록 하는 교사 장학금, 티베트와 히말라야 불교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히말라야 헤리티지 장학금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개리슨 인스티튜트는 불교명상이 개인적인 수행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원동력으로 자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명상을 위해 모인 이들이 사회적 기여에 마음을 하나로 할 때 수행공동체가 사회운동모임으로 변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불교계에서 과제로 꼽히는 사회기여에 대한 답을 이곳에서 확인하며 다른 명상센터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다.



유불도 심성론으로 삼교융합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⑯ 명교계숭 삼교일치(三敎融合)


그림 강병호

중국불교에서 심성론은 중국 전통사상인 철학사상이 계합된 사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다. 심성론은 중국 불교철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북송 때의 유명한 선사인 계숭선사는 심성론을 기초로 해서 삼교를 융합하였다. 삼교융합은 당시 불교의 생존과 발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때문에 계숭선사의 심성론 사상에 대한 이해는 곧 북송불교의 전면적인 이해와도 깊은 연관성이 존재한다. 계숭선사의 심성론 사상의 근원은 당연히 유불도(儒佛道) 삼가에 기초하고 있다.

명교계숭의 중요한 사상적 특징은 '삼교합일(三敎合一), 삼교융합'이다. 물론 삼교합일 사상을 그가 처음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문서화와 체계화를 수립한 인물은 불교역사에서 그가 처음이다. 삼교합일은 곧 유(儒)·불(佛)·도(道)의 삼교 조화 내지 융합 통일을 말한다.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집대성한 책은 바로 〈보교편(輔敎編)〉이다. 계숭선사는 이 책에서 삼교가 지향하는 목표와 사람을 교화하는 목적은 같지만, 다만 사람을 교화하는 방법과 형식의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쓰임새에서 용공과 심천(深淺)의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여겼다.

그는 "옛적의 성인의 말씀에 의하면, 유·불·백가(百家)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의)마음은 곧 하나이다. (그러나)그 자취는 곧 다르다. 대저 하나는 무엇인가? 그것은 모두 사람을 선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르다는 것은, 곧 분가(分家·역할이 다르다. 혹은 역할을 나누다)로서 각기 그 교화를 말한다. 성인들은 각자의 가르침이 있다. 고로 사람을 선한 방향으로 교육한다. (다만)얕고(淺), 심오하고(奧), 가깝고(近), 먼(遠) 것이 있다. 대체로 악을 끊고 사람을 서로 교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곧 그 덕이 같다"고 하고 있다. 비록 옛적의 성현들이 지향하고 실현하고자 했던 이상과 이념은 모두 같지만, 다만 심천원근의 차별이 존재했다. 그러나 악을 끊고 선을 향하게 하고 동시에 사람들을 번뇌로부터 구제하려는 마음은 모두 같다는 것이다. 또 그는 삼교합일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대개 천하에 유가(儒家)가 없어서는 안 되고, 백가(百家)가 없어서는 안 되고, 불가(佛家)가 없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천하에 하나의 가르침이 부족하면, 천하에 하나의 선도(善道)도 손해를 보고, 하나의 선도를 손해 보면 곧 천하의 악이 더 증가되는 것이다"고 하였다. 즉 그는 삼교의 경전을 널리 인용해 서로의 가르침을 통해서 불국토를 이루고자 했다. 그가 논증했던 '삼교합일'의 관점을 정리 해보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 삼교합일의 기본 바탕은 '심성론(心性論)'을 기초로 건립된 것이다.

첫 번째, 그는 '심(心)'을 이용해서 삼교를 회통하고 있다. 계숭선사는 석가모니불이 전한 심(心)은 불교의 성인이 성취한 심(心)이며, 삼교 내지 백가의 성인들의 심(心)이며, 또한 천지(天地)의 심, 또한 중생심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어느 종교를 신봉하든지 모두 자기의 본성을 신봉하는 것이며, 자심(自心)을 신봉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았다. 그는 〈담진문집(鐔津文集)〉에서 말하기를 "성인은 그 마음을 믿음으로써 대(大)로 삼는다. 성인은 이것(心)을 넓다고 설하고, 이것을 지킨다고 설하고, 이것을 직시(直示)한다고 설하고, 이것을 교시(巧示·교묘하게 나타냄)한다고 설하고…, 사람이 성인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은, 이에 그 마음을 믿지 않는 것일 뿐이다.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미혹한 것이다. 어찌 명철하다고 할 것이며 현명하다고 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즉 삼교 내지 백가의 성인들의 마음의 중요성 내지 중생들의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곧 불교에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만법유심(萬法唯心) 등의 확고한 관점을 피력한 것이다. 특히 이 심(心)을 강조한 것은 바로 그가 선종의 입장에서 선종에서 강조하는 '이심전심'을 바탕으로 한 관점이라고 하겠다. 특히 그는 '도편일체(道遍一切)' 이론을 바탕으로 삼교일체의 합리성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관점은 화엄사상인 불신충만어법계(佛身充滿於法界)의 법신불 사상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두 번째, 삼교일치의 회통 및 조화의 수단으로 '성정(性情)'을 사용하였다. 불교와 유교는 각각 성정(性情)에 관한 자기들의 관점이 있다. 불교에서 성(性)은 진실의 체, 불변의 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말로 불성, 여래장, 진여, 자성 등으로 표현한다. 정(情)은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根)의 대상세계를 말한다. 즉 불교에서 정(情)은 오욕칠정을 말하며 윤회의 근원이 된다고 여긴다. 물론 불교의 근본은 본래 성과 정을 둘로 나누어보지는 않는다.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로 보기 때문에 최종에는 이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유교의 성과 정에 대한 입장은 극명한 차이점이 보인다. 유가도 '정출어성, 성은어정(情出於性, 性隱於情)'을 말하기 때문에 완전한 극단적인 이분법은 아니지만, 유가에서 성(性)은 선(善)의 근본으로 보았고, 정(情)의 근본은 악(惡)으로 보았다. 정확한 이분법이다. 물론 이 근거는 순자의 성악설과 맹자의 선성설을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유가 역시 이 이분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설정을 통해서 악은 교육과 교화를 통한 변화를 지향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고, 선은 그것을 증장하고 육성해서 호연지기의 상태에 도달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즉 유가의 목적은 교화를 통한 인간의 심성개조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불교는 현실을 초월하는 해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양가의 '성정(性情)'에 관한 문제는 각기 해석하는 바에 따라서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계숭선사는 양가의 이러한 관점을 잘 조화시킬 수 있다고 여겼다. 그가 주목한 점은 역시 '성인의 심'이었는데, 이 심(心)은 양가가 서로 상통하는 심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양가의 역할 분담을 제안하였는데, 불교는 수적(垂迹·불보살이 중생의 교화를 위해서 무수한 방편을 보이는 것)으로, 유가의 '제정(制情)'으로 가르침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교화를 펼치는 데 있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여겼다. 즉 성인의 가르침에는 각각 나름대로 그 교화의 방식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고로 "그 가르침은 사람들을 선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함이다"고 하였다. 불교의 교화 측면에서 보면, '제정(制情)'을 다스리는 것은 오승(五乘·人乘, 天乘, 聲聞乘, 緣覺乘, 菩薩乘)을 사용해서 가르친다는 것이다. 중생은 "그 이루어진 바의 습기가 엷은 사람이 있고, 두터운 사람이 있다. 근기에도 대자와 소자가 있다. 성인은 이것을 마땅하게 하는 것이다. 고로 그 법을 말하면 오승이 된다"고 하였다. 유가의 '제정(制情)'은 '예(禮)'로서 다스린다고 하면서, "고로 예악이라는 것은 왕도를 의지해서 생성되는 것이다. 예라는 것은 인정(人情)을 인해서 제제를 진행한다. 인정(人情)은 후생(厚生·산림을 안정시키거나 넉넉하게 한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악을 기르는 것이며, 인정(人情)은 죽음을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예정의 상(禮正之喪)이다. 인정(人情)에 남녀가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예를 바르게 펴는(禮宜之正) 것이며, 인정(人情)에 친소가 없지는 않지만, 예에 적합한 뜻(禮適之義)이다. 인정(人情)에 희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예리의 마땅함(禮理之當)이다. 인정(人情)에 재물의 이익을 품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예로서 조절한다"고 하였다. 또 그는 결국은 출세법은 출세법대로 존재하는 이유와 쓰임새가 있고, 세간법은 세간법대로 사용처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유자의 성인은 세간을 다스리는 자요, 불교의 성인은 출세간을 다스리는 자이다"고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다. 즉 서로 이러한 자기의 역할을 잘 지키고 서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곧 조화요 일치라는 것으로, 곧 이러한 관점이 바로 그가 주장하는 삼교합일의 내용이다.

삼교융합… 불교 생존의 문제
문서·체계화한 첫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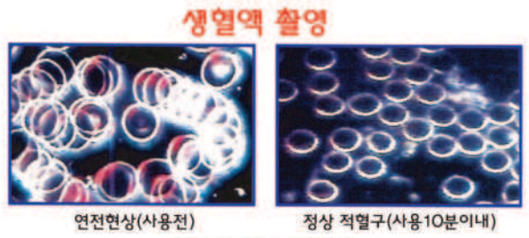
세 번째는 '충효(忠孝)'로서 삼교를 통일 했다. 사실 그는 유교 논리에 매우 통달해 있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유가를 좋아한다. 대개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것은 도에 합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고 하면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불교의 오계와 십선계를 가지고 유가의 오상(五常)을 비교분석하기도 하였다. 즉 유가에서 말하는 인·의·예·지·신은 불교의 자비·보시·공경(恭敬)·무아만(無我慢)·지혜·불망어기어(不妄言綺語)라고 여겼다. "비록 목적은 같지 않지만 그것을 세운 것은 성실한 수행을 해서,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어찌 다름이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다시 말하기를 "성인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반드시 죄악을 없애기 위함이다"고 했다. 유가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의 구조는 바로 유가의 윤리의 준칙이다. 특히 효는 인륜의 근본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자 최고의 덕목이다. 그래서 유가에서 '효'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기초가 된다고 여겼다. 그는 또 "대개 효라는 것은 모든 교(儒佛道)가 이를 존중한다. 그러나 불교는 다르게 존중한다"고 하였다. 때문에 "대저 효는 하늘의 길이며, 땅의 뜻이며, 사람들의 행이며, (그래서)매우 큰 것이다"고 하면서, 불교는 "대개 효로써 계의 발단(시작)을 삼고(蓋以孝而為戒之端也)…, 효는 대계보다 우선하며, 계는 많은 선을 탄생시키기도 한다(夫孝也者大戒之所先也. 戒也者眾善之所以生也)"고 효와 계를 대비시켜 효계일치(孝戒一致)를 논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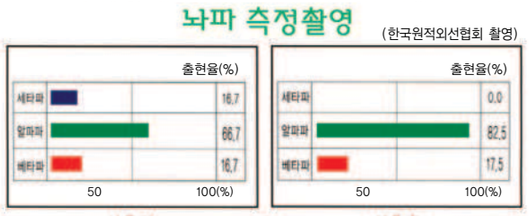
계숭선사가 처했던 당시는 봉건사회로서 통치자가 우선하는 시대로 불교적인 활동은 당연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당시 풍토는 사대부들의 적극적인 불교에 대한 비평 내지 배불의 환경 풍토 속에서 그가 승려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불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그가 외쳤던 삼교일치의 구호가 어떤 면에서 전통불교를 위배하는 점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가 처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유가의 〈효경〉에 보면, '불효유삼, 무후위대(不孝有三, 無后爲大)'라는 말이 있다. 불교의 승려는 출가하면 반드시 독신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유가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것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으며, 자연의 섭리를 위배하는 처사였을 것이다. 이 점은 바로 불교와 유교가 수천 년 이래로 논쟁이 끊이지 않는 부분이다. 때문에 이러한 모순적인 현실을 조화롭게 통합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사실 계숭선사의 삼교일치 삼교융합사상은 역사상 삼교관계가 중국불교 및 중국 전통문화 속에서 장기간 발전해온 역사의 산물이다. 송대 이전에도 간간이 선사들이 삼교일치를 주장하면서 대체적으로 삼교를 간단하게 비교했던 적이 있지만, 계숭선사처럼 진일보해서 유불(儒佛)을 깊이 연구하고 분석해서, 체계적인 논증을 통해 사상적으로 체계화시킨 인물은 없다.

〈동국대 강사〉

BLOOD MATE® 비누 한 번으로 혈액 건강! 세포 건강!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한국원적외선협회 촬영)


사용전 사용후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6개월 후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CS137(세슘)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98.7%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효과 : 어깨결림, 허리통증 등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복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최초로 개발된 일본정부의 예산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항균 93%가 아토피,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80%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지구상의 전 인류는 양치 후 뱉어내고, 구강 건강에 별도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
ORAL MATE로 양치 후 뱉지않고 먹었는데 30년 묵은 치질, 혈변이 사라졌다!!

ORAL MATE를 개발한 41년생 남자인 본인은 ORAL MATE로 양치후 뱉지 않고 삼키면 구강건강(모든 잇몸질환) 은 기본이고 93%의 항균력과 80%의 탈취력이 위와 장을 청소하므로 배탈, 설사, 변비 한번없었고 속이 거북할 때나 과음시에는 소화제나 술 깨는 약을 먹은 것보다 빨리 속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구취가 나지 않고 변이나 방귀에서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 변이 뜨는, 4년간의 체험담을 공개 합니다.

구강은 건강하게 치아는 튼튼하게
ORAL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89.7%
GERMANIUM & SELENIUM

ORAL MATE® 기능 효과 93%의 항균력, 80%의 탈취력
- 음이온과 온열을 피부 속 깊이 전달하여 매끄럽고 탄력 있는 잇몸 유지
- 음이온과 원적외선 상호 작용으로 피부 노폐물 방출로 구강 건강 유지
- 세포를 활성화 시키고 면역을 증강 시킨다. 잇몸 질환 예방
- 수중에서 다량의 용존 산소를 발산하며 물 분자를 활성화 하여 청결한 구강
- 각종 균의 정균 작용과 살균, 악취 제거 탁월. 충치 예방과 입냄새 제거
- 잇몸에 붙어 있는 각종 중금속, 유기물질, 독성물질 등을 흡착/분해한다. 깨끗한 치아
- 체감 온도를 5℃ 이상 향상시키며 제반 독소 효과적 제거

위의 내용 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이번주 신간은… 〈크리슈나무르티와 함께한 1001번의 점심식사〉

저자 마이클 크로닌/옮긴이 강도은/열림원 펴냄/1만 5천원

이 책은 20세기 최고의 사상가이자 명상가, 철학자 등으로 불린 '정신적 스승' 크리슈나무르티의 식사를 10여 년간 책임져온 요리사 마이클 크로닌이 쓴 책이다. 저자는 크리슈나무르티와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오고간 이야기들과 그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일상적 면모를 순박하고도 따스한 시선으로 풀어낸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31~9/6 운주사 집계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붓다의 철학(중도, 그 핵심과 사상체계)	이중표	불광출판사
2	조용헌의 인생독법	조용헌	불광출판사	7	우리말로 읽는 부처님 말씀 능엄경	각성스님/용하스님	비움과소통
3	그대는 꽃입니다	천룡스님/효석스님	사유수	8	위빠사나 명상일기	영선	운주사
4	요가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9	생물이 들려주는 철학이야기	정화스님	법공양
5	공덕(조계종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법보신문	모과나무	10	후회없는 죽음, 아름다운 삶	로드니 스미스/이향엽	담앤북스

"살다가 가끔씩 넘어지는 게 人生이다"



그대에게 가는 오직 한길

제민 지음/마음서재 펴냄/1만 4천원

등운암서 적석사까지
젊은 날의 방황과 출가,
진리 향한 구도의 여정

"일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입산 출가해 수행한 것"

진솔히 써내려간 출세간의
삶과 깨달음의 순간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이 책은 제민 스님의 출가와 구도 여정을 담은 첫 에세이다. 너무나 인간적인 한 수행자의 방황과 출가, 그리고 20여 년에 이르는 구도기를 통해 온전한 행복에 이르는 삶의 길을 보여준다. 계룡산 등운암을 지키던 시절부터 부여 무량사를 거쳐 강화도 적석사에 이르기까지 출가 수행자로 살아오며 맞닥뜨린 질문들과 일상서 얻은 소소한 깨달음에 대해 들려준다. 삶과 죽음, 행복, 관계, 욕망, 수행, 자연에 관한 생각들도 아우른다.

출가 수행자로 살기 전, 그 역시 누군가의 아들이자 연인이었다. 사회적으로는 인정받는 엔지니어였고, 원대한 포부를 지닌 청년 사업가였다. 세상의 문턱에 걸려 넘어져 폐인이나 다름없이 살던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뜻밖에도 불교였다. 불교에 귀의하기 전까지 부처가 뭔지, 삼보가 뭔지도 모르던 그에게 놀라운 세계가 펼쳐졌다. 그렇게 운명처럼 시작된 구도의 길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스스로 깨친 것들을 이 책에 오롯이 담아냈다.

번뇌에 휘둘리는 삶, 누구에게 기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걸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자. 숨을 고를 사이도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책이 자기를 비춰보게 해주는 맑은 물이자 삶의 길라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계룡산이 품은 절집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등운암. 세상보다 하늘이 더 가까운 그곳에 묵언수행을 즐기는 산승이 살았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데다 양철지붕을 올린 허술한 법당 하나가 전부인 초라한 살림이었다. 행자 수업을 마치고 사미가 된 지 겨우 2년 만에 등운암 살림을 맡게 된 스님은 이곳을 수행처로 진리를 향한 오직 한길을 떠난다.

"살다가 가끔씩 넘어지는 게 인생이다" 삶의 문턱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저자가 떠올리는 은사 스님의 말씀이다. 넘어진 그 자리서 툭툭 털고 일어나 부처님에게로 가는 오직 한길을 뚜벅뚜벅 걷는 저자는 천생 수행자다. 밝히기 부끄러운 경험조차 담담하게 들려주는데, 이야기의 행간서 치열한 수행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아울러 경전에 실린 지혜의 말씀도 소개하며, 불교의 참뜻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전달한다. 저물녘 산사에 은은히 울리는 종소리처럼 잠든 영혼을 깨우고 지친 마음에 쉼표를 그려주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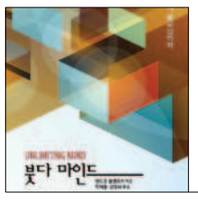
출가 수행자라 해서 괴롭지 않고, 아프지 않은 건 아니다. 그 역시 뜨거운 피가 흐르고, 마음의 경계에 부딪히면 좋고 싫은 감정이 솟구쳐 올라오는 인간이다. 다만 그 경계에 끄달리지 않으며, 바로 알아차리고 돌이키기에 우리는 그를 수행자라 부른다. 저자는 자신이 경험했던 인간적 고뇌를 솔직하게 들려줌으로써 번뇌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녹여내는 법을 보여준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이 고매한 스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발 딛고 살아가는 모두에게 필요함을 에둘러 말한다.

이외에도 산중 암자에 사는 동안 저자가 겪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뭉클하고 가슴 찡한 여운을 남긴다. 출가 전 만난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일, 아들이 추위에 떨까 봐 무거운 담요를 이고 산을 올라온 어머니의 이야기 등이 그것이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고 번민하는 모습이 실로 인간적이다.

"내심 반갑기도 했지만 딱히 말할 수 없는 아픔 같은 것이 가슴 한쪽을 아련하게 찔렀습니다. (…) 불현듯 찾아온 그 여인의 눈빛을 보자 제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자는 산사의 사계를 오롯이 느끼며 매순간 살아 있음을 자각한다. 말없이 큰 가르침을 들려주는 자연은 그에게 또 하나의 크나큰 스승이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른 채 앞만 보고 숨 가쁘게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저자는 경전의 경구를 들려준다.

"물이 흐리거나, 뜨거운 불에 끓고 있거나, 이끼로 덮여 있다면, 자신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 물이 흐리거나 불에 끓고 있거나 이끼로 덮여 있다면, 우리는 그 물에 자기 얼굴을 비춰볼 수 없다. 이것은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늘 허둥대는 상태, 즉 끊임없이 번뇌에 빠지는 것을 비유한다. 번뇌에 휘둘리는 삶, 누구에게 기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걸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자. 숨을 고를 사이도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책이 자기를 비춰보게 해주는 맑은 물이자 삶의 길라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붓다마인드

앤드류 올렌즈키 지음/박재용 · 강병화 옮김/1만 5천원



마음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할까?

이 책은 욕망하고 분노하는 우리 마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2,500년 전 붓다는 인도의 옛 도시 가야에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상이 불타오르고 있다. 무엇으로 불타고 있는가? 탐욕과 분노와 무지로 불타오르고 있다." 탐욕과 분노와 무지로 불타오른다는 붓다의 말은 어떤 의미일까? 과연 마음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

저자 앤드류 올렌즈키는 이 같은 물음을 불교철학적 그리고 현상학적으로 사유하면서 우리 마음의 근본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그 일말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현대사회가 처한 문제를 불교이론과 수행을 통해 접근한다. 또 심리학을 빌려오고 현상학적 관점에 서서 우리를 제약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자동반응적으로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마음 근본 문제 해결책 제시
불교이론과 수행 통한 접근법

이 책 원제는 'Unlimiting Mind'이다. 문자 그대로 풀면 '마음의 제약을 풀기'쯤 될 것이다. 저자는 여기에 제약되고 구속된 일상의 마음을 해방시켜 평안한 마음으로 되돌아가자는 의도를 담았다.

제 1장에서는 더 큰 틀에서 붓다의 가르침을 설명한다. 붓다 입장에서 인간 내면의 경험세계를 보면, 우리는 마치 영화 매트릭스처럼 가상세계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매트릭스와 다른 점은 인공지능 대신 자신이 그 중심부에 위치하며 자신의 관점서 세계를 구성하고 바라본다는 것이다. 붓다의 제언은 자신의 경험을 반성하는 것이다. 즉 수행을 통해 자신이 처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이다. 이어 제 3장에서는 의식의 문제를 이른바 주관적 마음과 객관적 뇌 어디에 놓고 풀어야 하는지 상호의존적 관점에서 밝히며, 우리가 자신만의 가상세계를 어떻게 창조해내는지, 그러면서 우리의 망상이 어떻게 실재의 본성을 오인하고 있는지 현상학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4장서는 수행을 통한 극복 방안을 다루고 있다. 인간은 본성상 한 번에 하나씩만 주의를 집중할 수밖에 없기에 주의의 분산을 불러오는 산란한 마음을 멀리하고, 하나에 대상에 오로지 집중하고 알아차리는 마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마지막 제 8장서는 마음챙김의 진정한 의미를 불교의 전통 가르침인 아비담마의 논의를 통해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는 마음챙김이 단순한 집중의 기술 그 이상인, 여러 다른 선한 마음들을 수반하는 윤리적 성격의 마음상태임을 강조하고, 마음챙김과 관련된 마음상태들을 간략하게 해설한다.

한편 저자인 앤드류 올렌즈키는 불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불교 수행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 랭카스터 대학서 철학박사를 취득했고, 하버드대와 페라데니야대학(스리랑카)에서도 불교학을 전공했다. 위빠사나 명상 단체인 통찰명상 협회와 배리불교연구소 상임이사를 지냈으며, 마음과 생명 연구소에서 명상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중이다. 현재는 수행과 연구를 통합한 교육 프로그램인 통합 다르마 연구소를 설립해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며, 'Tricycle: The Buddhist Review' 등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쓴다.

김주일 기자

선禪으로 송시를 보다!
송시의 선학적 이해



송대의 시가詩歌는 어떻게 중국 문학의 최고봉이 되었는가?
송시는 선적인 사유로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였기에 그들만의 문학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박영환 지음 / 536쪽 / 값 27,000원

부처님께 드리는 100가지 기도!
부처님 광명 기원문



신심을 고취시키고 자비와 지혜를 증진시키는 기도발원문!
간결하면서도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된 발원문과 동자승 그림으로 널리 알려진 원성 스님의 그림이 감동과 평온을 선물한다.
성운대사 글, 조은자 옮김 / 440쪽 / 전면컬러 / 값 23,000원

모든 것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윤회와 인과의 실제 이야기



선인선과, 악인악과! 이것이야말로 가장 명료하고 기본적인 불교의 가르침이다. 역사적 진실성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윤회와 인과의 사례들만을 골라 엮었다.
석운광 지음 / 200쪽 / 값 1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하늘의 소리 들으던 시절이 있었다

'치미(鴟尾), 하늘의 소리를 듣다'

국립부여박물관 특별전 9.18~12.2
백제 · 신라 치미 한 자리에
분황사 치미 첫 실물 공개
국제학술심포지엄도 개최 10.19


왕흥사지 치미1


왕흥사지 치미2


미륵사지 치미


부소산 절터 치미


황룡사지 치미


분황사 치미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치미(鴟尾)를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 국립부여박물관(관장 윤형원)은 부여군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와 함께 9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특별전 '치미, 하늘의 소리를 듣다'를 개최한다.

치미는 사찰과 궁궐 등 우리 전통 목조건축의 지붕 용마루 양 끝을 장식하는 망새의 여러 형태 중 하나로, 건축물의 위엄을 높이기 위한 장식의 의미와 함께 길상(吉祥)과 벽사(辟邪)를 위한 주술적 의미가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양의 옛 목조건축에서 볼 수 있는 망새는 치미를 비롯하여 용두, 용미, 치문 등 나라와 시대별로 여러 가지 이름과 형태를 띠고 있다. '솔개의 꼬리'라는 뜻의 치미는 백제와 신라 등 우리나라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망새다. 여러 형상 중 새(鳥)의 형상을 빌린 것은 하늘과 땅을 오갈 수 있는 새를 통해 하늘의 소리를 듣고 지상의 뜻을 하늘에 전해 길상과 벽사를 도모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길상이나 벽사를 위해서는 하늘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당시의 시대상을 담고 있는 치미의 조명이라는 점에서 전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은 현존하는 치미 중 가장 오래된 부여 왕흥사지 치미(6세기 후반 제작)의 복원을 계기로 치미를 통해 백제의 문화와 동시대의 삼국 문화 등 우리 문화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마련됐으며, 현재까지 발굴된 완전한 모양의 백제시대 치미를 비롯하여 신라 시대 치미를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은 전시회다.

이번 전시에서는 14점의 치미와 관련 유물 28점 등 총 42점이 전시되는데, 2013~2014년 발굴되고 복원작업을 거쳐 2016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처음 전시됐던 부여 왕흥사지 치미를 비롯해 익산 미륵사지 치미, 부여 금강사지 치미, 부여 부소산 절터 치미 등 백제 치미와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 '황룡사'를 통해 선보인 바 있는 높이 182cm, 너비 105cm의 우리나라 현존 최대 치미인 경주 황룡사지 치미, 경주 분황사지 치미, 경주 인왕동 절터 치미 등 신라의 치미가 함께 전시된다. 이 중 경주 분황사 치미는 처음으로 실물이 공개되는 것이며, 최근 들어 복원된 후삼국시대 원주 법천사지 치미도 선보이는 자리여서 기대감을 더한다.

치미는 주로 점토로 만들어졌으며 용마루에 얹을 수 있도록 하단부 중앙에 적새와 연결하는 반원형 또는 방형의 홈이 가로로 패어 있어 고정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백제의 치미는 부여 천도 이후 많은 수량이 제작되고 유행했으며,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왕흥사지 치미는 신라 황룡사지 치미와 일본 오사카 시텐노지(四天王寺) 치미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구려의 치미는 4~5세기경의 고분벽화에 나타난 궁궐의 건물에서 그 흔적이 나타나 있고, 평양 부근의 절터나 궁궐에서 조금씩 출토되고 있으나 소수에 불과하다.

신라의 치미는 황룡사지 치미가 대표적으로, 양 측면과 뒷면에 손으로 빚은 연꽃과 사람 얼굴의 무늬가 번갈아 보이는데, 그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특별전은 세계유산 등재 이후 한층 고조된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바탕으로, 오는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열리는 '백제문화제'를 찾는 관람객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부여박물관은 특별전과 함께 10월 19일에 '동아시아의 치미'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사비마루에서 개최한다. 한국 · 중국 · 일본 · 베트남의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국의 치미연구를 비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3회 천태예술제 '묘음으로 피어나는 하얀 연꽃'

서울 KBS홀 9월 15일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9월 15일 오후 7시 30분 서울 KBS홀에서 제13회 천태예술제 '묘음으로 피어나는 하얀 연꽃'을 개최한다. 문화와 예술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고자 천태종이 지난 1991년 처음 시작한 천태예술제는 지난 20여 년간 세종문화회관, KBS홀 등에서 총 12회의 무대를 열었다. 이번 제13회 천태예술제는 새롭게 창작 된 교성곡 '법화광명의 노래' 총 29곡(서곡포함)중 우선 11곡을 '묘음으로 피어나는 하얀 연꽃'이라는 주제 아래 연주한다.

작곡가 조원행의 총지휘 아래 전국 천태연합합창단 800여 명이 마하연 실내국악단과 충주시립 우륵국악단의 반주에 맞춰 법화광명의 노래 가운데 11곡을 부르게 된다. 이번 천태예술제는 과거 영취산에서 펼쳐진 영상회상이 이 땅에 다시 현대인의 근기에 맞춰 문화예술이라는 장르를 통해 펼쳐지는 또 하나의 장엄한 영상회상의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태종은 2019년 하반기에 총본산 구인사에서 '법화광명의 노래' 29곡 전곡을 공연할 계획이다. 박재완 기자

오백나한상 사이를 거닐며 나를 찾는다

'창령사터 오백나한,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국립춘천박물관 특별전 8월 28일~11월 25일


'창령사터 오백나한,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전 1부 전시장 모습.

오백나한을 나한전이나 응진전이 아닌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춘천박물관(관장 김상태)은 8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18 특별전 '창령사 터 오백나한,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전을 개최한다.

고려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전시는 국립춘천박물관이 공동체에 휴식과 힐링, 삶의 여유를 주기 위해 박물관 브랜드 유물로 창령사 터 오백나한을 선정하고, 2018년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2002년 강원도 영월 창령사 터에서 발굴된 300여 위의 오백나한 중 180여 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전시 감상과 정보영역을 분리했다. 감상을 위한 영역에서는 현대작가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창령사 나한상의 성격을 드라마틱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다음으로는 전시 영역과 체험 영역을 통합하기 위해 공간설계와 교육프로그램 기획을 긴밀하게 조정함으로써 전시 공간 내에서 토크 프로그램과 명상, 요가 프로그램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시는 3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성상(聖像)임에도 불구하고 화내고 웃고 사랑하고 슬퍼하며 탈속의 경계를 넘나드는 오백나한의 얼굴에 집중하여 설치미술가 김승영 작가와 공간을 설계하고, 오윤석 작가와 사운드 작품을 더했다. 김승영 작가는 수천 장의 벽돌을 이용한 설치작품 'Are you free from yourself?'를 통해 과거와 현재가 서로 한 데 어우러져 호흡하는 숲과 같은 공간을 마련했다. 숲속에 고요히 좌정한 나한상 사이를 천천히 거닐며, 때론 입가에 미소를 머금기도 하고, 때론 깊은 사색을 끌어내기도 하는 나한상의 신묘한 힘을 느껴보도록 했다. 오백나한상을 하나하나 만나며 숲을 거닐고 자신과 닮은 나한상을 찾아보는 것도 이 전시의 묘미이다.

2부에서는 그동안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나한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온 성과를 펼쳐놓았다. 창령사 오백나한상의 미술사적 의의, 복식, 석재, 산지, 보존과 복원 과정, 훼불 가능성에 대한 검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학문적 융합과 그것을 통해 이뤄낸 컨텐츠를 전시로 구현했다.

3부에서는 나한상을 주제로 창작해온 지역 작가들과 함께 현대 삶 속의 나한의 의미를 찾아본다. 홍석창, 최영식, 이형재, 최중갑 작가는 강원의 정체성에 대한 오랜 물음을 작품을 통해 구현했다. 특별전 개막과 함께 도록의 기능을 겸한 조사연구보고서를 간행했다. 불교철학, 불교미술, 복식사, 지질학, 미학, 보존과학 등 10명의 전문가들이 창령사 오백나한상에 대한 다채로운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내 향후 나한상의 전시와 활용 등에 지침서 역할을 하도록 했다.

공개 강연 2회, 전시실 토크 프로그램 2회, 요가를 겸한 명상 프로그램 3회 등 국립춘천박물관의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들도 모두 이번 특별전의 주제와 연동되도록 했다. 박재완 기자

도일 스님 선서화도예전

9.19~10.2 갤러리 라메르

오봉산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은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갤러리 라메르에서 '깨달음의 향기가 깃든 도일 스님 선서화도예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석굴암 중창불사의 원만회향을 기원하는 사부대중의 간절한 마음과 70여 년 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적 교류 확대와 통일을 발원하는 마음이 담겼다.

한국전쟁 당시 격전으로 폐허가 된 사찰을 새롭게 장엄하여 남북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도량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불사이며,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남북교류를 확대하여 장차 평화통일의 대업을 성취하기를 발원하는 전시이다.

도일 스님은 "12년 만에 마련한 전시를 기회로 석굴암을 천년고찰이란 명성에 부합하는 수행처이자 기도도량으로 조성한 데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자 합니다"고 했다. 박재완 기자



“SNS 악플은 口業… 자신 옥죄는 악업 사슬”

박수호 교수, 불교평론 학술심포지엄서 주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인의 소통은 인터넷 공간과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서 이뤄진다. 하지만 이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게시글을 살펴보면 언어폭력들이 일상화돼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폭력에 대한 불교 윤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 발표됐다.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는 8월 31일 ‘좋은 말 나쁜 말 그리고 불교’를 주제로 열린 2018년 불교평론 학술심포지엄에서 ‘사이버 공간과 SNS에서 언어폭력과 불교적 대응’을 발표했다.

먼저 박 교수는 사이버 공간과 SNS에서 이뤄지는 소통의 특징을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을 보장받아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제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비난과 욕설 등이 만연한 상황이다. 공개적인 쌍방향적 대화를 보이는 SNS에서도 사생활 노출로 인한 비난과 왜곡 등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박 교수는 사이버 공간과 SNS에서 이뤄지는 통신언어도 의사소통의 왜곡 요인으로 꼽았다. 생생하게 쓰기나 재미있게 쓰기 등의 통신언어는 비대면적 상황에서 소통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언어문화이지만, 재미를 위한 자극적 표현은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의도로 읽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인터넷 언어폭력 심각 수준
불교적 제도 가능성 분석해
사섭법 · 십선계 등 윤리 적용
번뇌의 불구덩이서 벗어나야

박 교수는 “소통의 주제가 첨예한 대척점을 내포하고 있는 여성 · 난민 · 소수자 · 지역 · 이념 등일 경우 ‘혐오발언’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높다”고 진단하며 “혐오 발언은 그 자체로도 폭력적이고 갈등을 유발하지만 이를 비판하는 경우에도 악성 댓글이 폭주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사이버 공간과 SNS에서의 언어폭력에 대한 불교 윤리적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박 교수는 불교의 사섭법과 삼법인, 십선계를 윤리적 적용 사례로 들었다. 특히 박 교수는 대승불교의 대표 계율인 십선계는 소통과 왜곡을 해결할 수 있는 윤리적 기제로 주목했다. 십선계의 10가지 선행 중 4가지가 언어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거짓말, 이간질, 욕설과 비방, 남을 속이는 말을 하지 말라는 십선계의 가르침은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왜곡된 소통 상황에 즉시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최근 심각성을 더하는 악플이나 사이버 명예훼손 등은 이 같은 4가지 말로 짓는 악행들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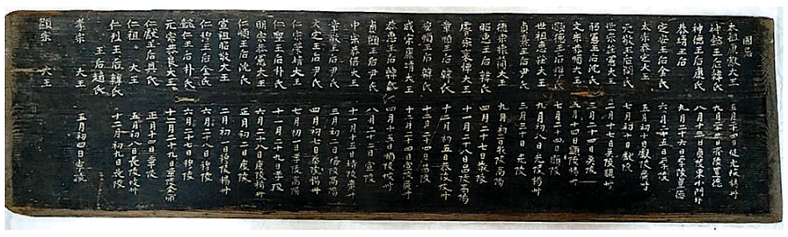
불교 대표 학술계간지 〈불교평론〉은 8월 31일 사옥 세미나실에서 ‘좋은 말 나쁜 말 그리고 불교’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또한 박 교수는 SNS에 나타는 폭력적 상황은 모두 언어에서 촉발됨을 분명히 하고 “이는 구업뿐만 아니라 신 · 의업과 연결된다”며 “SNS 언어폭력은 구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말, 행동 모두에 걸쳐서 악업을 짓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의 업설은 업에는 과보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가르치며, 그 바탕 위에 악업을 소멸하고 선업을 증장해야 한다는 윤리적 규범을 제시한다”며 “악플 하나가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옭아매는 악업의 사슬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복덕을 짓는 구도이자 수행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영사, 조선왕실 발원 기도 도량이었다

손신영 책임연구원
불영사 학술대회서
의상전 분석 과정에서
왕실과의 관계 조명해
동불연과 MOU체결도


불영사 소장 ‘국기(國忌)’ 현판. 태종부터 현종까지 왕과 왕비 이름과 기일, 능이름이 기록돼 있다. 이는 불영사와 조선왕실의 긴밀한 관계를 알 수 있다.

의상 대사가 창건한 천축산 불영사가 조선시대 왕실의 발원 기도 도량이었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신영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9월 1일 ‘울진 불영사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주제로 열린 불영사 주최 제2회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손 연구원은 불영사에만 존재하고 있는 창건주를 기리는 전각인 ‘의상전’을 연구 · 분석한 ‘울진 불영사 의상전 연구’를 발표하며 조선왕실과의 관계를 함께 조명했다.

실제 의상전은 2001년 해체수리 당시 발견된 상량문에서 1867년 인현왕후의 원당으로 창건된 전각임이 확인됐다. 하지만 17세기 후반 인물인 인현왕후의 원당이 왜 19세기에 지어졌는지, 왕실 인사의 원당이 의상전이 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나오지 못했다.

손 연구원이 주목한 것은 불영사와 조선왕실과의 긴밀했던 관계였다. 그는 △국기(國忌) △불영사 명부전 존상 조성 발원문(1688) △산신도 복장 발원문(1880) △응진전 복장 중 대중원문(大衆願文, 1906) △대한국강원도울진군천축산불영사중수기(大韓國江原道蔚珍郡天竺山佛影寺重修記, 1906) △아미타회상도 화기(1906)를 사례로 들었다.

특히 왕실 제사 일정을 기록한 ‘국기’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불영사의 ‘국기’ 현판에는 태종~현종까지 역대 왕과 왕비의 이름이 적혀있고, 기일과 능이름이 수록돼 있다.

손 연구원은 “‘국기’ 현판은 강원도 신흥사와 삼척 영은사에 전해진다”면서 “이 현판의 존재는 왕실 관계 사찰임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또한 명부전 존상 조성 발원문에는 왕의 내전에서 거주하는 송씨 · 이씨 · 박씨 상궁들이 발원해 왕실을 축원하며 복을 기원하고 있어 1680년대 불영사에서는 왕실발원불사가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06년 불사를 보여주는 응진전 대중원문, 중수기, 화기를 통해서도 불영사가 새롭게 단장되는 대규모 불사가 왕실발원으로 이뤄졌다는 게 손 연구원의 설명이다.

손 연구원은 “1681년과 1688년 불사는 왕실의 기대를 담아 이룩된 불사”라면서 “불영사는 왕실 공식 원찰은 아니었지만 숙종과 고종 연간에 왕실 발원 기도를 봉행하던 사찰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상전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의상전은 1867년 인현왕후 원당으로 창건됐으나 1906년 이전에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고, 이후에는 조사전으로 칭해지다가 20세기 들어 불영사의 전통에 따라 의상전이라 명명하게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의상의 화엄사상이 구현된 불영사의 지형과 공간(김규순 대한풍수연구원장) △17세기 후반 울진 불영사 불교조각 연구(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울진 불영사 목조각품의 수종과 연륜연대(김요정 충북대 목재연륜소재은행 책임연구원) △19세기 불영사와 불화 불사(김미경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등이 발표됐다.

한편, 불영사는 학술대회에 앞서 행사를 주관한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찰 문화재 연구 등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신성민 기자

2018 가을학기 불교학 박사 논문들 〈下〉

화쟁논법 · 들뢰즈 철학 비교
삼계교 실천 사상 등 ‘주목’


박부자


김혜원


이용애


김태수

2018년 가을학기에 동국대 등에서 14명의 불교학 박사가 배출됐다. 이들 가을학기 박사 학위자들의 박사 논문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중국 삼계교의 실천사상은

박부자 박사(동국대 불교학과)는 ‘삼계교(三階教)의 실천수행사상 연구’를 주제로 한 학위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개창 당시를 말법시대로 본 신행선사가 개창한 삼계교 사상의 중심은 보경(普敬) · 인악(認惡)에 있다. 보경은 누구나 부처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며, 인악은 자신의 악함을 철저히 반성하는 데 있다. 박부자 박사는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실천해야 하는 것이 삼계교를 개창한 신행의 실천론의 특징”이라며 “보경과 인악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제3계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유일의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수자선 〈필삭기〉 해석적 특징

김혜원 박사(동국대 불교학과)는 ‘장수자선(長水子璿)의 대승기신론 소필삭기(大乘起信論疏筆削記) 연구- 삼세육추(三細六) 해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혜원 박사는 〈필삭기〉에 나타난 해석적 특징에 주목하고 삼세육추의 주석에서 자선의 주석적 특징을 살폈다.

김혜원 박사는 “〈필삭기〉의 삼세육추 주석과 비교검토했을 때, 자선 해석의 특징은 ‘몽유(夢喩)를 통한 삼세의 이해’에 있다”면서 “자선의 몽유를 통한 삼세 해석과 이와 같은 분석 방식은 그의 다른 주석서인 〈간정기〉와 〈의소주경〉의 몽유 관련 기술과도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이후 첩요 · 열망소 · 청집기의 삼세육추 해석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불교 의식의 기원과 발전 고찰

이용애 박사(동국대 미술사학과)는 ‘한국불교 재의식의 설행양상과 불화’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용애 박사는 논문에서 불교의식의 기원과 성립, 재의식 설행 양상 등을 분석했으며, 의례에 사용되는 불화에 대해서도 고찰했다.

그는 불교 재의식은 본래 목적과 다르게 변화하면서 영가천도를 가장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도량장엄은 불교 의례 예술의 백미로서 시각적 효과와 모인 대중의 마음을 하나로 응집시키는 힘이 있음을 파악했다.

그러면서 “불교의식과 장엄의 경우 이를 행함에 있어 의식을 더 의식답고 장엄하게 해야만 하고 더욱 법답게 흐트러짐 없는 진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효 화쟁 논법 구조와 특성

김태수 박사(서울대 철학과)는 ‘원효 화쟁논법 연구-사구(四句) 논리를 중심으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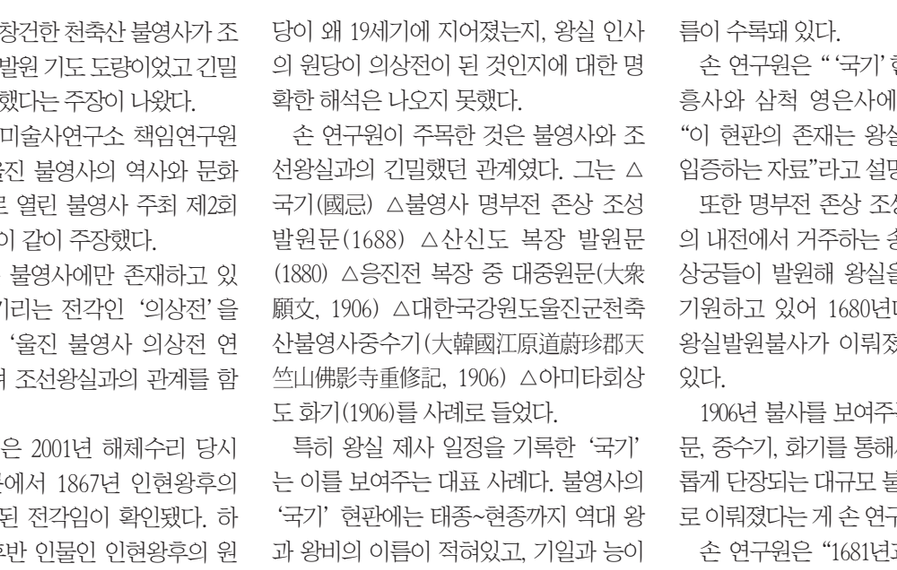
특히 현대 철학과 대비한 화쟁론 분석은 눈길을 끈다. 김태수 박사는 일심이나 불설 등에 의거해 모순되는 입장을 화쟁한다는 점에서 변증법적 방법론과 흡사한 요소가 있지만, 변증법과 달리 본체나 단계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문제로부터 분화된 각 부문을 종합해서 공통의 의미를 산출한 해법으로서의 화쟁이, 잠재성으로서의 이념인 일심과 같은 문제 안에 함축돼 있다는 점에서 들뢰즈의 새로운 변증법 모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구의 불일불이 중 불이로서의 일심을 절대적 일심으로 보는 동일성의 철학이 아님을 짚어낸 논자는 쟁점을 바라보는 각각의 시각과 태도의 차이를 존중하는 불일에 의거한 불이론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는 들뢰즈의 후기 구조주의나 현상학과도 상통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 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사형수 포교 50년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⑰ 사형수 이양길

‘누명’ 피하려다 ‘토막살해범’ 돼

아동성폭행, 토막살해 등 죄질이 고약한 흉악범들은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기피의 대상이다. 이들은 구명(救命)운동 대상이 될 수 없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의 생명을 늘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싶겠지만, 나는 토막살해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이의 구명에 나섰던 적이 있다. 사형수 이양길이다. 40년도 넘은 일이다. 그때 나는 사형수 이양길의 목숨을 연장해달라고 탄원서까지 썼다. 모든 일의 시작은 이양길의 남동생 이명호 씨와의 인연이었다.

1979년 10월 김천 개운사 주지 시절, 다리를 심하게 저는 한 청년이 나를 찾아왔다. 이양길의 동생 이명호였다. 동생 이 씨는 억울한 형 대신 몸이 불편한 자신이 죽을 수는 없느냐며, 처음 보는 나에게 형을 구해달라고 다짜고짜 매달렸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동생 이 씨는 나를 만나러 오기 전 대구교도소 근방서 유명했던 모양이다. 형 이 씨가 수감된 이후, 그는 날마다 교도소를 찾아 철문 앞에서 형을 살려달라고 통곡했다. 다리 한 쪽을 거의 못 쓰는 장애인이 본인 형님을 살리겠다고 나뒹구는 모습이 딱했던지, 어떤 사람이 동생 이 씨에게 삼중 스님을 찾아가 보라고 일러줬다고 했다.

나는 그야말로 곤혹스러웠다. 당시 부산 토막살해범 이양길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주요 언론사는 동거하던 여자를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한 이 씨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나 역시 언론을 통해 사형수 이 씨 소식을 접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런 사형수 일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나는 동생 이 씨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다.

그러자 동생 이 씨는 나를 설득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자초지종을 들어달라고 했다. 나는 할 수 없이 반신반의하며 사형수 동생의 이야기를 들었다.

동생 이 씨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형 이양길과 동거한 여자는 가출을 일삼았고, 형 이 씨는 집 나간 여자를 다시 찾아 데려오는 일을 수차례 반복했다. 또 다시 여자를 찾아 집으로 데리고 온 어느 날, 형 이 씨는 소리소리 지르는 여자의 입을 막고 묶어둔 뒤 외출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돌아온 형 이 씨는 여자가 혀를 깨물고 자결한 현장을 발견한다. 평소 내성적인 성격의 형 이 씨는 자신이 살인죄를 뒤집어쓸 것이 두려웠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형 이 씨가 술을 마시고 한 선택은 좋지 못했다.

이 씨는 죽은 여자의 시신을 숨기기 위해 여러 궁리를 하던 중 여자의 시신을 훼손·유기해버린 것이다. 이후 검거된 이 씨는 1977년 사형이 확정됐다.

동생 이 씨는 죽은 여인은 형이 죽인 게 아니고 자살한 것이며, 알려진 사실과 다르게 경찰이 억지로 만들어 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동생 이 씨



사형수 이양길의 형 집행 연장을 위한 탄원서 제출을 도와 준 강신명 목사(사진 오른쪽).

자살 동거녀 시신 훼손·유기
수감 중 기독교 귀의 깊은 참회

동생의 눈물겨운 구명운동
“참회할 시간이라도 더 주세요”
강신명 목사 탄원서 동참
형 집행 이례적 연장, 5년 걸려

는 사형수가 된 형이 교도소에서 기독교에 귀의하고, 다른 재소자들의 발을 씻겨줄 정도로 참회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불편한 몸으로 형을 살리겠다고 고군분투하는 동생 이 씨의 간절한 형제애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나는 그 길로 대구교도소로 갔다. 다른 재소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형수 이 씨를 만나보니, “이전의 삶을 후회하는 만큼 남은 시간 속죄를 계속 하겠다”는 그의 진심을 믿게 됐다.

동생 이 씨와 무작정 상경한 나는 사형수 이양길의 형 집행을 미룰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나는 문득 강신명 목사가 떠올랐다.

강 목사는 광화문 새문안교회를 세운 기독교의 거목으로,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가까운 사이였다. 사형수 이 씨가 기독교인인지라 나는 강 목사가 이 일에 협조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다.

어렵게 연락이 닿아 만난 강 목사는 사연을 듣더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스님이 하고 계시는군요”라며 나와 동생 이 씨를 도와주었다. 나는 강 목사에게 사형수 이 씨를 무기수로 감형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탄원서를 써갔다. 이 씨의 사형 집행이 조금이라도 미뤄져 자기가 지은 죄를 원 없이 참회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취지였다. 강 목사는 내 탄원서를 손수 퇴고해주는 등 이 씨를 구명하는 일에 여러모로 힘을 써주었다.

강 목사가 직접 제출한 탄원서는 청와대를 거쳐 주무부서인 법무부로 넘어갈 것이었다. 그런데 동생 이 씨는 부산서 김천까지 여러 번 나를 찾아왔다. 법무부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형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 그의 말을 들은 나는 또 다시 강 목사를 찾았다. 강 목사 편에 알아보니, 내가 쓴 탄원서가 전달되지 않은 듯 했다.

우리 두 사람은 법무부를 직접 찾아가 탄원서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나와 강 목사는 당시 이영욱 법무부 차관을 만났다. 차관은 서로 다른 종교인이 함께 손을 잡고 들어서는 우리 두 사람을 보고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 자리서 강 목사와 나는 이 차관과 사형수 이 씨의 구명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이 차관에게 사형수 이 씨의 집행을 미루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 통상 사형 선고부터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은 2년 이내였다. 하지만 사형수 이 씨의 형 집행은 5년이 걸렸다.

형의 목숨을 연장해달라며 빌던 동생의 우애와 무명의 생경한 스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 원로 목사의 마음이 있었기에 사형수 이 씨는 참회의 시간을 이어갈 수 있었다. 사형수 이 씨가 묵묵히 봉사하면서 담담히 죽음을 준비하다 떠날 수 있었던 건 동생 이명호 씨와 강신명 목사와의 인연 덕분이다.

정리=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이란 보살의 ‘밥 짓는 소리’

⑯ 정오 스님 · 삼현거사

스님이 계시는 절은 높은 산이나 심산유곡에 있는 절이 아니다. 꽤 오래된 나무 한 그루와 서로 곁을 내어주며 물에 젖은 솜을 건져 짜내어 말려 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사시는 스님이다. 가끔 도심 속에서 살며 지내는 사람들에게 짧지만 오랜 여운의 청량감을 주시니 감사하다. 마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고 털고 일어나는 그날, 앉고 서고가 없는 그 자리가 여여(如如)하다고 일어나 걸으실 그날을 기다린다. 선선(禪禪)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삼현거사는 나의 둘째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병원놀이를 즐겨하며 자랐다. 내가 일하다 다치면 반창고를 붙여 주고 빨간약(머큐롬)을 발라주며 호호 불어 주곤 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어느 날, 일기장을 보여 주었다. 위 칸에는 약통을 옆에 놓고 약을 발라주며 진찰하는 그림을 그려 놓고, 아래쪽 네모 칸에는 공부 잘 하면 ‘닥터, 리’라 불러주고 못하면 ‘닭다리’라고 불러 달라 적어 놓았다. 그날부터 ‘닥터, 리’, ‘닭다리’라 번갈아가며 불러주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아들은 성형외과 의사가 되겠다고 했다.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기에 몸 보기와 마음 보기에 관해 이야기하며, 의사는 나눔과 봉사를 같이 해야 하는 업이니 부처님 시봉도 잘 하도록 일러두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

천만불자들의 PICK!
BTN 불교TV 대표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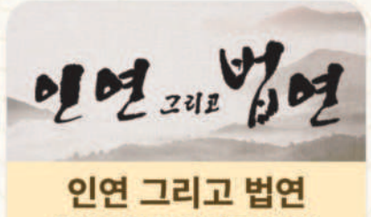
드라마 붓다
월·화 13:30



스트레스관리와 알아차림 명상
화 15:00, 23:00



산은 산 물은 물
목·금 14:00



인연 그리고 법연
수 09:30, 14:30 / 금 08:30



일감스님의 만행
화 14:30, 20:30



원순스님의 능엄경강설
금 13:00, 22:00



오늘은 좋은날 비긴즈
금 09:00, 16:00



진명스님의 지대방
화 11:30, 19:30



내 안의 선지식 금강경
수 08:30, 21:00



광우스님의 소.나.무
수 11:30, 22:00

BTN 은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81번 olleh HD 233번 Btv HD 305번 U+TV 185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BTN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02.3270.3300

미얀마 코리아 종합기술대학교 완공식 봉행

일시 : 2019년 2월 25일 9시 30분 / 장소 : 양곤 흘라잉따야 구쑤빠웅용 동네따까마-14번지







미얀마 연방정부 종교성 장관 공식 초청 행사

한국불교 큰스님들과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고통받는 극빈지역 청소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새삶을 영위하게 한다는 사명감으로 수많은 우여곡절과 시련, 고통의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인간방생, 중생구제에 현세의 참다운 마지막 회향이라는 사명감으로 묵묵히 온 몸을 던지신 목탁스님과 법왕청 큰스님들의 피와 땀으로 결실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부처님의 환한 미소 속에 가슴 벅찬 세계불교도들의 환호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산넘어 산, 준비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자재 준비와 교수 및 교육지도에 재능보시할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 일들로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학교운영이사님, 지도교수 운영위원님 들을 초빙하는 일 역시 큰 일이지요. 부처님 마음을 내시는 보현보살의 행과 살아있는 관세음 보살님을 모시는 큰 불사 역시 한국불교 사부대중이 동참하는 일입니다. 보현보살행을 보여주실 분 (02-733-5665) 연락주십시오.

종교법인 세계불교법왕청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외교법인 한국 - 미얀마 친선교류협회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 미얀마관광청 한국대표부

031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층) | 대표전화 : 02-733-5665 | FAX : 733-5615 HP : 010-3618-6061 | E-mail : moktakno1@hanmail.net



후원회 : 세계불교도들의 법왕 Dr 우꾸마라 사야도, 수지여사, 불교수호협회 Dr 킨쉐이

봉행 준비위원회 공동 대표 : 종교성장관 Union Minister for Religious Affairs and culture, Thura U Aung Ko. sanggalaja Dr Mok Tak (대승정 목탁)

코리아기술대학 완공식 봉행위원회 봉행위원장 법산대종사. Dr바라사야도, Dr에인다빠라 삼장법사, Dr짜익티오성 사야도, 승가연합회사무총장 Dr사야도



후원계좌번호 : 국민은행 023501-04-14758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국민은행 023501-04-163141 한국미얀마 친선교류협회

완공식에 동참하실 사부대중께서는 항공권을 확보해야 하는 관계로 선착순100명 미얀마 관광청 한국대표부 봉행위원회로 (02-733-5665)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 행사이후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몽유화 5박 7일 성지순례 ※